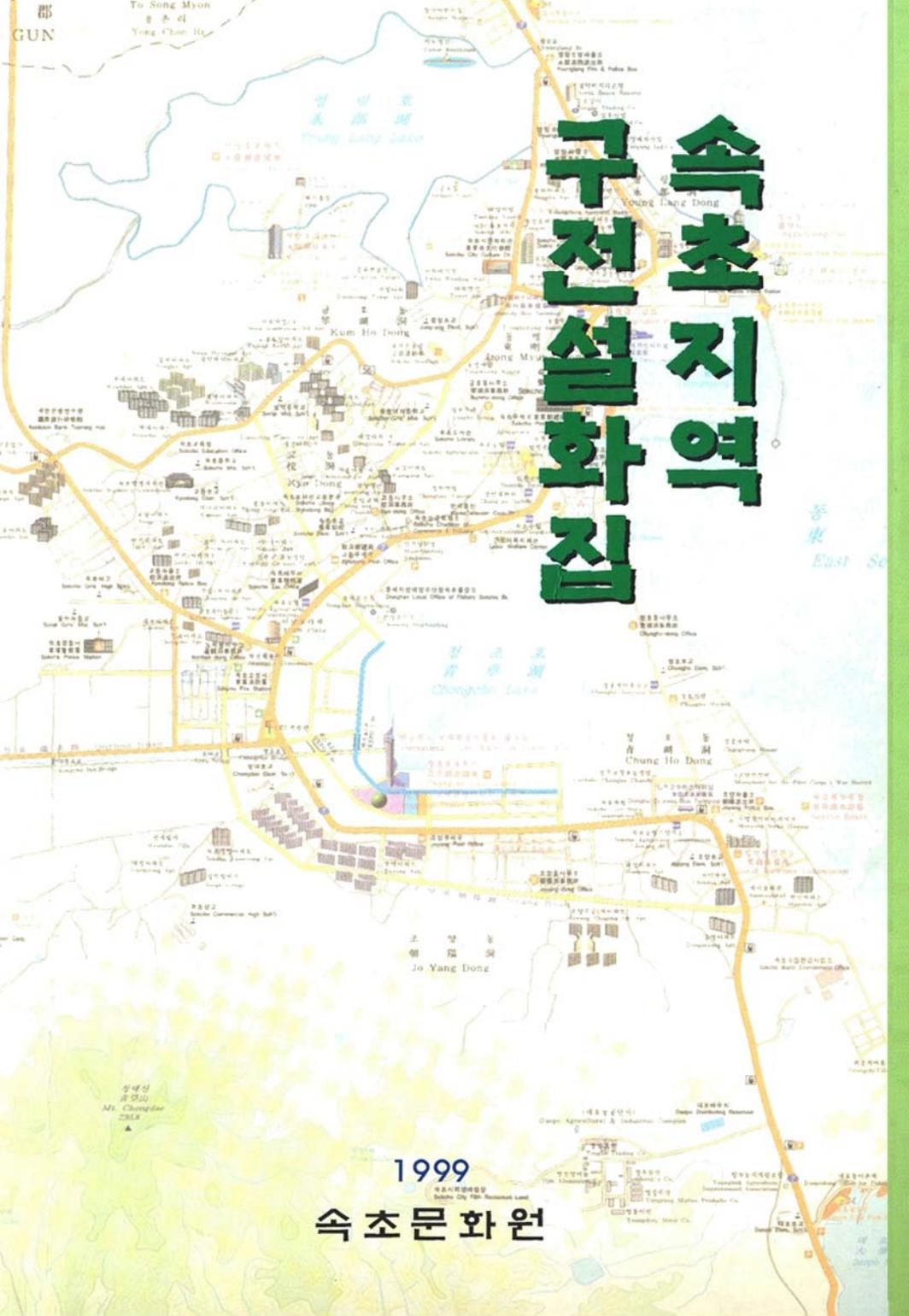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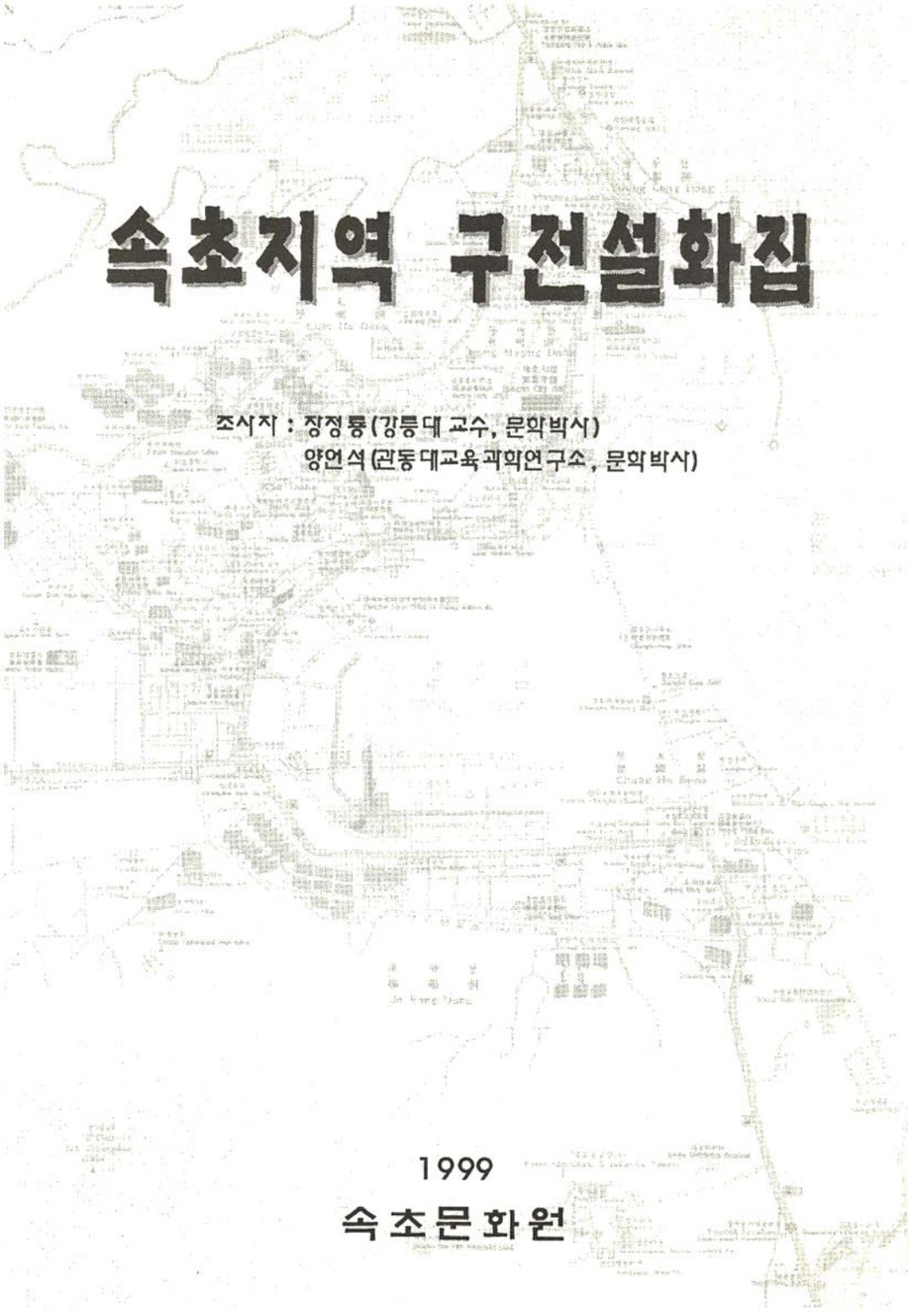
郡
GUN
To Song Myon
永春里
Yong Chun Ri

속초지역 구전설화집



1999

속초문화원

A detailed, light-colored map of the Suchoeup area in Gyeongju, South Korea, serves as the background for the entire page. The map shows a dense network of streets, rivers, and various landmarks, with text labels in Korean and English. The title and author information are overlaid on this map.

속초지역 구전설화집

조사지 : 장정동 (강릉대 교수, 문학박사)
양연석 (관동대교육과학연구소, 문학박사)

1999

속초문화원

차 례

발간사 / 최용문 속초문화원장 / 9

I. 속초의 역사변천 / 11

II. 속초의 구전설화(口傳說話) / 17

1. 지역전설

- 【전설 1】 계조암 수음바위 / 19
- 【전설 2】 계조암 수음바위 / 20
- 【전설 3】 계조암 전설 / 21
- 【전설 4】 계조암과 송강 정철 / 22
- 【전설 5】 계조암과 흔들바위 / 24
- 【전설 6】 교동의 유래 / 25
- 【전설 7】 권금성 전설 / 26
- 【전설 8】 권금성과 달맞이꽃 / 27
- 【전설 9】 권금성과 토왕성 / 28
- 【전설10】 귀면암과 마고선 / 30
- 【전설11】 금강굴 도선의 욕심 / 31
- 【전설12】 금강굴 유래 / 32
- 【전설13】 노학동 유래 / 33
- 【전설14】 노학동 유래 / 34
- 【전설15】 노학동 유래 / 35
- 【전설16】 논외호 불꽃놀이 / 38
- 【전설17】 대청봉 유래 / 39

- 【전설18】 도리원 유래 / 40
- 【전설19】 도문 벼락바위와 처녀 / 41
- 【전설20】 도문과 신흥사 / 48
- 【전설21】 도문동 벼락바위 / 49
- 【전설22】 도문동 유래 / 50
- 【전설23】 도문동 유래 / 51
- 【전설24】 도봉동과 비선대 유래 / 52
- 【전설25】 만천동 유래 / 54
- 【전설26】 미시령 전설 / 55
- 【전설27】 북청사자놀이 / 58
- 【전설28】 비룡폭포의 처녀제사 / 60
- 【전설29】 상도문의 전설 / 67
- 【전설30】 설악산과 금강산 / 73
- 【전설31】 설악산과 마의태자 / 74
- 【전설32】 소야팔경 / 75
- 【전설33】 소야팔경 / 78
- 【전설34】 속초의 전설 / 80
- 【전설35】 속초지명유래 / 81
- 【전설36】 속초지형과 영금정 / 83
- 【전설37】 송도의 전설 / 88
- 【전설38】 신흥사 유래 / 89
- 【전설39】 신흥사 유래 / 92
- 【전설40】 쌍천 도갑소 / 93
- 【전설41】 양폭과 음폭 / 94
- 【전설42】 염주폭(念珠瀑)과 무내미 고개 / 95
- 【전설43】 영금정 이야기 / 96

- 【전설44】 영금정과 속초 / 97
- 【전설45】 영랑호 용이야기 / 99
- 【전설46】 영랑호 전설 / 99
- 【전설47】 영랑호와 달마대사 / 101
- 【전설48】 오세암 전설 / 102
- 【전설49】 용기점 마을과 천주교 / 103
- 【전설50】 울산바위 매미떼 합창 / 105
- 【전설51】 울산바위 매미떼 / 107
- 【전설52】 울산바위 유래 / 108
- 【전설53】 울산바위 전설 / 109
- 【전설54】 울산바위 전설 / 112
- 【전설55】 울산바위와 동자승 / 114
- 【전설56】 울산바위와 세금 / 118
- 【전설57】 울산바위와 송강 정철 / 119
- 【전설58】 울산바위와 의덕장사 / 120
- 【전설59】 장재터 이야기 / 123
- 【전설60】 장천마을의 음양수 / 124
- 【전설61】 장천마을의 인심 / 124
- 【전설62】 장천유래 / 125
- 【전설63】 저항령 취봉당 산삼터 / 126
- 【전설64】 척산의 유래 / 127
- 【전설65】 청대리 소나무 / 128
- 【전설66】 청대리의 전설 / 129
- 【전설67】 청초호 용경(龍耕) / 130
- 【전설68】 청초호와 민속 / 131
- 【전설69】 청호동 갯배 / 133

- 【전설70】 청호동 성황제 / 133
- 【전설71】 청호동 유래 / 134
- 【전설72】 과명당(破明堂)과 학사평(鶴沙坪) / 135
- 【전설73】 하도문의 지명유래 / 138
- 【전설74】 학사평의 풍수지리 / 139

2. 구전민담

- 【민담 1】 ‘꼭’한 이야기 / 140
- 【민담 2】 고려장과 부모마음 / 143
- 【민담 3】 구렁이가 된 총각 / 144
- 【민담 4】 날개달린 강장군 설화 / 145
- 【민담 5】 도깨비불 이야기 / 146
- 【민담 6】 동해용왕신 이야기 / 147
- 【민담 7】 머리 좋은 아들 / 148
- 【민담 8】 박문수 어사와 초동 / 152
- 【민담 9】 배성주 제사 / 153
- 【민담10】 배성주신 유래 / 153
- 【민담11】 썩조골 김부자의 구렁이 / 156
- 【민담12】 선비 강태봉 이야기 / 158
- 【민담13】 설악산 다부골 청년 / 159
- 【민담14】 스님의 일곱 자식 / 162
- 【민담15】 식청이 장사(壯士) / 164
- 【민담16】 어느 선지자의 예언 / 178
- 【민담17】 여자 배성주 / 179
- 【민담18】 영랑호에서 다시 만난 친구 / 180
- 【민담19】 이 부잣집 구렁이 / 181

- 【민담20】 장사가 되어 다시 찾은 부인 / 182
- 【민담21】 제일 힘 센 막내둥이 장사 / 191
- 【민담22】 집안의 세 가지 소리 / 195
- 【민담23】 향아리 산삼 / 196
- 【민담24】 헛불 이야기 / 198
- 【민담25】 호랑이와 싸운 할아버지 / 199
- 【민담26】 효도한 아들 / 200
- 【민담27】 효불효교 이야기 / 200
- 【민담28】 힘센 장사 5형제 / 201

Ⅲ. 속초 구전설화의 특징 / 203

Ⅳ. 속초 문헌설화의 내용 / 215

[자료] 《도천면 면세일반》 (1926년) 영인본 / 227

발간사

속초 구전설화의 문화자원화



최 용문(속초문화원장)

새로운 21세기는 문화가 중심이 되고 중요한 지역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책자는 그동안 잊혀진 속초에 대한 지명유래나 산악과 해양, 자연부락 전설 그리고 재미있고 교훈을 담은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들었던 옛날이야기는 우리들의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속초지역을 자세히 알고, 교육자료로 삼는 데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된 이야기가 가진 기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남긴 무형의 문화자원을 오늘에 계승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온고지신과 범고창신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새 천년은 인터넷으로 세계가 하나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전래이야기나 독특한 개성을 창안하여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역의 고유한 정서와 구전설화, 그리고 정신문화를 제대로 잘 지키고 전승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간행한 책자는 그동안 수집한 이야기를 총괄적으로 집대성하여 속초 전반의 다양한 이야기 문화를 되살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지역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 이러한 이야기들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전해져서 지역민에게는 자긍심을 주고, 학계에는 자료를 제공하며, 자라는 세대에게는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로 구전되는 설화와 비교할 수 있도록 문헌상에 나타난 속초 설화자료를 실었습니다. 또한 판독하기 쉽지 않게 경필로 일제 때 작성된 《도천면 면세일반》 자료를 함께 수록하여 권금성이나 소야팔경 등 유래를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제공해 주신 박익훈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연구 여건 가운데 십 여년동안 작은 토막이야기부터 역사적인 자료, 문헌자료를 모은 것을 제공해 주신 장정룡, 양언석 교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자료가 되도록 구연해주신 지역주민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1999년 12월

I. 속초의 역사변천



동국여지승람(1530년)

속초의 역사에서 선사시대와 관련된 유물은 속초의 과거를 말해준다. 조양동의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편 출토와 장사동의 청동기 마제석검, 도문동의 청동기 무문토기편 등에서 속초지역은 오래 전부터 토착민이 거주했음이 밝혀졌다.

속초시는 부족국가 시대에 동해안에 실재했던 동예에 속했는데 당시의 군장이 통치하던 연맹왕국이었다. 동예국은 춘천 일대의 맥국과 더불어 강원 고대사에 예맥국 시대를 열었다. 삼국 정립 시기에 속초는 고구려에 귀속되어 익현에서 익령현으로 바뀌었다. 2세기경 동해안의 옥저를 정복한 고구려는 4세기 무렵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확장하였다. 신라는 당시에 지방제도를 9주 5소경으로 확정했는데 간성은 수성으로 고쳐져 명주에 속했고, 고구려가 물러간 후 속초는 신라 땅에 속했으며 이때 수성군의 일부가 되었다.

속초는 삼국시대에 고구려와 신라의 영향권에 속했으며, 이후 10세기 고려가 세워지면서 체제가 정비되었고 현종 때에는 현으로 편제되어 현령이 배치되었다. 고려 고종 8년(1221)에는 이 지역에 침입한 거란병을 방어한 공로가 인정되어 양주방어사로 직위가 승격되었다가 이후 몽고병에게 항복한 1257년에는 덕령감무로 강등되었다가 원종 원년(1260)에는 지양주사로 회복되었다.

조선조의 건국과 더불어 속초시는 태조의 외향이라는 명분으로 태조 6년(1397) 부로 승격되었고, 태종 13년(1413)에 도호부가 되었으며, 속초지역은 소천면에 속했다. 태종 16년(1416)에는 속초지역을 포괄하여 양양도호부로 바뀌어 동산현을 속현으로 관장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이 지역은 고려때부터 거주해 온 토성이 강릉 김씨, 경주 김씨, 전주 이씨, 안성 이씨, 경주 이씨, 가산 이씨, 함평 이씨 등이 있었고, 이주 해온 성씨는 울진 장씨, 나주 임씨 등이고 옮겨간 성씨는 손씨, 박씨, 하씨, 정씨 등이었다.

19세기에 편찬된 《관동읍지》에는 평강 채씨, 강릉 최씨, 광주 노씨, 제주 고씨, 창원 황씨 등이 새로 이주해 왔다고 한다. 이렇게 여러 성씨가 이주함에 따라 지역 구성원과 생활도 다양해졌다고 하겠다.

조선조 후반 속초지역의 행정편제는 고종 32년(1885)에 8도제가 23부로 개편되면서 간성군과 양양군이 분할되었고 이듬해 13도체제로 개편되었다. 《여지도서》(1760년)에 의하면 속초지역은 양양군 소천면과 도문면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속초리가 포함된 소천면에는 논산리·부월리·속초리·속진리 등 4개리이고, 도문면은 상도문리·하도문리·물치리·대포리·웅진리·신흥사 등 6개리로 편성되었다. 당시의 통계를 보면 도문면은 205호에 635명, 소천면은 182호에 630명이었다.

1887년경에 발간된 《양양읍지》에 의하면 도문면은 5개리와 신흥사를 포함하여 6개지역에는 173호에 588명, 소천면 4개리에는 179호에 591명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속초라는 지명이 처음 나오는 자료는 조선 영조 36년(1760)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이다. 이 자료에는 “속초리는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35리 떨어져 있다. 호구수는 86호이며 인구는 남자 90명, 여자 182명이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조에 양양도호부 소천면 속초리에서 오늘날의 속초라는 지명이 나왔음을 알 수 있으며, 1759년 행정구역이 정해지면서 쓰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일제시대 속초의 청초호가 개발됨에 따라 속초리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도문면과 소천면이 합쳐져 도천면이 되고 면사무소를 1937년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기게 되었다. 따라서 면 이름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어 속초는 동리 이름에서 면 전체를 지칭하게 되었다.

1926년에 발간된 《도천면 면세일반》에 의하면 1907년에 도천면은 11개리로 구성되어 장항리·상도문리·중도문리·하도문리·내물치리·대포리·외용치리·부월리·노리·속초리였다. 이어서 1942년 10월 1일 부령 제104호로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되면서 속초리는 1구에서 4구까지, 노리에서 도리원리와 이목리, 척산리가 분리되어 14리가 되었다.

1951년 양양군 토성면 장천리와 사진리를 편입하였다가 1954년 다시 토성면으로 넘겼고, 부월리에서 온정리, 논산리에서 청대리가 분리되었다. 속초리는 피난민이 늘어나 5구와 6구로 늘었고, 1962년에 신흥리가 생겨났다.

1963년 1월1일 법률 제176호에 의거해 속초시로 승격되었고, 1966년 동계 실시에 따라 속초리 1구는 영랑동, 2구는 동명동, 3구는 중앙동, 4구는 금호동, 5구는 청호동, 6구는 청학동과 교동으로 바뀌었고, 부월리·온정리·논산리·청대리를 합쳐 조양동으로 정하고, 노리·도리원리·이목리·척산리·신흥리를 합쳐 노학동으로, 대포리·외용치리·상도문리·중도문리·하도문리를 합쳐 도문동으로, 장항리는 설악동으로 바꾸어 12개 동을 관할하였다.

이후 1973년에는 장사동이 생겨 13개동으로 늘어났으며 1996년에는 영랑동,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 교동, 노학동,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 장사동 등 13개 법정동과 행정동, 24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었으며 인구는 80,581명, 193개 통, 984개반이 되었다.

1998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1999년 12월 현재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노학동,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 등 8개동으로 통합하였으며 인구는 88,769명으로 나날이 세계적인 관광문화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II. 속초의 구전설화(口傳說話)



여지도서(1760년)

1. 지역전설

【전설1】

□ 계조암 수음바위

이건 내가 어디서 들은 이야긴데 혹 스님들에게 폐가 안될까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그 설악산 계조암 앞에는 수음바위라는 바위가 있다 했는데 그 모양이 여자의 앉아서 방뇨를 하는 모습이 다 그래요. 그 바위틈에서 샘물이 나오는데 이 물을 먹으면 장수가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암자에 있는 스님중에는 힘센 장수가 많았다고 하네요.

날이 가물어 물이 잘 안나오면 수음바위 건너편의 흔들바위를 수음바위쪽으로 밀면 물이 더 나왔다고도 합니다. 옛날에는 흔들바위가 두 개여서 마치 남자의 낭심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이조 초기에 유교를 신봉하는 강원도 관찰사가 이곳을 지나다가 수음바위 물을 먹으면 장수가 된다는 소리를 듣고 혹시 반역하는 사람이 나오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바위를 하나 밀어서 떨어뜨렸다고 하지요. 이렇게 하고 나니 바위틈에서 물이 나오지 않고 그후는 장수가 설악산에서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찰사는 돌아 댕기면서 절에 개금불사가 있으면 솔가지 불로 이것을 검게 칠하는 등으로 불교를 박해했다는 겁니다.

이 관찰사는 울진 방면으로 내려가다가 경치를 읊으면서 시 한 수를 지을라구 붓을 입에다 물구 홍얼대다가 칩줄기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붓대에 목이 찢려 죽었다 합니다. 불교를 박해한 탓이지요.

<이건석, 남·66, 동명동, 1990. 11. 2>

【전설2】

□ 계조암 수음바위

옛날 계조암 앞쪽에는 수음바위가 있었어. 왜 수음바위라면 여자가 앉아 오줌누는 모습이랑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지. 이곳에서 샘물이 나오는데 이물을 먹으면 거 그냥 막 힘이 세져서 장사가 되는거야. 어느날 이곳에 선비가 하나 새로 왔는데 자기 외에 다른 장사가 나올까봐 샘물을 마시고 샘물을 막아버렸지. 어찌 막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후로 샘물은 다시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이 선비는 장난이 무척 심했어. 수음바위에 먹칠을 하고 술판을 벌리며 밤새 놀았지. 그리고는 수음바위에 오줌을 누었어. 그래 하늘이 노했는지 수음바위가 노했는지 그만 발이 미끄러져 수음바위 밑으로 떨어져 죽었지.

<이성철, 남·82, 영랑동, 1999. 12. 17>

【전설3】

□ 계조암 전설

계조암이라는 데는 이을 계(繼)자 할아버지 조(祖)자, 그 예전에 그 계조암 굴 밑에 와오석이라는 이젠 내려반석이 있는데 흔들바위가 있다고. 지금은 관광객이 가면 흔들바위 흔들어 보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본래 나가 조금했어도 갔는데 전나무가 인제 꽤 컸다고. 전나무 하나 심어서 그 후 기래서 거기 조그마한 흔들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떨어졌어.

그건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있지. 거기 가면 조금만 흔들바위 떨어진 게 있지. 근데 예전에 그 흔들바위 그거 조금만 흔들바위를 흔들면 지금 물통이 있다고. 그 큰 계조암에서 나오는 바로 옆에 이런 가오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물통을 이렇게 떠났다고 그 아주 물이 저절로 나왔다고 그런 얘길하더라고 우리도 거기 가서 몸이 아파가지고 수양을 한 일년간 했는데 중들이 얘길하더군.

그런거 뭐. 그래서 뭐냐면 뭐 강선이라고 있잖아 여기 가위면 강선이 그 신선이 강선이 내려 가지고선 응 하도문에 와서 이젠 물어보고 중도와서 뭐이나하면 쉬가지고 상도문으로 해서 비선대로 올라갔다고 말이야.

비선대로 그런 중도문이라는 것이 나도 그저 여기 유래는 대략 그거밖에 없지. 그 풀로 묶어놓은 것이라고 해서 속초. 이 속진 예전엔 나루 진자 속진 여기도 사람이 얼마 안살고 그저 배만 타고 여길 나래 가서 배타면서 그저 고기 잡아서 먹고 이랬지.

촌에서는 노학동 거기저 상도문 저 쪽에서 낭구저다가 바꿔먹고 그렇게 살았다고. 여기 아주 제일 못 살 데는 양양군 속초리지.

리(里)였다가 읍, 속초읍이 일정말년에 됐지만은 본디 여기 사람이 얼마 안 살았지.

양양군이 속초읍이지. 하아 시 승격된 지가 한 삼십 몇 년 됐어. 그렇게 됐다구. 양양군이 그냥 뺏기고서 여기 속초 기관도 뭐냐면 저 등기소 강릉서 들어왔지. 법원 뭐 시무소니 시무소도 들어온 지 그건 강릉서 시무소가 들어왔어. 시 승격되면서 시 승격한지도 아마 한 삼십 년 넘었어. 삼십 년 넘었지 대략 여기는 그것밖에 없어.

<김종태, 남·83, 교동, 1999. 11. 25>

【전설4】

□ 계조암과 송강 정철

계조암 얘기가 인제 거기 유명한 애긴데, 계조암은 누가 창건했냐 하든, 시기가 자장율사의 제자, 잘하는 사람은 도제를 놔요, 길도(道), 아우제(弟), 도사란 이말이요. 자장율사의 제자라 안하구 도제라 하지요.

자장율사가 가구 나서 두운조사가 계조암을 창건했지요. 창건한 지가 1,200여년이 됐어요. 자장율사는 그 위에 분이니까. 들어와 처음 들어와서 향성사만 짓구.

두운조사가 계조암을 창건하는데 계조암 특징이 뭐냐하니까 계조암에는 사람이 죽어 본 적이 없어요. 그 절안에서 사람이 앉아서 죽을 무렵이 되면 자연히 그 사람이 저절로 나가게 되는게 그게 특징이구.

계조암은 남자바우 여자바우가 있어요. 계조암에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여자바우여. 이렇게 이 바위 뒤로 문으로 들어가는 남쪽에

이렇게 짝 벌리고 있지 거기 수문바우여. 근데 남자바우가 어디 있냐른 옛날엔 흔들바우가 둘이라고, 둘인데 흔들바우 우쪽에 전나무가 하나가 있지. 고 밑에 뽕죽하게 나온 게 거기 남자바우가 그 위에 있었는데 송강 정철이가 그걸 말짱 계조암을 파산을 맨들어야 해졌어서, 그 왜 파산을 맨들으라 했냐면 이 명산을 그냥 두면 인물영웅이 나서 인제 그러니까 여느 사람들은 일본사람들이 와서 그랬다구, 아무것 두 모르는 사람이 그러지 용바우 묻었다구.

그렇지만 나라에서 아마 이태조가 들어선 이후에 명승지를 찾아다 그래 인제 정철이가 아주 지리박사거든. 지리박사니까 좋은데 돌아다녀도 계조암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

계조암은 앞의 흔들바우가 소가 동쪽으로 누웠는데 입이 다 있구 눈이 다 있어. 그게 흔들바위가 그 소뿔인데, 계조암으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가면 변소칸 쪽으로 가서 터 새로 딱은, 거기서 그 바우를 보면 쇠꼬장지가 툇 끊어졌어. 그거 쇠공지가 툇 끊어 자빠졌어. 소공지를 끊었어. 소 웅덩이에다 두 자나 되게 징으로 많이 찢어요.

핑 들레 징으로 쪼쿠는 하여간 정철이란 사람이 영웅이여. 어딜 쪼았는지 옛장사 옛개듯이 단번에 짝 깨서 나가 떨어졌어. 그건 누구 거기 다 보면 그냥봐서는 아무 것도 모르지, 그걸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 아직 징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쇠공지를 꿇구, 쇠뿔을 빼구 그랬어요.

계조암 전체 바우는 목탁바우라 부르지. 목탁바운데, 인제 중이 이상 더 부지런한 사람이 없거든, 중이 새벽에 잠을 자면 목탁바우가 운다는 거지, “딱딱”하고 중을 깨운다는 거지.

【전설5】

□ 계조암 흔들바위

내원암으로 더 올라가면 그 계조암이라는 게 있어요. 계조암이라고 하는 데는 지금도 관광지고, 미래도 좋고, 좋은데 계조암 앞에 가쁜 넓은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에는 그 흔들 바위가 있는데, 높은 데서 내려다 보면 그 소가 누워있는 바위다 해서 와우암(臥牛岩, 식당바위)이라고 하지요.

그럼 와우암이라고 하면 소뿔이 두 개가 있어야지 왜 한 개가 있느냐? 소뿔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한 개는 기운이 세고 짓궂은 사람이 하나굴려 떨어 뜨렸습니다.

그래 현재 하나만 있는데 그 바위가 중량은 7만 천근이라는 중량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병대장이 자기 부하들을 데려 와서, 자로다가 높이와 둘레를 재서 환산하니까 공식적으로 71이 나온다, 7만 천 근이라고 합니다.

그 바위가 동석(動石)입니다. 동석이래서 한 사람의 힘이나 백 사람 힘으로도 흔들려요. 그래 흔들바위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조암이라고 하는 데는 바로 우리 옆에 있는데 그 예전에서부터 승려가 그굴에 들어 와서 그 전에는 암이 아니고 굴이죠. 그 굴에 와서 수도를 하고 나가고, 할아버지 조상에서부터 연이어서 대가 끊기지 않고 수도를 하고 나갔습니다.

<유만석, 남·50, 설악동, 1981. 4. 17>

【전설6】

□ 교동의 유래

교동에 대한 연혁은 오히려 직접적인 큰 의미는 없고 옛 이름으로 만천동이라고 했었는데 그 이름은 옛날에 이쪽지역이 그나마 그래도 인구가 밀집이 되어서 그런 의미에서 만천동이라는 의미가 있고 샘 천(泉)자를 써서 샘이 있다는 의미하고 인구가 많이 있다는 의미하고.

그 다음에 만석군이 살고 있다는 의미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게 이쪽 지역이 그래도 인구가 많이 있고 도시형성이 아주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었다는 그런 차원이예요. 같은 의미예요.

샘이 있기 때문에 만천호나 그렇게 샘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인근에 농토가 많으니까 만천호나 되는, 만석이나 되는 그런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만천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옛 이름이 만천동 그런 의미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밖에 큰 어떤 기대할 만큼 역사성은 없어요.

원래 우리 속초라는 이쪽 시의 의미가 큰 어떤 깊은 뿌리가 있는 것은 아니예요.

말 그대로 뜨내기가 해방되고 6.25가 난 이후 실항민이 많이 오게 되어서 사실은 토박이 집단들은 별반 없어요.

<김철환, 남·37, 노학동, 1999. 11. 20>

【전설7】

□ 권금성 전설

옛날에 설악산에 권장사와 김장사가 살고 있었지. 그런데 전쟁이 나서 오랑캐들이 쳐들어 오는거야. 그래 산 속인데 피난갈데가 산 위밖에 더 있어. 그래 산 위로 달아났는데 더 이상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 둘이 의논한 끝에 성을 쌓기로 했어. 그런데 큰 돌이 주위에는 없고 산아래 강가에 있는거야. 그래 권장사는 밑에서 돌을 던지고 김장사는 위에서 돌을 받기로 했어. 그래 며칠을 그렇게 한 끝에 성을 쌓았지. 그게 권금성의 전설이야.

<청학동 노인회장, 1999. 12. 3>

【전설8】

□ 권금성과 달맞이꽃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에 삼국시대 때 고구려, 고구려 보장왕을 왕으로 올려 놓고 연개소문이 정권을 손아귀에 놓고 정권을 해 가는 무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권씨, 김씨 양 장군을 역적으로 몰아서 역적으로 몰은 적이 있어 가지고 그림 그분들이 고구려 역적으로 몰았으니 붙잡히면 죽을 꺼고 그러믄 신라로 도피를 해 가지고 신라에 와서 저 권금성이라고 하는 저 산 꼭대기 해발 860m 정상에

올라 가서 거기서 인제 그 권, 김 양 장군이 두 아들을 데리고 난세를 피하기 위하여 성을 축소하고 난을 피하고, 난세를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하들을 시켜 가지고 저 정구평을 지나면 촛대바위라고 있습니다. 촛대바위라고 하는데 거기는 봉화대, 그 봉화대를 일러서,

“이 골을 수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봉화불을 올려라.”

그게 전화보담 빠르지요. 그래서 거기 봉화대로 한 때는 불려오고 그 군량장이라고 하는 데는 군량미를 갖다 저장하고 군량미를 저장해 가지고 그게 인제 권금성으로 쭉욱 올라가고 금강굴에도 그 금강굴이 결과적으로 마적굴이라고 마적굴이야. 마적단이 있는 굴.

그 양양고을 원 이도은씨가 그 원을 할 때 양양 고을을 털어다가 군량미를 갖다 저장해서 권금성을 올리고 금강굴로 옮기고 그러면서 난세를 피하고 그 난을 우리나라에 들어와, 권금성에서 난을 피했다고들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내려오는 전설이지만 그 권장군이라는 그 장군은 그 부근에 그 막사 부근에 어느 여인이 나타나서 낮에는 나타나지 않고 밤에만 나타나서 이렇게 뱅뱅 돌고 돌아댕겨. 권금성으로 돌아댕기면서 그 사랑을, 마음의 사랑을 하면서 돌아댕기는데. 그 낮에는 어디 풀 속에 숨었다가 밤에는 저녁마다 그렇게 아주 설새 없이 매일 빠짐없이 비가 오나 그저 언제든지 이래 돌아댕기다가 결과적으로 지쳐 가지고 그래 그 이튿날 아침에 그 부하들이 와서 대장한테 문안드릴려고 와 보니 웬 여인이 하나 죽었거든. 그 여인은, 대장이 하는 말이,

“그 여인은 저 풀속에다 갖다 묻어라.”

그 여인을 풀 속에다 갖다 묻었는데 그 묻은 자리에서부터 그 웬 풀씨가 나와 가지고 거름이 되어 가지고 잘 커 올라오더니 그

래 인제 꽃이 밤에 피었다가 낮에는 지고 노랗고 좋은 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 달맞이꽃이라고 해서 달맞이 꽃은 낮에는 피지 않고 밤에 피어가지고 밤새도록 반기다가 낮에는 시들어지는 게 달맞이 꽃이, 그래서 달맞이 꽃이 생겼다고 합니다.

<유만석, 남·50, 설악동, 1981. 4. 17>

【전설9】

□ 권금성과 토왕성

권금성은 하나의 완전한 그 연대라든가 축조에 대한 기록이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문헌에도 보면 전설에 의해 가지고 작성된 것이라고 봐지고 있구요. 확실한 거 언제 어느 연대에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축성이 됐다 하는 것은 명확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듣고 있는 바로서는 전설적인 애긴데 우리가 문헌에서 보면은 성종 21년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대충 보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그 중국병이 이쪽을 침입했을 때, 그때 이쪽 지역의 사람들을 피난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축성했다 이렇게 대략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는, 그런데 거기 따르는 구비전설로서 내려오는 전설을 보면은 권장사와 김장사가 성을 축조했기 때문에 권금성이다, 이렇게 명명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권장사와 김장사가 한 동네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병들이 몰려오니까 가족을 데리고 피한다는 것이 사세는 급하고 그대만 해도 어데 피한다는 것이 깊은 산, 험준한 산세를 이용해 가지구 피난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권금성 자리에 올라가서 보니까 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아, 적병은 뒤에 뒤미쳐 따라오구 이 성이 없으면 도저히 방어할 길이 없다. 그래 들어서 난감한 처지에 놓였는데, 그래 들어서 의논한 끝에,

“자, 이거 성을 쌓자.”

그런데 성을 쌓을라니 산에 성을 쌓만한 돌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래 대림천에 내려가 가지고 거, 대림천 돌을 주워서 올려 가지고 성을 쌓아야 되는데 한 10리길 되는데 그럼 등짐으로 져 나른다는 거는 며칠을 쌓아도 성 하나 쌓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권장사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 김 장사를 보고하는 얘기가,

“이렇게 합시다. 이거 도저히 말이지 뭐, 돌을 저날라 가지고 성을 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만한 기간적 여유도 없다. 그러니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려가서 개울에 내려가서 말이지 돌을 주워서 던질 테니까 당신은 여기서 받아서 성을 쌓으시오 말이야. 그러면 우리 하룻밤 사이에 성이 다 쌓으겠소”

“좋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 권장사가 먼저 내려갔어요. 개울에 돌을 주워서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김장사가 거 위에서 돌을 받아 가지고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인제 한밤중까지 권장사가 하고, 그 다음에 인제 교대로 해서 김장사가 내려가고 권장사가 위에서 돌을 받아 쌓고 이래서 에, 그 성을 쌓았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성의 높이를 우리가 본다면 높이가 약 4척입니다. 둘레가 천 백 열두자 이렇게 그 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 옆에 보면은 토왕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왕성하고 권금성하고는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근

데 그 어느 문헌에서 보면은 이 억압지세에 순치지형이라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를 탁 다무는 것에서 탁 미치는 것 그러한 형국이다.

그러니까, 인제 토왕성과 권금성하고 연관을 해서 말하는 것이 고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억압지세에 순치지형이라 하는 말은 고, 저 권금성하고 토왕성하고 이것을 연관된 어떤 거 말이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의 이 어떤 지형적 말을 내포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완전히 저희들이 보는 바로서는 완전한 성 하나의 방 어용으로서 축성이 됐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록이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신이 고증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마는 대개 고로한 방향에서 말이 나옵니다.

<장헌영, 남·54, 중앙동, 1981. 4. 27>

【전설10】

□ 귀면암과 마고선

귀면암(鬼面岩)이라 하면, 귀신 귀, 낫 면, 바위 암자, 그 천불동 중 허리에 자리잡고 있는 데가 귀면암이죠.

귀면암이라 하면, 천불동(千佛洞)중허리인데, 이 밑에서 보통 따지자면 와선대(臥仙臺)라고 하는 데는 예전에 그 송림(松林)이 울창한 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데인데, 예전에 마고선(摩姑仙)이라는 선인이 많은 선인들과 같이 그곳에 와서 바둑과 거문고를 타며 산수의 경치와 아름다움을 누워서 감상하던 데라고 해서 그대로 누울 와, 신선 선, 집 대자, 와선대라고 불렀습니다.

와선대로부터 한 300m 올라가면 마고선인이 하늘로 동천했다고 해서 날 비, 신선 선, 집 대자, 비선대(飛仙臺)라고 불리어 왔죠.

비선대는 예전에 시인의 발걸음이 끊어질 사이가 없어 시인이 들어 와서, 시도 짓고 이름도 새기고 나갔습니다.

예전에 어느 시인 한 분은 그곳에 와서 맑고 구슬같이 흐르는 물에다 발을 담그고, 반석 위에 비스듬히 누워서 하늘을 찌를 듯한 장군봉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바우와 바우 사이에는 자기 뼈마디 같이 살아나는 듯하여, 날개라도 있으면 하늘로 날아갈 기분이 라고 했으니 비선대 장관이야 뭐라고 나무랄 바가 없다고 합니다.

<유만석, 남·50, 설악동, 1981. 4. 17>

【전설11】

□ 금강굴 도승의 욕심

비선대에 올라가니까 옛날에 금강굴이라 해서 올라갔더니 거기서 스님이 역사라 해서 얘기해 주는 걸 들었어요. 어느 스님이 도를 닦느라고 그 굴속에 들어가 앉았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간 건 없구 먹을 건 없구 이래서리 그러니 앉아서 기도만 드리고 앉았더라니까.

하루 세 끼다 쌀하고 물이 푹푹 조금씩 떨어지는 걸 가지구 그 쌀을 씻어가지구 밥을 해먹구 밥만 먹구 거기서 기도 드렸노라고 역사를 얘기해 주는데, 그 스님이가 도중에 이랬답니다.

“야,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삼 시 세끼 기도 드릴라 밥해 먹고 삼 시 세끼 기도 들일라니 힘이 드니 쌀을 좀 한꺼번에 주지.”

왜 한번 기도 드리고 아침 새벽기도 드리고 일어나면 딱 한 사람 먹을 쌀만 나오고 굴속에서 그랬는데, 또 한번 기도 드릴라니 청수하고 먹는 쌀만 나오고 이래니 공양 지어먹다 보니까 기도 드리는 기 영향이 있을까봐.

“한꺼번에 나오지 왜 세 번에 꺾어 나오니까?”

이랬더니 쌀이 그 이튿날부터 하나도 안나와서 벌을 입었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그 전설을 그 스님이 얘기해 줍니다.

<박삼손, 여·63, 설악동 2/3, 1992. 3. 26>

【전설12】

□ 금강굴 유래

전에 보니까 원효대사가 금강굴에서 수도했는데 금강경을 만들었다. 금강경 원문 속에 금강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이 굴을 금강굴이라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계조암에도 와 계셨고 선정사에도 와 있었고 신흥사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금강굴에 와 계셨다면 그걸 빼놓을 리가 없습니다. 금강굴이란 것은 금강(金剛)이란 불교적으로 해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해 놓았는가 하니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진짜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제석천(帝釋天)이란 부처님이 짚고 땡기는 지팡이를 금강이라 한다. 지팡이다. 제석천은 누구냐? 관음보살이 변신한 것입니다. 관음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자기 웅신술, 저쪽에서는 동자로 나타나고 저쪽 가서는 대장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이 서른 세 가지가 있답니다.

나는 불교를 잘 모르지만 서른 세 가지란 것은 엄연히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석천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다. 결국은 관음보살이다. 그럼 왜 지팡이를 가지고 있나? 그 지팡이를 가지면 모든 사악들이 범접을 못한다. 그런 무기다.

지금 금강굴 옆에 봉정암 쪽으로 가는데는 금강문이라고 있습

니다. 또 금강산에도 금강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산도 원효대사가 지나갔다고 해서 금강문이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 금강굴이라 하면 그와 같은 제석천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잡귀가 못 덤벼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굴은 높고 험하고 아주 깎아진 곳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 올 수 없다. 그겁니다.

진수 중에 진수다. 누가 범접할 수 없다. 그래 금강 거기서 공부를 하면 도통이 잘된다. 득도가 쉽다, 그래서 이름을 금강이라 부쳤다. 그래서 금강굴이라 합니다.

원효대사가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원효대사가 금강경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금강경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금강소란 것을 지었습니다.

<박익훈, 남·77, 교동 1992. 4. 21>

【전설13】

□ 노학동 유래

예전에 노학동이라는 게 노리 갈무리라는게 전문대학 있는 데가 노리거든. 노린데 노리가 4개부락이여. 4개부락은 도리원, 이목, 노리, 척산 그래서 일정 때도 이 4개부락이 2개 부락씩 도리원, 이목리 한 부락이 되어 가지고 서는 부장이 나와 가지고서는 이제 이 부락 일을 보고 척산, 노리 가지고 한 부락이 되어서 보고 이러다가, 아 그게 일정한 때, 대동아 전쟁나기 그 무렵은 아주 통합이 됐어.

노리가 그 4개 부락이 그래 가지고선 부장이 하나 나가지고서는 4개 부락을 총지휘하고 그랬지. 근데 이제 노리는 왜 노리라

했냐면 거기 이 갈노(蘆)자, 갈대가 말짱 정착했으니깐. 제일 누가 정착을 빨리 했냐면 그 쓸라면은 서씨네. 저 지금 차씨네가 그 다음 이씨네가 정착을 했어. 제일 최초에 이제 차씨네가 하고.

그래 이제 도리원은 왜 도리원이라 했냐 하면 복상나무 꽃이 피서. 거기 이제 양지천이거든 그래서 도리원이라고 이름을 짓고 부락이름을. 또 이목리는 왜 이목리라 했냐면은 배꽃 이(梨)자 배나무꽃이 이젠 봄이면 하얗게 피고 예전인 제 개척 시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말이여.

부락이름을 척산을 왜 척산이라고 짓냐하면 이 척산 쪽 올라가면 왼쪽으로 올라가면 탄봉이라는 데가 있어. 탄봉이 왜 탄봉이나 하면은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양짓 마을이고 온천장 너메 양지마을이고, 요건 중간마을은 큰 솔대가 있으니 큰솔대가 있어. 거기를 중간마을이라고 해서 탄봉은 이제 이 지금 온천장인가 이쪽으로 너메로서 여관이 하나있지. 개바닥에 여관 뒤로 올라가면 외탄봉 있는 게 자척(尺)자 같애. 그래서 거 자 척 자 같다. 그래 가지고서 그 자 척자를 써서 척산이라 한다. 지명을 그렇게 짓고 쪽 내려와요.

<김중태, 남·83, 교동, 1999. 11. 25>

【전설14】

□ 노학동 유래

노학에서 노자는 갈대 노(蘆)자를 쓰고, 학은 학(鶴)자를 쓰는 데 예전에는 노학동은 갈골마을이라 얘기를 하고 갈대 숲과 학이 있는 곳을 말하지요.

옛날에는 이쪽에 온정리, 논산리 지역 저쪽에 노리지역, 노리지

역 합해서 노리마을이라고 얘기한 게 노동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게 그쪽지역에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노리지역과 척산마을을 옛날에 향촌이 형성이 되는 그 역사성은 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게 특히 척산마을에 관련해서는 옛날에 대포항에 수군 병영지가 있었어요.

<김철환, 남·37, 노학동, 1999. 11. 20>

【전설15】

□ 노학동 유래

옛날 이곳 노학동에는 다음과 같이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곳에 이씨 성을 가진 대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이씨 집안에는 대대로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한 사람도 많고 학문의 경지에 오른 대 학자도 많이 난 명문 대가입니다.

그렇게 명성과 학문을 날리던 그 이씨집안은 어느 때 부터인지 점점 가문이 기울기 시작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일도 거의 없고 대 학자도 나타나지 않고 가문의 명예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불순한 일도 가끔 발생하곤 하였다고 해요.

이렇게 되자 이씨 가문의 어른들이 모여서 대가의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고 의논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만 하여도 풍수지리설을 매우 신봉하던 터이라 지관을 모셔다가 선조의 묘소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묘소 앞 편에 산사태로 산이 많이 유실되어 나간 곳을 알게 되었어요. 그 지관은 유실된 그 곳을 유심히 이러저리 살펴보기 시작하고 그는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이것 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이 유실된 이 자리가 설악산 중에서 최고의 명당터일줄이야. 그

리하여 그 지관은 그 같이 갔던 이씨 문중의 어른들에게 여기가 설악산 최고의 명당인데 이렇게 유실되었으니 이씨 집안의 운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일러 주었다고 해요.

그러자 그 중 한 사람이 “그럼 지관 어른, 이렇게 명당이 유실된 파명당이 되어 우리 가문이 쇠하게 되었는데 뭐 좀 좋은 방도가 없겠습니까?” 그러자 그 중 또 한 사람이 “지관 어른, 속는 셈치고 그 방법을 일러주면 우리들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으니 그 방도를 일러주시지요?”

그 지관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일러줄 터이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명당을 복원하여 후손이 흥하고 보금받은 일이 가끔 있기는 하였는데 하여튼 이 파명당을 다시 복원하여 보시지요.”

그래서 그들은 일꾼을 얻어서 파명당 자리를 다시 흙으로 메우고 다지고 하여 한창 공사를 진행할 즈음에 이 이씨 문중에 가장 나이든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문중에서는 이 어른을 모셔야 될 산소자리에 관하여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편에서는 지금 복원하고 있는 파명당 자리에 모셔야 우리 후손이 복을 받고 길할 수 있다는 의견과 아직 다 복원도 안되고 또한 설령되었다 하더라도 그곳이 명당의 기운을 발할 수 있는 곳인지도 모르는 처지에 그곳에다 모실 수 없지 않느냐는 신중론이 대립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감론을박하여 몇 차례 다시 만나 숙위를 하기 시작했네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가문의 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인지라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가문의 제일 연로하신 어른이 돌아가셨으니 복원하는 파명당 자리에 모시기로 의논을 모았어요. 이 사실을 지관과 의논하였더니 그 지

관은 한참 생각하다가 ‘그러면 묘자리를 너무 깊게 파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단단히 일러주었어요. 인부들을 시켜서 묘자리를 만들기 시작하여 정해진 깊이 만큼 파내려 갔는데 한 인부가 잘못하여 그 깊이 이하로 삽질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땅이 움직이더니 하얀 학 두 마리가 광채를 발하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놀라고 황홀하여 한참 동안 정신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대요.

학 두 마리는 하늘을 몇 번 선회하다가 한 마리는 지금의 학사평 쪽으로 또 한 마리는 양양 쪽으로 날아갔다고 해요.

원래 학사평은 옛날에 시인 묵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많은 선비들이 이곳을 출입하여 왔다고 하여 학사평을 배울 학(學), 선비 사(士), 평야 평(坪) 하여 학사평(學士坪)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학이 내려앉고 부터는 또한 모래도 많고 하여 학 학(鶴, 모래사(沙), 들 평(坪)하여 학사평(鶴沙坪)이라 하였어요.

이학은 여기 학사평에 잠깐 내려앉았다가 지금의 노학동으로 날아 가버렸어요.

노학동은 원래 노동, 즉 갈대가 많은 고을이라 하여 갈 노(蘆), 고을 동(洞)하여 노동(蘆洞)이었는데 학이 왔다하여 노학동(蘆鶴洞)으로 불리게 되었고 한편 양양 쪽으로 날아간 학은 양양에 학포리(鶴浦里)란 지명을 얻게 하였다고 합니다.

<척산리 이장, 1999. 12. 3>

【전설16】

□ 논뫼호 불꽃놀이

그러니까 논뫼는 논산이라는 뜻입니다. 논산 앞에 있는 호, 그래서 논뫼라는 것이 나오는데 논뫼호 불꽃 놀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속초를 봐서는 고유의 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인제 항간 오래 때의 놀이고 중간에 가서 위험하다 해 가지고서 그 놀이가 끊어졌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계속 불꽃놀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기 고을 사또가 부임한다든가 입 출입하게 될 때에 거계서 배를 띄어 가지고 낮으로 꽃배를 띄워 가지고 관기(관청 기생)들과 그 술을 즐겼으나 아주 가창을 하면서 연 삼일간을 거계서 축연이 벌어졌는데 밤에는 널빤지에다가 그 숯불을 피워 가지고 그 호에다 띄워요.

띄우다 보니까 그 물결하고 숯불하고 비추어 가지고 아주 그 에...꽃이 되는 거죠. 불꽃 발이 돼 가지고 아주 그 조명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뚝에 강뚝에는 그 이 지역에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마카 이 불꽃놀이하는 것을 보고 거서 흥겨워서 또 뚝에서는 뚝대로 우리 주민들이 아주 그 축연이 벌어졌다.

그랬는데 그것이 언제가 가 가주고 그만 두었느냐 하는 문제는 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조말엽에 최종락 군수, 그래니까 이 부사 군수 당시에 불꽃놀이를, 불꽃놀이를 하다가 배가 뒤집혔어요. 배가 뒤집혀 가지고, 그때부터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금해졌다 하는 이러한 옛날부터 고유의 민속이 하나 있어요.

【전설17】

□ 대청봉 유래

소청봉으로 올라가자면 소청봉 보통 시간은 보통 걸음걸이로 가지고서 두 시간 삼 십분 이렇게 기어오르게 되는데, 아주 올라가다 보면 힘이 어떻게나 들고 숨이 가빠가지고 아주 숨이 하늘에 닿은 거와 같이하고, 뭐 이전에 제비도 날라 가다 나는 제비도 올라 와서 하품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했지요.

그 소청봉, 중청봉, 대청봉이라고 하면, 소청봉은 해발 1,638m, 중청봉 1,660m, 대청봉은 1,708m 그래 제일 높은 산이고 소청, 중청, 대청봉 그제 3형제 봉우리인데 그 전설이 있어요.

이 소청봉, 중청봉, 대청봉을 귀때기 청봉이라는 것하고, 작은 귀때기청봉, 귀때기 청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어디선가는 이 소청봉, 중청봉, 대청봉 3형제가 인제 거기 와서 인제 대청봉이 어른이고, 고 담에 중청봉, 고 담에 소청봉이 막내고 이렇게 인제 하구선 다정하게 거기서 살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별안간 두 놈이 나타나서 냅따 공갈을 형한테다 대청봉 있는 데다 공갈을 막 때려 가지고.

“똥, 이까짓 게 뭐 성(형)이야, 내가 성이지.”

하고 냅다 후려 패네. 그래 둘이 대청봉을 후려 패니까 대청봉이 벌벌벌 떨고 있으니, 가만 보니 소청봉하고 중청봉하고 보니,

“안된다. 우리가 성이 이렇게 맞았을 적에는 우리가 합심해서 저 단결을 해 가지고 그걸 물리쳐야 되겠다.”

그래 소청봉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보다 작은(적은)새끼가 와서 노릇을 하겠다고 하니 같잖으니까,

“이 안 되겠다. 우리 스이(셋이) 다 합심해 가지고 저걸 물리치자 후려 때리고 말아야.”

그래 가지고 중청봉이 그냥 용기를 내서 냅다 그냥 귀땀기를 쳐 가지고 귀땀기를 치니까. 귀땀기가 한 쪽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 거 가서 청봉이 하나 생겼는데, 큰귀땀기청봉, 작은귀땀기청봉, 그래 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보면 큰귀땀기청봉은 올라가면 아주 좁아요.

<유만석, 남·50, 설악동, 1981. 4. 18>

【전설18】

□ 도리원 유래

도리원은 복숭아나무라든가 배나무골, 이목리같은 경우 옛날 배나무골이라고 해서 마을명명이 그렇게 명명이 돼서 이목리, 도리원리 그런 식으로 부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신흥촌이라든가 자활촌 같은 경우 아주 최근에 60년대 어떤 게 있었나 하면은 박정희 정권때 깡패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소탕하는 지역이었어요.

그 사람들 정화차원에서 그 재건활동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자활촌 같은 경우는 60년대에 집단이주정책이 이루어졌어요. 그때당시만 하더라도 이쪽에는 허허벌판였거든요, 황무진데 주로 충남쪽의 논산사람들이나 연산사람등 그 사람들이 이제 강제 이주가 됐어요. 지금의 자활촌과 신흥리 마을쪽에 그사람들은 이주시켜 가지고 재건촌을 형성하게 됐어요. 재건촌 그게 이제 의미가 승계되면서 자활촌이라고 명명이 되면서 60년대 이후 향촌이 생겨진 그 경우라서 역사성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신흥리 마을이라든가 자활촌마을이 흑사평은 펄판이에요. 원래이름이 흑사평이에요. 척산마을은 그렇게 설명이 되고 노리마을은 역사성을 갖고 그 다음에 도리원리와 이목리 같은 경우 배나무골이라든가 복숭아 주로 과수원이 많이 형성되었던 지역이에요.

지금도 가보게 되면 도리원이라든가 이곡리쪽은 좀 덜한데 인곡쪽에는 과수원이 많아요. 그쪽에 과수원마을들이 많아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노학동의 명칭에 대한 연혁은 그렇게 되요.

<김철환, 남·37, 노학동, 1999. 11. 20>

【전설19】

□ 도문 벼락바위와 처녀

그러니까 고려때의 일인데요. 그 당시에는 그 파계승들이 상당히 많고 또 불교가 원체 그 당시에 세도가 있어 가지고 그 귀족들 속에서도 심지어는 그 출가해서 승려로서 수도해서 뭐, 당기는 사람이 많았지요. 뭐, 그러다 보니까 마, 파계승도 많이 나왔고 인제 이랬는데, 그래 요것은 지금 현재 도문동 쯤 위치가 됩니다.

도문동에 위치가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전설의 줄거리는 벼락바위의 전설이다 해 가지구선 지금 현재 중도문에서 저 양양군 강현면 상복리로 건너 간 다리 가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린 채 중간에 갈라져 입이 돌린 채 있는데 그걸 지금 현재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쌍천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문헌에서 얻은 바에 의하면 쌍천이 아니고 예, 사실은 쌍천이 아니고 대림천(待臨川), 기대릴 대, 임할 임자 그래 대림천이 그 원 본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는 앞으로는 그 대림천이라고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부르는 걸 보면 쌍천, 쌍천 하는데 그래 그 당시에 도문동에 그대는 도문동이라는 동명이 없고, 한 그 설악산 그 아래 산 옆의 한 마을이 되겠지요.

그 마을에 그 모 거사(牟居士)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러니깐 그 성은 모씨인데 거사다. 자기가 거사라 하는데 그래 이 사람이 거사다 하는 뜻은 자기가 그 출가를 해 가지고 머리를 깎고 수도는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하나의 그 불교의 도를 터득했다, 이래 가지고 그 상당히 자부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자칭 거사다 그래서,

“나는 모 거사다.”

하구선 아주 그 뽀내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인제 뭔가, 정식적인 수도는 하지 않았지만 그 행세는 상당히 그 승려들이 하는 그 모든 일과 같이 행세를 하고, 살생을 금하고 그야말로 그 육식을 하지 않고 그 채식을 주로 해서 이렇게 그 생활을 했는데, 그래 열 한 대여섯 살 먹었는데, 딸 아이를 하나 다리고 살았더라고요.

그래 인제 이 사람이 하는 소일을 매일 그 대림천에 나가서 낚시를 던져 놓고 고기를 낚았다고. 낚은 고기는 도로 물에다 넣어 주고 또 낚시를 드러 놔다 낚이면 도로 그 놈을 넣어 주고 예, 그래 앉아서 잡았다가 놓았다가 하는 그것이 하루의 일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딸은 따라서 아버지 옆에서 시중을 드는 거지요. 예, 여러 가지 심부름도 잔심부름도 해 주고 그랬는데, 그 하루는 이 모 거사가 낚시를 던져 놔 놓고 잠이 들었어요.

막 자우는데 그 딸이 보니까, 그 고기가 낚시대를 물어서 막 움직이고 있단말이야. 그래니까 아버지를 깨웠어요. 그래 인제 이놈을 떼억 잡아 갖고 놔주고 이런 장난을 하는데 한 승려가 왔다는

거지요.

왔는데, 이 사람도 그 들어올 적에, 마을에 들어올 적에 그 ‘모 거사가 사는데 딸이 하나 함께 살고 있다’ 하는 이 얘기는 듣고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은 하나의 파계승인데, 장난을 좀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와서 인제 모 거사를 보고,

“내가 인제 길이 저물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 댁에서 하룻밤을 쉬어서 갈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편리를 봐주겠느냐?”

그러니까 모거사가 뭐 거들떠 보지도 않고 들은 체 만 체하고, 낚시만 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래니 이 승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야, 화가 버쩍 나거든요. 아, 패섬한 생각도 들고 말이야.

“아, 아무리 내가 들을 때 거사라는 말을 들었지만 너가 거만할 수가 있냐?”

하고는 그 인제 일거 일동을 살피고 있는데 끝내 그 뭐, 말 한 마디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 승려도 패섬해 가지고 버티고 서 있는 거지요. 그러다가 해가 거무르 할 무렵에 낚시를 거둬 갖고 인제 들어가더란 말이야.

그래 이 사람도 무조건 따라 들어간거야. 집에 떠억 가서, 무조건 따라 들어가니까, 그래도 거사는 뭐, ‘왜 오느냐, 뭐 가라든가’ 이런 얘기도 한 마디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 인제 따라 가서 방에 떠억 앉아 있으니까 그 처녀가 저녁상을 가져 왔는데 보니까, 이 산나물에다가 감자를 넣고 죽을 쑤었어요. 그래서 그 죽 두 그릇을 가지고 ‘저녁상이다’ 하고 들어왔는데, 그래 인제 그 상이 들어오자마자 모 거사는 그 말도 없이 그 뭐, 죽 먹는데 정신이 없어서 옆 사람한테 ‘먹어 보라’는 말한 마디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 이 중이 갈수록 패섬하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할 수가 있느냐, 이놈을 갖다가 어떻게

골탕을 좀 맥여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놈을 갖다가 골탕을 맥여서 복수를 하겠는가?”

하구선 그 곰곰히 생각해 본 결과에 한 가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 중이 하는 말이,

“거사.”

하고 불렀단 말이야. 거사가 눈을 지긋이 감고 앉았다가서는,
“왜 그러는가?”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떠돌이 중이외다. 그런데 내가 여계까지 온 것도 하나의 목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 무슨 목적이 있어 왔느냐?”

“내가 사실은 부처의 씨를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이야 씨를 갖고 있던 말야 씨앗.

“갖고 있는데 예, 나에게 그 밭을 하나 시주하시오.”

그런단 얘기가, 그래니까 모 거사가 생각해 보니 그 이상한 소리를 하니 까,

“나는 밭이라고 해 봐야, 그저 감자 조금 붙여 먹을 밭 한 띠기 밖에 없다.”

말이야, 그래니 그걸 갖고 시주할 게 없다 이 말이야.

“에이.”

중이 하는 말이,

“에이, 그게 아니라, 훌륭한 밭이 있다.”

“그래 무슨 소리냐? 나한테 그 밭이 없다. 무슨 훌륭한 밭이 있냐?”

고 하니.

“아, 딸이 있지 않느냐?”

아, 이 모 거사가 듣고 생각하니 아주 패썹하단 말야. 그래,

“그럼 너, 파계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종이 하는 얘기가,
“과계라니요. 당치도 않은 소리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서 이 보따리 안에서 슬글슬글 하더니 이 상자를 하나 꺼내거든요. 그래 상자를 탁 꺼내더니 상자를 펼쳐 놓고는,

“보시다시피 여계는 은금 보화가 한 상자 가뜩 들었습니다.”
이 말이야.

“이 보화는 내가 부처 씨를 그 밭에다 심어서, 거계서 얻은 이 종자를 얻어서 큰 절을 지어서 말이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여서, 내 이 재산을 가지고 방방곡곡 찾아다니는 도중에 여계를 계시받고 왔다. 그래니까 집의 딸을 내 한테 시주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영감이 기가 막히니,
“거 쓸데없는 소릴 하지 말라.”

고 말이야 그래니까.

“그럼 좋습니다. 나하고 하나의 약속을 하자 이 말이야. 만약에 내가 여계서 받을 못 얻으면 이 보화도 필요 없소. 그러니 이 내 한테는 무용지물이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조건을 하나 걸자. 내가 이 집을 중심으로 해서 100장 이내에다가 이 집을 숨겨 놓을 테니, 내 숨겨 놓고 가서 100일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도사가 지금까지 도를 닦았으니 그 선도를 가지고서 이 보화 상자를 찾게 되면, 나는 거사의 도에 놀리고 지는 사람이니까, 이 보화고 뭐이고 다 필요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중간에 거사가 이 보화상자를 찾지 못할 때에는 필히 그 딸을 내한테 시주해야겠습니다.”

거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0마장, 100마장이라 하면 받을 일귀도 일굴 것 같거든요. 그래,

“좋다”

꽤히 승낙을 했어요. 그래니 인제 그 중이 상자를 숨겨 놓고 갔단 말이죠. 그래 그날부터 낚시질이고 뭐이고 인제 다 집어치우고, 인제 그 보화 상자를 찾기 위해서 땅을 인제 뒤지는 거예요. 아, 99일이 다 되었는데도 보화상자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 하루 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

“이게, 내가 경솔했구나. 아, 그야말로 이게 내가 아니할 응락을 해 가지고 딸을 저 중놈한테 뺏기고 마는구나.”

아, 억울하기 짝이 없거든, 그래서 인제 또 한가지 생각하기를, “내가 그래도 도를 닦았는데 이 내 도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 도냐.”

인제 여기서, 상당히 자기 혼자서 인제 한탄을 하는 거지요. 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도저히 인제 99일 동안 찾아도 못 찾은 것을 하루 더 찾는대도 찾을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서 완전히 인제 포기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할 수 없어서 딸보고,

“내가 경솔했다. 그래니 내 도가 너무나 보잘 것 없는 도고 하니까, 내가 앞으로 내 도를 더 훌륭하니 닦아 와야 되겠다.”

하면서 아, 딸 혼자서 두고서는 자기는 설악산 쪽으로 도를 닦으러 들어갔단 얘깁니다. 그래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딸이 말이지 그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래 그 자리에서 붙들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인제 그때부터 기도를 한다는 얘가지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날 참, 상당히 일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비바람이 치고 막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면서 아주 사나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딸이 그러한 날이 낫고 그 비바람이 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버지가 가는데 너무나 서운해서 앉아서 손 합장을 하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그 비가 비

바람이 쳐서 말이지.

그 뼈속까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냉기를 느끼면서도 그대로 앉아서 참, 기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 그 뇌리에 뭔가 번쩍 스쳐 나가는 것이 그 아버지가 앉아서 거 매일 낚시하던 바위, 그 바위가 뇌리에 스쳐 나가는 순간에 말이지, ‘황’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벼락이 쳤는데, 그 바위가 깜짝 놀래서 썩 갈라져 입을 벌렸는데 보니까 말이지, 그 밑에 그 안에 보화상자가 나타나 더랍니다. 그래서 인제 그 보화상자를 찾으니까 이 중은 말이지, 파계승은 그 멀리도 안 가고 그 인근에서 거동을 살펴보는 거야.

그래니까 한 방 때려서 벌어졌으니까 그 들통이 났단 말이지. 그래니 그 중은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래 인제 그 보화상자를 찾았으니까 중은 아무 그 나타나달 그제 없단 말이지, 나타나봐야 헛거니까.

그 질로 그 자기는 파계승은 갈 데로 가 버리고, 그 담에 그 딸은 그 아버지를 찾아서 설악산에 들어갔는데, 후세에서 말하기를 그 효녀, 효심에 의해 가지고 그 딸의 효심에 의해서 그 벼락 바위를, 벼락을 쳐서 말이야 그 파계승의 장난을 모면하게 됐다. 그래서 그 바위를 지금도 벼락바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는데, 그 바위의 둘레가 상당히 큼니다. 한 높이가 한 6m정도 되고 둘레를 따져 보면 거의 60m나올까 하는 그런 정도의 큰 바위입니다. 지금도 보면 그 가운데가 딱 벌어져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보면 그 옛날의 전설을 뒷받침하는 걸로 봐 주지요.

<김봉춘, 남·54, 금호동 13/2, 1981. 4. 27>

【전설20】

□ 도문과 신흥사

도문 웅기마을은 도문이란 데가 유래는 자장율사가 낙산사 의 상대에서 쉬구 이쪽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설악산 쪽으로 들어오는데 길을 물었데요. 그래 가지구 하도문(下道門)입구에서 맨 먼저 길을 물었다 이거구, 이 사람이 올라오다가 중도문, 상도문 이렇게 세 개로 되었지요.

그담에 요밑에 장항리가 노루 장(獐)자하고 목항(項)자, 그건 그때 노루 속세의 말로 하면 노루의 목을 베고 거기서 잠을 잤다고 하는데 정확치는 앓고 그래서 노루목이라고, 이렇게 됐구, 자장율사가 쉬어 가지구 이제 여기 들어왔다. 들어와 가지구 여기다가 맨처음에 향성사라구 짓고, 그걸 지었는데 화재가 자꾸 발생해 가지구 어느 날 스님이 꿈을 꾸었는데,

“이 꼭대기를 더 올라가면 서북방 쪽으로 더 가면 싸리나무가 큰 게 있으니 그 싸리나무가 있는데 절을 지으면 이제 좋다.”

그래서 꿈대로 절을 지었드니, 아주 절이 번성하고 잘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신이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신이 꿈에 가르쳐 주어서 이제 지었다 해서 신흥사(神興寺)라구 했다 그래요.

<정형민, 남·60, 설악동, 1992. 4. 5>

【전설21】

□ 도문동 벼락바위

옛날에 도사 한 명 있었어. 그 사람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거든. 하여튼 그사람은 중은 아니었지만 채식을 히거 불교의 도리를 지켰어. 그러던 어느날 땡중이 이 사람이 진짜 도사인지 장난을 치려고 왔었지.

“날이 어두워져서 그러는데 하룻밤 묵게 해주겠느냐?”

땡중이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도사가 아무말 없이 집으로 가는거야. 그러니 땡중이 화가 났겠지. 그래서 그냥 도사 뒤를 쫓아 집으로 간거야. 도사가 저녁을 먹는데 땡중에게는 아무 것도 주지 않았어. 하도 화가 난 땡중은 도사를 골탕먹이려고 내기를 제안했어.

그 내기는 내가 보물을 숨겨 놓을 테니 당신이 100일 안에 찾아내라는 거야, 그래서 도사는 쾌히 승낙했지. 내기의 목적이 무엇지도 모르고 말이야.

땡중은 내기에서 이기면 도사의 딸을 가지기로 마음먹었거든. 그래 도사가 99일을 찾아봤지만 보물 숨겨 놓은 것을 찾지 못했어. 도사는 크게 상심해 자기 때문에 딸애의 일생을 망치게 되었다고 한탄하고 자신의 도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는 도를 더 닦기 위해 설악산으로 갔어.

딸이 하도 어이가 없어 아버지가 간 방향으로 앉아 기도를 했지. 그 다음날은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아서 비바람이 쳤어. 그래도 딸은 비바람을 맞으며 기도했지. 그런데 갑자기 벼락이 치더니 집 앞에 있는 강가의 큰 바위가 쪼억 하고 갈라지는 거야. 그래 그

안을 보니 보물이 있는기라.

그래 땡중은 기겁을 하고 도망가고 딸은 아버지를 찾으려 설악산으로 들어가게 되지. 이게 벼락바위의 유래야.

<이성철, 남·82, 영랑동, 1999. 12. 17>

【전설22】

□ 도문동 유래

조선시대에는 도문면이라고 하여, 그 관할 하에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웅진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문은 동리 이름이자, 동시에 면이름이었지요.

그러던 것이 일제 시대에 들어와서 도문면과 도천면이 합쳐져서, 오늘날 속초시의 전신인 도천면이 되었고, 동시에 상도문리와 하도문리 중간에 행정상 중도문리가 신설되었어요. 그 후 1963년 속초가 시로 승격되었고, 1966년 동체를 실시할 때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가 합쳐져서 도문동이 되었지요.

도문이란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있어요. 신라 때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에서 신선의 안내를 받아 설악산 쪽으로 가는데 이곳에 이르자 갑자기 숲 속에서 맑고 우아한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무상무아의 불법을 아뢰는 듯하여, 법장을 멈추고 서 있다가 홀연히 크게 깨달아 도통의 문이 열렸으므로, 이때부터 이곳을 도통의 문이 열린 곳이라고 하여 도문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에 내려온 신선이 이곳에서 설악산으로 가는 길을 물어, 와선대에서 누워 놀다가, 비선대에서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고 설명하면서, 이곳에서 길을 물었으므로

이곳은 道問이라고 하던 것이 도문(道門)으로 변하였다는 것이예요. 또 다른 하나는 수도객들이 도를 닦기 위해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 하여 도문이란 이름이 생겨났다고 해요.

<김근수, 남. 78, 하도문, 1999. 11. 23>

【전설23】

□ 도문동 유래

도문동지역 거기엔, 문중이 많이 형성돼있어요. 도문 이씨가, 강씨가, 내가 정씨는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 그계 있어요, 집성촌 비슷하게 있었다가 집성촌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굳이 뿌리는 그쪽으로 볼 수 있는데 속초같은 경우는 도문동이 양양하고 연계해갔고, 원래는 양양지역이니깐 큰 근간이 될만한 것은 도문동이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도시의 핵이 이쪽부터 시작됐으니까 사장이 되버린 어떤 그런 경우가 있고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척산마을하고 그 다음에 노리마을 그쪽이 군사적인 어떤 그 군사도시로서 그래도 발달할 수 있는 것이 시대 역사적으로 본다면 조선시대 후기고 일제시대로 가서는 일제강점하에 있을 때 군사적인 군사향으로서의 필요성이 아주 강해지기 때문에 대포항이 그러다 보니깐 이쪽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커져버린거죠.

그래서 조선후기에서부터 대포항과 연계가 된거죠. 결국은 그래서 도시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발전해 간거죠. 풀이 많다는 점에서 갈대 노(蘆) 자를 쓰는데 접때 누가 왔을 때도 그런 애길 했는데, 속초 옛 이름을 속세라고 하는게 뭐냐면 목을 속(束)자에다 갈대를 묶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억쇄라든가 갈대의 종류 대체

를 묶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실제 속초의 이름은 풀초(草) 자를 묶을 속자(束)에다 풀초(草)자를 쓰는데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같은 의미에서 그렇게 나온 건데 속초지역이 풀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옛날 영랑호에 대한 전설을 보게 되면 그 영랑호에서 화랑 영랑이 여기서 이제 쉬었다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옛날 신라시대때 부터는 말이 먹이는 곳으로 아마 발전이 되어왔지 않은가 하는 측면이 있어요. 뭐 개략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봤는데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김철환, 남·37, 노학동, 1999. 11. 20>

【전설24】

□ 도문동과 비선대 유래

의상대사와 원효대사가 낙산에서 이 설악산으로 수도차 밟을 때 거기 오니까 뭐, 도대체 산은 울창하고 도저히 어떻게 건너가면 어디로 가야 될는지 그 위치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거서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불연 어디서 말이지 백발 노인이 에, 나타나서 설악산 쪽으로 손짓을 하고 사라졌다, 이기야. 그러니까 인제 하나의 강선, 신선이 내려 왔다. 신선이 내려왔다 해 가주고 그 동 이름을 강선리(降仙里)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다리 이름을 강선교라고 이래요.

그래서 인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그 사람 손짓을 하는 데로 보고서 똑을 따라 올라가는데 이 공중에서 말이죠, 어떤 그 당황한 그 말이죠. 음향이 들려서 범장을 멈추고 섰었는데 무아경을 이루었다.

에, 그래서 인제 수도에 한 경지에 이르렀다 이러한 설이 있는

데, 그래 인제 올라가는 길입니다. 설악산을 찾아 올라가는데 그때는 이 지역은 뭐, 전부 뭐, 산이고 숲밭이고 이래 도저히 무인 지경입니다.

도저히 인제 길을 몰라서 그래서 지금의 도문동 쪽에 조그마한 부락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게서 설악산으로 갈라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길을 물었다, 도를 닦으러 가는 도인이 길을 물었다. 그래서 도문이라 이래는데 그때는 물을 문자(問)를 썼는데 요즘은 변화돼서 문문(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닦으러 가는 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도를 닦으러 가는 길을 물었다.

그래서 인제 이거 도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돼 가지고 도문동이라는 전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은 지금은 잘 흔적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설악동 관광촌이 이쪽이 인제 오부댕이 신단지로 구성되어 내려오면서 거 보면 지금 현재 거게 파크호텔 거가 있죠. 예, 설악파크 있는 고계 능선이 하나 있습니다. 고 능선을 노루목곡(谷)이라고 그러니다. 그전에는 그 안이 장항(獐項)입니다. 장항 인제 그러면 왜 노루목 고개라고 했느냐?

그래 인제 도문동에서 길을 물어가 거기 갔는데 거가 뭐, 워낙 앞이 캄캄하고 숲이 깊어서 갈 바를 몰라서 거 머뭇머뭇 하는데 백록(白鹿) 그러니까 흰 노루죠, 흰노루가 흰 노루는 신성시 한답니다.

백록이 와 가지고서는 고개와 몸짓으로서 말이죠, 도인들을 그 길을 안내했다 해서 그 노루목곡, 그래니까 노루목고개라고 했고, 그래 그 구릉(丘陵)이 말이 이래 생긴 것이 꼭 노루목처럼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개 올라가 가지고 이 길을 찾아 올라와서 어

데로 갔느냐. 그래서 저 와선대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비선대로서 이 하늘로 올라 간 신선이 있었다. 이래 가지고 고와 같은 설화가 생겼다 이런 설이 있죠.

<장헌영, 남·54, 중앙동, 1981. 4. 26>

【전설25】

□ 만천동 유래

교동 쪽은 옛날에 만천동이라고 했어요. 그 동의 이름은 이쪽에 만석군이 살고 있다 그래서 만천동이라 한다고. 그리고 예전에 여기에 샘이 하나있었으므로, 그래서 샘천(泉) 자를 쓰기도 하고, 일만(萬) 자에 일천(千) 자를 써서 만천동이라고 하고, 유래 또 한가지는 집이 한 만천호가 된다 해서 동을 명칭을 한 게 아닐까 해요. 아마 추정을 한 것이 이쪽 동리에서는 요충이 될만한 지역이 아닌가 해서 만천동이라 하기도 하고, 만석군이 살고 있었다해서 만천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일설에 의하면 샘천(泉) 자를 써서 늘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었다 그런 뜻에서 동네 명칭을 만천동이라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동계실시 이후 동 명칭을 교동이라 명명한 게 이쪽의 지역의 특성상 학교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강릉 같은 경우 흔히들 교동이라 부를 경우 그쪽 지역에 향교가 있을 때 그 동네들 교동이라 명칭을 하죠. 우리 속초에서 아직 향교라든지, 유림이라든지 하는 뿌리깊은 것은 없어요 다만 학교가 밀집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적 특성 때문에 교동을 학교 교(校)자를 써서 교동이라 명칭을 붙인 건 있어요. 작년 10월 달에 각 동 동·폐합 관계로 노학동 전체지역과 교동 일부지역을 합쳐서 노학동이라 명칭을 했거

든요. 그래서 동 명칭에 대한 유대관계는 오히려 지금단계에서는 이 지역에서 어떤 역사성을 찾는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김철환, 남·37, 노학동, 1999. 11. 20>

【전설26】

□ 미시령 전설

미시령은 원래는 옛날에는 미시타령이래요, 아득할 미, 화살 시(矢) 자가 아니라 때 시(時)자래요. 그건 뭐고 하니 아득한 시간이 걸려야 그 재를 넘어 갈 수 있다. 그 말이래요.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그 내력을 모르니까, 요즘에 와서 미시이게 활에 관한거다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래요. 미시령은 때 시자다. 미시령은 본래는 대관령도 그렇고 무신 재든 간에, 재 밑에는 역이 있어요, 역마을.

지금 우체국 같은 거. 통신 역할, 물건을 운반하고. 그러면은 역에는 사람이 타는 말이 있고, 짐싣는 말이 있거든. 역이 크면 클수록 말이 많지요. 근데 미시령 밑에는 원암역이 있었어요.

원암역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원암역은 고려에는 장천리에다 역을 만들려니까, 장천리 사람들이 반대했다 이거예요. 역사람이란 상놈이다 이거요.

옛날엔 양반이 사는 동네에 어떻게 역을 만드냐 안된다 이거야. 김진사란 진사가 장천에 났대. 진사 같으면 생원인데 양반이지. 진사난 마을에 양반마을에 우예 짓냐말이지. 그래 할 수 없이 원암이란 데로 옮겼어. 원암 이 미시령 밑에. 그 원암역에 가면 서낭봉이란게 있어요.

동네한 복판에 큰 능같이 되있어요. 근데 그걸 서낭당이 있다고

해서 그 봉을 가보면 마을 한 복판에 어디서 왔는지 묘걸이 생겨서. 그것이 서낭봉이다 이거지. 그 서낭봉은 미시령을 넘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서낭당에 와서 제사를 올리고 넘어가야 무사하다 이거야.

왜 그런고 하니 옛날 도적이란게 있었어요. 산 꼭대기에 있다가 사람이 짐 싣고 지나가면 장사꾼같이 물건 뺏기고 죽이고 그러지. 그다 제사를 지내고 가야 무사하다. 하. 그래서 서낭봉.

그리고 미시령 꼭대기 다 갈 무렵에 얼마 안 남겨 놓고 왼쪽으로 쫓대걸은 바위가 아주 묘하게 생긴 게 있었어요. 그바위를 우리말로 잘 바위라 하고 한문은 숙암이라고 해요. 왜 그런고 하니 옛날에 재가 험하고 기니까 사람들이 거서 자고 갔대.

거기에 주막이 있었지. 그 넘에 넘어가면 도적소란 게 있어요. 지금은 산비탈로 길이 났지만 옛날에는 골짜기로 땀겼다 이거야. 그 밑에 도적소에 가보면 그 밑에 길이 조그마난 게 있는데, 그 밑에 물이 흘러가는 조그마난 폭포가 그 밑에 있다. 도적놈들이 그 밑에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물건 뺏고 돈 뺏고 그 소에 집어넣어 죽였다. 그래서 도적소라.

그런가 하면 미시령에 대해서 맨 꼭대기에 가면 미시령이라는 이승만 대통령 휘호가 있어요. 거기엔 미시령이라고 역시 화살 시(矢)자로 되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화살 시자로 써냈는데 왜 때 시(時)자라고 하느냐 하는데 어찌 대통령이 대한민국 팔도강산을 다 아는고? 여기 사람이 그렇게 써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썼지. 대통령이 알아서 쓴게 아니거든.

그 잘못 써 있지. 이박사 호가 우남이거든. 그 앞에 써 있지. 근데 그게 또 재미있는 얘기가 택당 이선생이 쓴 것에 여기에 가면 영랑호 저쪽으로 간성군 토성면이 있는데, 토성면에 애남이란 백정이, 여기에 영월 넘어 가가지고 너무 험해가지고 못 다니니깐.

미시령, 그때는 오색령, 지금 그러니까 한계령으로 넘어 다녔거든.

그 한계령을 양양사람은 오색령이라 하고 인제 사람은 한계령이라 하고. 왜 그런고 하니 양양사람은 오색이라 하나면 한 나무에 오색꽃이 핀다고 하는데 그건 틀렸고. 거기에는 돌에 오색이 많다고. 그래서 충청도 보령에 가면 비가 있어요. 그 비문에 뭐라 써있냐 하면, 오색 골짜기에는 돌이 오색이다. 그걸 비문을 못 본 사람은 나무에 오색꽃이 핀다고 잘못된 얘기를 한다니까.

오색령에서 인제쪽으로 흘러가는 물을 한계천이라 하거든 한계리에 있다 해서 한계령이다. 그래 길을 닦을 때 군인 둘이 저쪽에서 와서 닦으니 한계리만 알았지. 이쪽에서 오색이란 것은 몰래. 근데 거기에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한계령을 넘어서 이쪽으로 오색으로 왔거든. 그사람들이 잘태가 어디가 자냐. 그래서 역이란 공무원 뭐 이런데 대해서 필요한 게지. 그래 말도 암행어사 마패가 있는데. 그건 신분중이래. 토성면 사람이 백정 되는 사람이 장사하러 갔다 말이지. 여기서 해산물 사가지고 그 미시령을 넘어서 저쪽 가가지고, 영서지방에다가 팔고 판 돈으로 곡식을 사가지고 넘어왔지.

물물교환, 그러고 오는데 곡식을 말띠에다가 싣고 오는데 눈이 많이 왔어 통고지설(通高之雪), 통천과 고성사이에는 눈이 많이 온다. 양간지풍(襄杆之風)은 양양과 간성사이에는 바람이 세다.

그도 택당이 써 놓은데 보면 그 바람이 천후산에서 나온다. 그래서 바람이 세다 이거야.

근데 백정이 넘어 오는데 눈이 와 놓으니까 오기 힘들꺼 아냐. 오다가 눈사태를 만나 가지고 아들이 말과 함께 구불었네. 아버지 혼자 아들을 구할 재주 없지. 그 할 수 없이 집에 혼자 돌아왔다. 그래 집에서 죽은 혼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고 송장을 찾으려 인제 눈이 좀 녹아서 아흐레 지나서 갔단 말이지. 가 보니까. 눈

이 좀 녹아서. 아들이 구불어 간 자리 이래 가 보니까 이만한 구멍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구멍을 보니까 뭔가 그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더라고.

그래서 애남아... 애남아... 하고 부르니깐.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야 애남이 죽은 귀신이 저기 있다. 이 아무도 구멍에 대고 얘기 할라 하지도 않고, 들어 갈라 하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서 니 애남이 맞나? 맞다이기야. 그럼 애리 내 보이더라고. 아 맞다. 그래서 파고 들어가니까 살았더라고. 그 어찌 살았느냐 하니 이 놈이 말하고 같이 구불었는데 말은 간 곳 없고 어디간 데 없고 안장하고 같이 구불었다. 바위가 이마한게 있는데 그게 바위 위에 탁 걸렸네. 공간이 생겨가. 눈이 와도 그 속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죽지않고.

“그래 안춍드나?”

하니 눈속이라 안춍드래요.

“뭘 먹거 살았느냐?”

하니 말 안장 가죽을 뜯어먹고, 물은 눈을 먹고 살고 그걸 사실 그대로 써 놓은 게 있어요.

<박익훈, 남·84세, 교동, 1999. 12. 1>

【전설27】

□ 북청사자놀이

북청사자놀이가 유명하지요. 내가 알기로는 서울서 사자놀이 하는데, 첫말이 그렇잖아요. 북청사자놀이, 그런데 내가 북청에 있으면서 내가 살던 고향이가 희안합니다. 북청군 신창읍 토성리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토성이라는 데가 허허벌판입니다.

산으로 가자면 십키로씩 가야되지요. 별판에 마을이 있는데, 그 옛날에 오백년된 토성이 있어요. 옛날에는 나라 임금이 오백년 도읍을 같이 했는데, 거기서 바다같이 너른데 성을 쌓았어요. 남대문, 동대문, 북대문 등이 있는데, 일제 때 총독부에서 관리를 했어요. 이 성을 엄청나게 크게 쌓고 그 주위에 소나무를 심어 소나무가 들어서서 마을전체가 풀숲입니다.

거기 관장이 있었는데, 오백년 도읍지이므로 사자놀음을 거기서부터 기초가 되서 ‘북청사자놀음이다’ 하지요. 우리 고장에서 사자놀음터가 처음 발족해서 탄 부락에서도 하고, 참 멋있고 그래서 그걸 본을 받아서 탄 부락에서 하고, 탄 부락에서 하고 그래서 북청사자놀이란 말이 나왔지요.

원 말이 근본은 우리 토성에서 나왔어. 그래서 토성에 가면 돌로 만든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이 나와요. 처음에 토성리에서 북청사자놀음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어려서 보았는데, 내가 서른 몇 살에 나왔으니, 일제 때는 허가 못해서 못했거든요. 일제 때는 시시한 그런 거 가지고는 경찰서에서 허가 안내 줘요.

그러니까 허가하지 않으면 토성리에 사는 부락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머리가 특수하다든지, 아니면 인재라 하는 분네들이 어떻게 지령으로서 그 사람들이 승인이 맥이게 되니까 허가를 내줘서 하지요.

그때 보름달로 해가지구 하는데, 사자놀음도 하고, 그때 당시는 운동을 크게 하지요. 그래서 그때 사자놀음하는 걸 이북에서도 많이 구경도 하고, 내가 십오년 이상 구경하구 나온 사람이니까.

사자놀음할 때에는 소나발이라구 그걸 불면 ‘뽕’하는 소리가 나지요. 우리가 들을 때는 소나발 그러든데요.

그리구 피리불구, 요만한 생황도 불구, 아마 중앙에는 우리 토

성리 사람들이 사자놀음을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물려 받아하지 않는 원 근본 임원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김하륜, 남·84, 교동, 1999. 12. 10>

【전설28】

□ 비룡폭포와 처녀제사

인제 비룡폭포 쪽으로 보면은 아주 폭포가 320m가 되는 폭포가 하나 있는데 그 폭포 뒤에는 칠성봉이라는 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칠성봉 그 칠성봉에는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커다란 폭포가 그 전에는 신방폭포라고도 불려 왔는데 요 근년에 와서는 토왕성폭포(土旺城瀑布)라고도 하지요.

토왕성폭포는 지난 날에 이태백이가 중국 연산폭포를 연상케 하고 개성 박연폭포를 거쳐 금강산의 구룡폭포를 거쳐 가지고 이 토왕성폭포로 왔습니다. 토왕성폭포를 와 보니 “과연 거대한 폭포다. 이 폭포에 시를 하나 지어 봐야 되겠다.”

‘비류직하삼천척’(飛流直下三千尺)

떨어지는 물은 삼 천 자요.

‘의시은하낙구천’(疑是銀河落九天)

또한 떨어지는 물은 은하수에 비치어 구천에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폭포의 장관을 멀리서 바라볼 때는 하늘에서 흰 비단을 걸쳐놓은 것 같고 가까이 서 볼 때는 꽃 구슬을 석벽(石壁)에 박아 놓은 듯한, 사철 변함없이 쏟아져서 오고 가는 나그네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데가 바로 토왕성폭포입니다.

토왕성폭포에서 약 2km를 내려 오면 하폭으로서 비룡폭포(飛龍瀑布)라고 하는 관광코스가 지금 되어 있는데, 폭포가 하폭이 하

나 있습니다. 그 비룡폭포의 전설을 보면 그전에는 비룡폭포라고 그 이름도 붙어 있지 않고 무명폭포로 이름도 없는데 행정 구역상 도천면이라는 데가 양양군 도천면, 속초가 도천면이에요.

양양군 도천면 향성리(香城里) 또 때로는 도문이라고도 했지만 향성리라고 해요. 향성리로 행정구역이 있는데 그 향성리에는 농사가 잘 되고 부촌들이 기와집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도 기와집들을 많이 가지고 부자로 살았는데 천불동 계곡물은 다 말라도 이 토왕성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은 마르지 않아 가지고 이 물루다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이 물루다 이용해서 농사를 풍년으로 다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데 한 해는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와서 밭에 곡식이 타 죽어, 눈에 벼 심어 놓은 것이 말라죽어.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아우성이지요. 일거리가 없습니다. 가물면 할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 모여 앉아서 웅성웅성 맨날 모여 앉아 아우성인데, 그래 부락 사람이,

“어디 그러면 우리 한 번, 그 계곡에 한 번 올라가 보자. 그 계곡이 어떻게 됐기에 거기 물이 안 내려 오느냐. 그 큰 개울물이 말라도 거기 물은 언제든지 끊어지지 않고 물이 흘러 내려 왔는데, 거기 물이 안 내려오는 이유가 뭔지 어디 한 번 올라가 보자.”

올라가 쪽 올라가니 물이라곤 구경할 수 없는데 지금 비룡폭포 꼭대기 그 선녀탕 그 사람이 많이 연연히 빠져 죽는 선녀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막아 놔서 들어가지 않는데 그전엔 막기 전엔 많이 죽었어요. 사진도 찍다가 죽고……. 거기 그 웅덩이 밑은 물이 고여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물 떨어지는데 벽에 떨어지는 게 고 웅덩이 마르지 않을 만큼만 물이 떨어지는데 고 올라 가면 뒤에서 내려 흐르는 물이 없고요. 하두 이상해서,

“그래, 그 웅덩이에 괴물(怪物)이 있구나.”

그래 괴물이 있다는 걸 알고 조금 올라가 보니 개울물은 말라 있는데, 쭈욱 올라가니 그 지금 폭포, 비룡폭포라고 하는 그 웅덩이만은 물이 고여 있어요. 딴 데는 물 구경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 그 꼭대기에서도 올라가 보니 그 꼭대기에서 흘러 내려오는 것도 없고 한테 이상하게도 그 웅덩이 마르지 않을 만큼 거기서 폭포에서 물이 떨어져 그 웅덩이가 고여 있는데, 그래 그 꼭대기로 계속 폭포 꼭대기로 올라가 보니 물이라고 구경을 할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그런 줄 알고 인제 그 사람이 내려와서 부락 사람한테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그 계곡에 올라가니 물이라고 구경을 할 수가 없는데 웅덩이 두 개가 있고, 위에 있고 밑에 있더라.”

그 웅덩이 안에는 물이 마르지 않고 있더라. 이상하지요. 참, 물이 마르지 않게 떨어지거든 흘러 내려오는 물은 없고, 그런데 떨어지는 건 있고 거기 그러니 괴물이 있다고 해서,

“괴물의 조화로다가 비가 오고 안 오고 그러니 어쩔 수 없어. 이 부락에 돼지가 있으니 돼지라도 한 마리 잡아다가 꼭대기 웅덩이에다가 고사를 지내서 비가 많이 오게 해 줍소사 할 수밖에 없다.”

그래 부락 사람들이 앉아서 들어 보니 그럴 듯 하거든요. 고사 지내가지고서라도

“아, 풍년을 만나야지. 가물어 가지구서 타 죽고 흉년을 만나 굶어 죽게 되면은 굶어 죽는 것 보담은 나으니까 그렇게라도 하자.”

해 가지구서 부락 사람들이 전부 찬성을 해 가지고 큰 돼질, 300근 짜리를 거기 올라가서 잡아 가지고 거기서 그 상을 놓구서

거기서 삶아 가지고 상위에다 올려놓고 고사를 부라 사람 전체 올라가서 고사를 지내구 거기다 고대로 놔 두고 그냥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고사를 지낸 지가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사흘 열흘이 지나 결과적으로 비는 계속 안 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고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피물이 고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군다나 더 아우성이예요.

부락 사람들이 그러니 그 부락 사람 중에 가물어서 농사도 안 되고 하니

“에라, 나들이나 간다.”

지금은 차가 많아서 금방 빨리 갈 수가 있지만, 그전엔 나들이 간다면 개나리 붓짐을 먹을 것 싸 짊어지고 며칠 걸려 가지고 가다가 걸어가다 어느 심심산중에서 그저 물 있는데서 자고 가고 그저 며칠 걸려서 나들이 가는데, 그래 나들이 가서 그 부락 마을 사람들이 노는데 가서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놀다 보니, 그래 이 향성리라는 데는 가물어 가지고 흉년을 만나서 굶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연장자되는 80대 영감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 향성리서 왔나?”

“네, 향성리에서 왔습니다.”

“향성리 어떻다구?”

“향성리에는 가물이 와 가지고 우리가 흉년을 만나서 굶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는지 알 수가 없군요.”

“그래 향성리라는 덴 지금부터 35년전에 우리 친구들도 많이 살았는데 그 친구들이 거기다가 그 꼭대기 토왕성폭포라고 하는 꼭대기에 가문 거 웅덩이에 피물이 있어 거기다 처녀 고사를 지내야 해. 처녀 고사를 지내야지 피물이 받지. 딴 고사 지내선 피물이 안 받아 그러니까 처녀 고사를 자네 가서 지내 보게.”

그래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네 영감님 고맙습니다.”

하고 그날 저녁에 자고서 이튿날 집으로 돌아 와서 향성리에 와서 마을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

“이 사람아, 처녀가 어디있어 처녀 고사를 지내. 거 쓸데 없는 소리를 하지도 마라.”

아, 그러니 책임을 맡고 가만히 생각하니 그 부락 사람들이 생각하니 만약에 처녀 고사를 지내 가지구서 비가 온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든지 처녀 고사 지내야지, 그래 처녀 고사를 안 지낸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그럼 왜 처녀 고살 안 지내긴 왜 처녀가 없으면 한 집이 돈 얼마씩 내봐. 내가 가서 처녀를 사 올 테니.”

그래 가지고 합의되어 가지고 돈을 한 집에서 얼마씩 내 놓으니 그걸 전부 모아 놓으니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 그 돈을 가지고 어디 만침 두메 산골에 가니 처녀 5형제만 있는 집을 찾아 갔는데 거기 가서

“처녀를 하나 파십시오.”

지금은 서루 눈에 맞으면은 서루 결혼도 하고 청혼도 하고 그러지마는 그전에는 돈을 가지고 사다가 장개(장가)들었습니다.

그래 처녀를 팔라고 하니까 지가 장개들라고 팔라고 하는 줄 알고 ‘자기 딸딸을 팔겠다’고 했거든요. 딸딸은 얼굴도 곱지 않은 곱보딱지인데 그 곱보 딱지를 돈을 많이 주고 사다가, 지금은 화장품도 많지만 화장품이 어디 있나요.

그 화장품이 없으니 얼굴에다 밀가루를 발라 가지구서 허영게 맨들어 가지고 목욕을 시켜가지고 그리고서 처녀 고사를 지내니, 처녀 고사를 지내고 내려오니까 어찌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지 그 농사를 그 물로 다 지어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연히 그때가 되면은 비가 안 와요, 그래 고 때만 되면 처녀 고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러니 처녀 고사를 지낼러니 부락에 처녀가 있는 거 쪼그만 아들을 인제 꼬마들을 갖다가 처녀 고사를 다 지냈지. 그래 다 지내고 보니 국민학교 다니는 처녀란 인제 씨가 말랐어요.

고만에 그러니 처녀 고사를 지낼 수가 없지. 그러니 또 가물고 그러니 또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예라, 이걸 어떻게 해야 좋으냐. 그래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한 집이 보따리를 싸는 겁니다.

“아니, 자네 어디로 가나?”

“에이, 나 딱 데 가서 살겠네.”

“왜?”

“아, 이거 뭐 처녀래는 거 다 갖다가 제사를 지내고 국민학교 댕기는 꼬마꺼정 여자래는 건 전부 거기다 갖다 고사를 지내고 그 여자가 있어야 살지. 세상에 여자 없이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나. 여자가 있어야 나도 장가들고 아들도 장가 보내고 할 텐데 여자가 없어서 장가도 못 들고 이까짓 농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내버리고 가서 딱 데 가 살지요.”

“이 사람이 자네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래, 나도 너도, 나도 다 같이 누구나 이 부락 사람들 다 그런데 자네만 그런가. 그러니까 우리 부락 사람들 전부 다 가세.”

전부 그 부락이 죄다 딱 데로 살러 가고 그 부락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락이 전체 비어 가지고 있으니, 지나가는 나그네가 한 번 거기를 지내다가 날이 저물어서 자고 갈라고 권을 찾아도 대답도 없고 이 집 찾아도 대답이 없고 저 집 찾아도 대답이 없고,

“에라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사람이 없으니 에이, ‘개똥참외도 먼저 말하는 게 임자’다. 이거 아주 욕심

내서 내, 좋은 기와집, 옥답 전부 내 거로 만들어서 내 거라고 해서 내가 농사를 짓겠다.”

그래 농사를 지어 보니까 농사가 잘 지어져요. 그래 농사가 잘 지어져 가지고 농사를 지니, 딴 데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너두 나두 들어와 가지고 부락이 유지 되었어요. 그래 농사를 잘 짓는데 한 해는 또 가물이 와요. 가물이 와 가지고 이제 큰일났다고 말이야 굶어 죽겠다고 이려고 있는 찰나인데,

“에라. 거 뭐 그전에 처녀 고사를 지내면 여기 뭐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에구 그 딸 갖다가 처녀 고사를 지내.”

그래 그 딸을 갖다가 처녀 고사를 달하고 합의되어 가지고 아주 어여쁜 딸을 갖다가 목욕을 시켜 갖고 처녀 고사를 지냈더니, 처녀 고사를 지내고서 이 괴물이 나와서 이 웅덩이에서 나와서 처녀를 데리고 들어가나 처녀가 걸어 들어가나 어디 망이나 본다고 앉아서 망을 보니까 순식간에 그 안에 캄캄해지고 안개 모냥 자욱해지고 그만 그 옆에 있는 처녀도 보이지 않고 별안간 그냥 소나기가 쏟아내려 가지고 그냥 개울물이 부듯하게 내려 가거든.

“에라, 보이지 않는 처녀 불려고 애쓸 필요 없이 빨리 눈에 내려가서 눈에 물 들어오는 거 막구 말 파놓고 속히 방지해야지. 여기서 괜히 보이지도 않는 처녀 불려고 할 게 아니다. 빨리 내려가자.”

하고 내려 가다 보니 그 밑에 웅덩이에서 올라 오면서 이상한 거, 괴물이 올라 오거든, 그래 너두 나두 뭐 달리 봤지만 하두 바쁘니깐 수해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내려 가서 눈에 물 많은 것따 놓고 물 들어오는 것 막고 수해 방지하자고 그날 저녁에 모여앉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얘기 하니 그 방안에서는 제일 연장자인 영감님이,

“자네 오늘 본 거, 어디 본 거 한 번 그려 보게, 뭘 봤나?”

“아주 이상한 거 봤습니다.”

그래 지금은 그전엔 먹 아니면 없을 게 아니예요. 지금은 연필도 있고 하지만 그것도 없고 해 가지고 숯겨멍을 가지고 신문지에, 신문지도 아니야 문창호지에 다 이렇게 그리니까. 뭐 대가리 같은 것도 그리고 몽통 꼬리 같은 것도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이 영감님이 화가였던지, 그려 가지고 완전히 다 그린 것을 죄다 그려 가지고 맞춰 보니까 틀림 없는 용입니다.

이때 선녀탕에서 그 처녀를 여덟은 잡아먹고 요 마지막으로 아홉을 잡아 먹으면 용이 돼 올라 가는데, 그 틀림없이 용인데 용이 이제 올라 가면서 웅덩이 그 꼭대기 웅덩이 올라 가서 술 또아리를 틀었다. 다시 용을 쓰면서 그 폭포의 물줄기를 타고 하늘로 비천했다고 해서 날 비자, 용 용자, 비룡폭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만석, 남·50, 설악동, 1981. 4. 17>

【전설29】

□ 상도문의 전설

역사적으로 보면 한 400년전에 마을이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최초로 마을이 형성된 후에 여기에 오게 된 순서는 인동 장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먼저 와서 여기 살게 됐지. 그 다음에는 밀양 박씨가 와 살았고 그 다음에는 강릉 박씨가 와 살았고 그 다음에 강릉 김씨가 들어와 거주하게 됐지.

나는 강릉 박씨예요. 옛날에는 여기가 설악산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오른쪽에는 처음에 인동 장씨하고 밀양 박씨가 살았는데 그 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 왼쪽으로 옮기고

사는 것이 밀양박씨가 내려와 살게되었다는 얘기가. 그 후에 거기에 강릉 박씨가 정착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마을에 재미나는 얘기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이 뭐냐하면 밀양 박씨하고 강릉 박씨라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

전해오는 말이 박씨를 지랄 박씨라고 그랬대요. 왜 지랄 박씨라 했냐...원래가 지랄 박씨가 아니고 길 밑에 있다고 해서 지랄 박씨라 했다 하는 얘기가 내려오고 있지. 이 동네 성별로 정착된 이야긴 그거고.

그 다음에 이 마을의 생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면은 배처럼 생겼어요. 지금 배처럼 생겼다는 것이 문헌에도 나와 있지만은 배처럼 생겼지 때문에 배에는 반드시 그물이 있어야 되고, 또 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앵커 영어로는 앵커라고 하나? 닻, 그게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 보통 여기서 말하는 그망골이라고 하지 그것을 원래가 그망골이 아니고 거망골이야. 거망골인데 그 거망골이라 하는 것은 그물을 말하니까 망이라 하는 것은 거망골.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지 그 다음에 내가 추진하고 있는 딸이라고 하는 것, 고것이 여기에서 한 500미터 내려가면 그곳이 있어요.

거기 지금 내가 상도문 돌탑정 복원에 대한 신문에도 다 내고, 그 다음에 시에도 몇 번 가서 절충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돼있지 않아 이것을 내가 지금 복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딸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그 굵은 돌 옛날 사람들은 힘이 셸이니깐 굵은 돌로 산처럼 쌓았어요. 반원으로 이렇게 쌓는데 그것이 수해때 유실 됐어요. 유실 됐는데 그 장소가 좀 협소하지. 지금 거길 기점으로 해서 설악산 야영장까지의 제방 독을 가로막아 놔는데 제방 독 바로 맨 끝에 지금 소나무가 한 십 여대 있고, 거기

가 지금 내가 몇 번 탐사해서 이것을 복원해 볼까 하고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협조가 잘 안 되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 상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배모양이다 거망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또는 말하자면 딸(앵커), 그것이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곳에 다가 우물을 못 뚫어요. 배에다 우물을 파게 되면 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물을 파지 못하게 했는데 세월을 발전되다 보니깐 차츰 우물을 한두 집씩 파 가지고 펌프로 해먹다가 물을 마시다가 그 후에 상수도가 들어와가지고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것이 부락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도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생겼냐는 문제거든. 이 전설상으로 봐서는 두 가지가 있어 한 가지는 도승이 설악산으로 가는 길에 도를 여기서 깨우쳤다. 깨우쳤다 해서 도문이라 얘기하고 간단히 말하면.

또 한가지는 신선이 양양쪽으로 나가다보면 강현면이라는 데가 있어, 강현면 강선리, 그 강선리가 내릴 강, 신선 선 자를 써서 신선이 내려왔다는 얘기거든 신선이 거기 내려와서 설악산에 가는 길에 도문에 와서 길을 물었다고 해서 도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두 가지 물어서 도승이 이제 길을 따라서 설악산으로 갔지.

설악산으로 가면 왼쪽으로 와선대라는 데가 있어요. 와선대가 있는데 와선대니까 거기서 자리를 잡고 쉬었다가 쪽 올라가면 비선대라고 있죠. 날 비자.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도문이라고 지었다는데 두 가지 전설이 내려와있지.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옥모정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그 앞에 가면 학모정이라고도 하고 옥모정이라고도 하지. 거기는 전설이 어떻게 내려와 있냐 하면 거기 보면은 비석에 올라가자 첫째 비석. 낡은 비석이 하나 있지.

그 비석이 강릉 박씨의 비석인데 그 비석이 '지'자 '의'자하는

할아버지인데 박지의라는 할아버지인데 그 사람의 그 할아버지의 효자비야. 효자비. 효자비인데 왜서 그 할아버지를 효자라고 했냐 하면은 먼저 거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할꺼야.

그 비 내용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전 이름이 ‘지’자 ‘의’자가 국왕, 나라의 왕이 사망을 한 그러니까 사망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양반이 거기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북쪽을 향해서 삼 년간 상을 입었다고 해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거기가 망곡터지. 그래서 망곡터다.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지.

근데 지금 보면은 돌을 이렇게 쌓고 비석이 하나 서있는데 그 비석은 후 자손들이 만들어 놨지만 그 자체 터는 그 터는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그 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그 다음에 그 양반이 또 효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충성심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효심도 지극했다는 얘기가.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내가 뭐 간단히 얘기하는데, 그 할아버지의 아버님이 병환에 누워있어가지고 아마 그 중병이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 중병을 자식으로써 보기 안타까워서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피를 흘려서 아버지를. 그래서 낫았는지 안 낫았는지 그거는 뭐 기록이 되어있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효자로서 남아있고 지금 효자각을 거기다 지금 세워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효자각 뒤에 보면은 비가 하나가 있어요. 비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비문을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나만 글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비문을 베껴 가지고 왔는데, 거기다 무어라고 썼냐 하면은 명선담은이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명선담은.

그니까 이게 고종때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만치 부모를 위해서 효도를 했다고 해 가지고 이런 문구를 쓰지 않나. 단 네자로써만 쓰여있고. 그 기록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와있지 않아요. 지금 그

렇게 보지. 네자 풀이가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 문제를 상당히 여러모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부모님께 효도를 했다는 그런 뜻일 거예요.

내가 지금 봤을 때는 그게 글자가 확실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충 내가 이제 보는 견지가 그렇게 나와있고 이것을 시장이 이 글이 비문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없고 그거 지금 그냥 그렇게 내려오고 있지.

그 다음에는 효자각은 여기서 약 한 1킬로 돌아가야 해. 산으로 싸리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리 쪽 들어가면 효자각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가볼 의사가 있으면 쪽 내려가 도랑 길이 있어요. 거기가 물어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학무정이라고도 하고 옥모정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옥각으로 되었다고 해서 옥모정이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그 다음에는 또 뭐 그런 관계가 있고 그걸 자세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강릉 박씨의 유래는 그렇고..... 벼락바위, 이리로 쪽 내려가면 벼락바위라고 하는데 벼락을 쳐서 둘이 갈라졌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지금 지방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참 좋지 않게 그 바위를 전부 표현을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단지 그 바위는 벼락에 맞아서 깨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로서는... 또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로 조잡한 얘기가 많이 있거든.

또 후세의 자손들에게 그런 걸 알려줄 수 있는 앞으로도 학문적 가치가 있어 전설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이 후 자손들에게 영향을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봐 내 그런 얘기는 하지 못하겠고 그것이 또 문헌에도 안나왔을 것 같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설악산은 다 그거고 또 없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는 그게 망곡터였었는데, 망곡터였었는데 후에 여기 오씨네 집안에서 학자가 한 분 있었지. 글을 많이 아시는 그런 한 분이 있어 가지고 그 양반이 이제 여기에 서당을 차려 놓으면서 여름철에 거기서 글 하는 사람들을 학문을 가르치는 집을 지었지. 그래서 ‘육모정’ 이렇게 말하지.

그니까 여기 배처럼 생겼고 그 다음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어떻게 쌓았냐 하면은 이런 형식으로 쌓은 거지. 근데 그런 얘기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쌓으라고 그래서 쌓았지. 쌓은 게 이제 9.13 수해때 아주 완전히 소실이 된 거지. 그런 영향이 있지않나.

원래는 그 터는 망곡터였었지. 망곡터였었는데 그 후에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학자가 있어 가지고, 매곡선생이라고 있어요, 매곡선생. 그래가지고 서당을 이제 부락에서 자기 집에서 하다가 정자를 짓고 여름철이면 거기서 학문을 가르쳤지.

학무정. 배움의 날개를 펴니까. 그래 학무정이라고 하지. 현판은 대부분 내가 생각컨데 또 전해 내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현판은 인제 거기 인제 육모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근에 드물거든 그니까 그 양반도 학자니까 자기 친구들이 여름철에 놀러와서 친구들이 아마 현판 같은 것을 써줬을거야. 그래가지고 부착했고.

그리고 여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전설적인 얘기가 드물어요. 근데 여기가 지형이 지역으로 보면 옛날 38 이북이거든 여기가 38이북이 되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삼국시대라든가 또는 그 후라든가 그 이전에 보면 여기 예맥지대거든 예맥. 예맥이라는 데.

여기 예맥지방에 대해서 고구려하고 신라 백제의 경계 지방이란 말이야 그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특수한 일이 없어요. 내가

본 문헌을 찾아봐도. 특수한 뭐 무덤이라든가 또는 특수한 고적이 라던가 이런 게 없어. 그 경계선이니까 이게 다 아무래도 발전상으로 봤을 때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로 같지. 그렇다고 난 보지.

이것을 그 유실되는 곳을 있는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은 몰라요. 내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알게 됐지. 그래서 내가 이제 시장님한테도 호소문까지 내고 또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인제 이렇게 날인까지 받아 가지고 할려고 한 게 협조가 좀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있지. 누가 하던지 내가 발설을 해놔서 누가 하던지. 지금 시에도 한 통 가있고, 설악산 국립공원에도 한 통 가있고, 그 다음에 또 한 통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언제가 되던지 복원이 될꺼 같애. 또 돼야 되지. 속초시는 문화유적이 드물거든. 아까 말한 거같이 그런 관계일 것 같애. 누가 하던지 할꺼야.

<박용훈, 남·72, 상도문, 1999. 11. 30>

【전설30】

□ 설악산과 금강산

설악산은 처음엔 설산(雪山), 설봉산, 설악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한반도 중부 평령을 가듯한 영점에 높이 멋지게 솟아 오른 설악산은 해발 1,708m로 우리나라에서 세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태백산맥을 동·서 양쪽으로 나눠 서쪽을 내설악, 강원도 인제군이라 하면 동쪽을 외설악, 강원도 속초시라고 부릅니다.

금강산은 고구(古久)로 서림의 상합이라고 불렀지만 설악산은 살매 설악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해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설(雪)은 살의 음역이요, 살은 인간의 활동상을 뺀어 놓은 것

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다고 생명, 숨을 쉬니 호흡, 인간, 쌀(米), 샘천 등을 포함하는 한 어군(語群)이 되고 있으며, 불교에서도 불타의 몸에서 나온 염주와 연골을 가리켜 사리라고 합니다.

청정한 생명의 신비적인 표시물을 연골이라고 하였으니 ‘설악’이라는 ‘설’은 결국 신성을 의미하는 살의 음역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금강산 대(對)설악산, 설악산 대 금강산, 금강산과 설악산은 아형아제라.

금강산을 형이라 하고 설악산을 동생이라고 할 수 없고, 설악산을 성이라 하고 금강산을 동생이라고 할 수가 없다.

“금강산과 설악산은 아형아제(阿兄阿弟)다.”

금강산은 그 어여쁜 아가씨가 화장을 하고 노상에 앉아 노정을 하고 있는 형색이라고 하면, 거머뭉특한 남자가 떡 골방지침을 도사리고 앉아 있는 형색입니다. 금강산보다 설악산이 더 높고 과연 멋있는 게 설악산이지요.

<유만석, 남·50, 설악동, 1981. 4. 17>

【전설31】

□ 설악산과 마의태자

설악산은 어떻게 되어서 설악산이냐, 눈이 많이 와서 설악이냐 아니냐. 설악이란 건 왜 설악이냐 하면 춘하추동 사시절 봉우리 끝을 보면 눈이 온 것 같애. 늘 하애. 늘 하얗고 울산바우만 불경지. 자색이 나지.

설악산은 해를 지고 산 앞을 보면 첫 눈이 온 것 같이 “초설경(初雪景)이 설악(雪岳)이다” 첫 번 약간 내린 눈 온 것과 같다. 설

화령(雪化嶺)이 설악이다. 눈으로 화한, 눈 온 것 같은 것이 설악이다. 그렇게 됐어요.

설악산 유래가 근데 설악산 전체를 그렇게 놓구는 자장율사가 천 년 그맘때 들어와서 향성사를 먼저 지으셨거든. 향성사를 자장율사가 짓구 그대에 권금성에 마의태자란 이가 떠나니까 군대가 쫓아온 모양이야. 아래서 힘 센 사람이 돌을 던지니까 위에서 받았다는 그때 이야긴데 권금성에 올라가면 돌 쌓은 게 뵈키구 권금성 안팎에도 돌을 일 곱자 쌓았어요.

첫 번 들어와 정고평에 가면 초소막이 있어요. 사방 열 자쯤 되는 초소막이 있어요. 석자 너자 되게 거기서부터 쌓았어요.

권금성까지 마의태자 패가 집을 거기다 짓는데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오행으로 짓는데 동대문은 동방 살팔목오왕성문이라, 동대문이라 안하구, 서대문은 서방일치화화엄산문이라. 남방일울수왕성문이라, 중앙목이오십토문이라, 중앙을 말하니까 네 군데 문을 내구 위는 북판을 집을 지으니 중앙목이 오십토왕문이라.

“우리집 택호는 토왕성집이다.”

이래서 인제 토왕성폭포가 생겼지. 옛날에는 신광폭포여. 신광폭포때 이네들 마의태자가 참 토왕성을 지어 놓구는 그담에는 폭포를 토왕성폭포라 지었어.

그래서 지금 토왕성이 내려오지.

<박일호, 남·78, 노학동 2/5, 1992. 4. 5>

【전설32】

□ 소야팔경(所野八景)

소야팔경은 뭇니까. 처음에는 기록을 찾아내지 못해서 떠도는

얘기를 가지고 ‘속초귀범’(束草歸帆)을 ‘조도귀범’(鳥島歸帆)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틀린 얘깁니다.

내가 박한영이란 사람에게 들은 얘긴데 그 분은 ‘척산야침’(尺山夜砧)이라는 말도 한다고 했습니다. 척산의 밤에 들리는 다듬이 소리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조도귀범이 아니고 ‘속초귀범’이라 이런 얘길 합니다.

내가 무슨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 속초시장하던 김명환씨 형님인 김중환씨라고 저와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 분 아버지가 도천면 시절에 이장을 했습니다. 이장을 했기에 《면세일반》(面勢一斑)이란 게 그 집에서 나왔어요. 거기에 소야팔경이 아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창흡(金昌翕)이란 이가 지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없고 어떤 분은 김시습이 매월당 그 양반이 부월리에 와서 움집을 짓고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시습은 일정한 장소 없이 사방에 돌아다닌 분이었고 김 삼연(三淵)선생은 주로 영시암에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 영시암은 인제군의 백담사 위에 골짜기에 들어가면 거기 있습니다.

내가 “영세 불출세(永歲不出世)”라 하여 여기 들어와서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안나가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범이 자기 식모를 잡아먹어 가지고 다시 춘천방면으로 갔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김삼연이 거기 와서 놀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전에 청초호 옆에 청초정이란게 있었답니다. 김 삼연 시절은 지금 보담속종때니까 한 3백년 가까이 안됩니까? 3백년전에도 그런말이 있었는지 모르나 여기 와서는 놀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추측되지요.

그래서 김 삼연이 그것을 지었다는 것은 그것도 믿을 수 없고, 김시습이 그것을 지었다는 것도 믿을 수 없고, 이 지방 시인들이 모여서 놀다 보니까 그런 팔경을 만들어 냈지 않나 합니다. 이 소

야팔경은 소야를 중심으로 했는데 주로 청초호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글입니다. 왜냐하면 8경을 보면 청초호가 6경인가 있고 저쪽엔 2경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노동명월(蘆洞明月), 갈대꽃이 많이 피었는데 그 위에 달이 환하게 비치니 그게 참으로 보기 좋거든요. 노동(蘆洞)이란 동네가 노학동이지요.

그 다음에 이동백설(梨洞白雪)이 있어요. 여기에 이동(梨洞)이란 동네 뱃골이란 곳이 있는데 배나무 오얏나무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일이 있었지요. 왜정때에 몰지각한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서 그 경치가 없어졌다고 그 부락에 가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대화병(靑塗畫屏), 청대리라는 그 뒤에 산이 있는데 그게 청대산인데 청대산을 여기서 바라보면 병풍그림같이 아름답거든요. 그런 것을 누가 베었다 하여 역부로 찾아 올라갔더니 바람이 불어서 쓰러졌습니다. 화병은 그림 화(畫)자, 병풍 병(屏)자, 청대산의 모습이 그림을 그려놓은 병풍같이 그렇게 아름답다. 청초호에서 본 것이지요.

다음에 주교야화(舟橋夜火)인데 주교리에서 밤의 계잡는 불꽃이 보기 좋았던 모양이에요. 지금 오징어잡이 배가 저기 나가 있는 걸 보면 서울사람들이 와서 보고 “야, 속초가 굉장하 크다. 여기도 전기불 있네, 저기도 전기불 있네” 그러지요. 주교(舟橋)는 옛날의 부월리(扶月里)를 주교리라 불렀지요. 배다리 동네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는 논산조양(論山朝陽), 논산이 속초에서는 그래도 제일 높은 곳이지요. 높아서 해가 뜨면 어디보다도 거기에 먼저 비쳤다 해서 논산에 아침 해가 비치는 광경이 아주 아름답다.

그 다음에는 속초귀범(束草歸帆), 속초에서 고기 잡는 배가 원포귀범(遠浦歸帆)이라고 소상팔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초

에서 보면 배가 돌아오는 것이 참 해는 저물고 석양빛을 받아서 돛대를 달고 돌아오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 소상팔경 하나인 원포귀범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름답다고 해서 그런 것이 있어요.

다음에 청호마경(靑湖磨鏡), 청초호수는 얼음이 얼면 마치 유리 거울 같이 맑잖게 그렇게 보였다 해서 거울을 갈아놓은 것과 같다. 갈 마(磨)자, 다음에 온정조하(溫井朝霞)라 이르는 데 온정의 아침 노을, 그건 뵈고 하니까 지금도 온정에 거기서 더운 물이 나오답니다.

옛날도 물이 뜨시기 때문에 겨울아침이 되면 거기서 인제 수증기가 올라가서 거기서 발산하여서 속초 이쪽에까지 전부 설악산에 구름 끼듯이 수증기 안개 같은 게 그렇게 아름답게 끼었답니다. 그래서 온정조화라 부른답니다.

<박익훈, 남·77, 교동, 1992. 4. 21>

【전설33】

□ 소야팔경(所野八景)

속초에 고을 소자, 들 야자 소야팔경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쪽가면은 논산과 노학동 사이에 쭉 들어 가면은 골이 소야평야입니다. 소야평야가 되고 지금 청초호로 들어오는 내가 있는데요, 거기 저 달마봉에서 발원됩니다.

달마봉에서 발원되자 그 골짜기 물을 합쳐 갖고 내려 와서 이 청초호에 들어오는 건데, 이거를 소야천이라고 합니다. 소야천에 소야팔경이 있는데 지금, 현재 뭐가 있나 하면은 논산조양(論山朝陽), 그래서 지금 현재 조양동이라고 이름지었습니다.

그기 하나의 소야팔경에서 따온 하나의 조양입니다. 그럼 왜

그 논산조양이라고 했느냐. 논산이 아주 지대(地帶)가 낮습니다. 낮는데 아침 해가 뜨면은 제일 먼저 햇빛이 비치는 곳이 조양동입니다.

그래서 논산조양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 온정(溫井)조화 그래니까 이쪽에 저 온천지대가 있습니다. 온천지대가 있는데 이 온정(溫井)에 김이 납니다. 아침에 인제 안개 구름같이 짙게 깔려 있는 그것이 하나의 경이 됩니다. 산은 우에 솟아 있고 산 중허리를 짙게 구름이 감겨가 있는 것같이 그렇게 해서 온정조화(溫井朝霞).

그 다음에 하나는 노동명월(蘆洞明月), 노동이라 하면은 갈골, 노학동 갈골에서 이걸 보면 저녁에 달밤에 갈밭에서 보면 경이 또 하나의 좋은 경이 됩니다.

그 다음 저 위에 올라 가면은 지금에 배목리라 그러지요. 배목리 그러니까 이동백설(梨洞白雪). 거는 배나무밭이 많아서 말이죠. 봄에 꽃이 확피어 가지고 꽃이 떨어질 때 꼭 눈이 와서 말이죠 설경같은 이러한 경이있었다. 이래서 이동백설.

그 다음이 청대화병(靑塋畫屏)이라 하죠. 그 다음에 이쪽에 옛날에는 주교(舟橋) 지금도 청호동을 건너 가는데 배가 있었죠. 저걸 배다리, 그걸 갖다가 주교, 주교야화(舟橋夜火), 그러니까 저녁으로 불을 밝혀가지고 배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기 주교야화다.

그 다음에 여기 청초호도 그 때 물이 맑으니까 청초마경(靑草磨鏡). 그 다음에 하나는 마지막에 노도귀범(鷺島歸帆). 노도귀범이란 저 앞에 보이는 섬입니다. 저걸 갖다가 우리가 새섬이라고 하는데 갈매기 노(鷺)자를 씁니다. 우리가 청구도 지도에서 보면 명칭 나오는 것이 갈매기 노입니다. 노둑니다. 갈매기도 새는 새니까 새섬이라 이렇게 합니다.

노도귀범, 그러니까 지금의 풍경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은 조양

동 해수욕장에서 말이죠, 이렇게 저 노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쪽에 저 영금정(靈琴亭)하고 그 사이에서 배가 지나갈 때 보면
은 하나의 경을 이룹니다. 완전한 경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노
도귀범은 항구를 들어오는 과정을 말합니다.

<장현영, 남·54, 중앙동, 1981. 4. 27>

【전설34】

□ 속초의 전설

여기 이젠 범바우 저 여기 영랑호 말이여. 거기 범바우있잖아.
범바우 여기 또 영금정 저 새슴 또 외웅치 그 외웅치가 들도 또
이제 청대 저 여기 청두산이 뭔가하면 화도가 꽃이 피면 뭐냐하
면 이 그림 병풍처럼 이젠 저 청대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뭐해서
뭐하고 또 이제 올라가서 저기 육모정있잖아. 그 상도문 육모정
물치가 대략 내물치 거기 이젠 예전에 그러고 그리고 뭐 유해를
갔다고 요즘팔경은 요즘 지었지. 시에서 아마 요즘 지어서나오더
만.

예전에 여긴 사람이 안살았어. 여긴 굴가여. 그러하고 이젠 제
일 뭔가하면 여기 속초는 창설자가 아마 저 이후가 제일 많이 됐
을거여. 이후가 동명동 동명동이 그 쪽으로 일정 때도 그 쪽으로
발전이 그 쪽이 더 됐다고 동명동 지금 동명항구 있잖아. 항구있
는 그쪽이 인제 어 항구가 되고 그래.

이제 학사평은 저 왜서 학사평이라 했냐하면 거기 올라가면 달
매봉밑에 그 밑에 파명당이라는 데가 있어 평당이 파여 가서 말
이여 이젠 파이니까 학이 날아가고 이제 노학동 거기 이젠 저
사진 뭐 어디저.

저쪽에 낙산사 어디 세 군데 뭐 학이 세 군데 떨어졌다 해서 여기저 노학동 그 전설이 파명당에서 뭐하고 그 신흥사는 뭔가 하면 내가 조금와서 들으니깐 이 신흥사가 지금 새 신(新)자로 고쳤잖아.

원치는 이 귀신 신(神)자라고 왜 귀신 신자냐 하면 그 내원암에 처음에 절이 있었는데 절이 있었는데 3년 주기로 불이 자꾸 타 5~6년 마다 불이 타고 그러는데 한 그 어느 중대사가 있는데 이 달 매봉신이 대사라는 이가 가재장삼을 입고서 꿈에 현몽을 했는데 여기서 절을 지으고 집을 지으면 3년 주기로 화재를 입을 수 있으니깐 요 아래 내려가 지금 신흥사 터여.

그 아래 내려가면 참나무 기둥에 그 저 극락전 대법전을 짓고 뭐하면 그 천년 만년 가도 화재를 입는 일이 없다고 그 이 6.25사변 통에도 끄떡없었어. 그저 대법전에 가서 그저 기둥이 이렇게 빙빙 꼬였는데 보면 그게 싸리기둥 싸리.

여기 저 대법전엔 신흥사 같은 게 없어. 나도 더러 절에 댕겨봤지만 이 신흥사 저 대법전에 가서 천천히 보면 그 참 용이 뒤틀려 넘어가고 그 배깁으로 저 이렇게 처마 끝으로 해서 넘겨보면 참 조각을 잘했네.

<김종태, 남. 83, 교동, 1999.11.25>

【전설35】

□ 속초지명유래

우리 속초를 흔히 묶을 속(束)자 풀 초(草)자라 그래서 속초다. 왜 그렇게 속초가 됐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 한가지 설은 영금정과 연관 돼서 속초가 됐다는 그러한 설이 있고, 하나는 딴 설이 있어요.

그러면 영금정과 연관이 돼 가지고 속초라 하게 됐다 하는 설은, 그러니까 그 당시 석산이 있을 때 그 옆에 지금 현재 그 성황당이 말이죠. 예, 지금 저 정자 앉아 있는 자리, 서낭당 자리 옛날 서낭당 자리가 말이죠. 서낭당 자린데, 서낭당이 정자가 앉기 위하여 그 옆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 때 그쪽에 숲이 말이죠, 그때 소나무가 울창했어요. 울창한 소나무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그쪽에 그 영금정 옆에 솔산이 있을 때 저 바다에서 이 포구를 이러 들어서 보면 그 솔산이 소나무하구 벽에다 풀을 묶어 세워논 것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속초라고 이름 지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한 일설(一說)은 이 속초지형이 와우형(臥牛形)으로 되어 있다.

소가 누워 있는 형태다. 그래 소가 누워 있는 데는 풀을 맘대로 활동해 뜯어먹지를 못합니다. 묶어 논 풀밖에 못 뜯어먹습니다.

그러면 속초는 와우형이니까 묶어 논 풀을 갖다 주지 않으면 그 소가 먹지를 못해 죽을 기 아니냐, 그래서 와우형의 지형을 따라서 그 속초를 항시 그 성행시키기,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소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초라는 명칭을 묶은 풀다불을 소한테 갖다 주어야 소가 먹고 살 끼 아니냐.

이래서 속초라는 그 지명을 지었다 하는 이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아직까지 어느 설이 정설인지 이것까지도 아직 증명은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장현영, 남·54, 중앙동, 1981. 4. 27>

【전설36】

□ 속초지형과 영금정

속초를 왜 속초라 하느냐. 속초라 하는 것은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첫째가 아. 속초는 산이 소가 누워있는 와우(臥牛)형국이고, 또 하나는 속새풀이 많이 났다 해서 속초라 한다. 그런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울산바위에 이 풀을 가지고 울산바위를 묶었다 해서 속초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속초라는 것은 뉘고 하니까, 와우형인데 그 앞에 풀단이 놓여있다.

풀단이 속초거든. 묶여 있는 풀단. 그 풀을 소가 먹으면 힘을 내서 일어서서 활동할 수 있다. 그래야, 속초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이름이야.

속초가 어데가 풀단이고, 어데가 소냐 하면은, 저 영랑 등대, 그 등대 있는 곳이 소 머리에 해당한다. 그리고 갯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소 앞발에 해당한다. 엑스포 들어오는데 청호동 있는 데가 소 뒷발이다. 저 대포 뒤에 산이 있죠? 대포 설악산 입구에서 좀만 들어오면 동네가 있잖아. 거기가 대포동이지. 그 산이 속초 꼬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것을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속초는 소가 누워있는 형국인데다가 그 앞에 풀단이 놓여있으니 속초라 한다 그 말이 옛날부터 전해왔거든. 근데 속새풀이 많다 함을 속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객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저는 모르면서지. 마음대로 어데도 그런 이름이 있고 또 어데도 그런 이름이 있다고 지 마음대로 써왔거든.

여기에 문화원장도 하고 나이가 팔십 가까운 신문기자도 한 그

똑똑한 양반이거든 이 고장 출신이거든. 이 영랑호 주변에서 살았거든. 그 양반애기는, 자기가 어릴 때 속초가 소가 누워있는 와우형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럼 그 말이 사실인데, 어떤 사람이 지리, 대한민국 지명 책을 쓴다해서 돌아 댕기며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어떤 객지에서 온 사람이 속초는 속새풀이 많아서 속초라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 허허. 그건 잘못됐는데.

이 속초란 이름에 대해서 10년 전, 20년 전에는 중앙신문기자나 방송국기자들이 나를 많이 찾아 왔어요. 그 때는 속초란 것을 왜 속초라 하느냐 하는 세 가지 설을 서로 주장하니깐 어느 게 옳다는 것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문화원장 하던 양반이 그 고장에 오래 살고 그래서 그 양반이, 그건 와우형이 맞다. 그래서 속초가 와우형이다.

그런데 신문기자들 하고 방송기자들이 찾아와서 내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 그 양반들도 더러 물었어요, 그럼 당신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하고 물으니 모두가 다 와우형 그것을 택한다. 그래서 그 방송 초기에 속초가 한창 발전할 때 해마다 속초가 왜 속초냐? 전국적으로 방송을 했어요. 그때마다 내가 나가서 방송을 했어요. 생방송 말이야.

그런데 수 십 번 그 속초에 대한 방송을 했건만 그 속새풀이 있어서 속초라 한다는 것은 무미건조하다는 것이야.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듣기에 기분 좋게 들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요전에 “속초지명의 재조명”이라 하는 타이틀 밑에서 신문에 써냈어요.

나도 주장하기를 속초는 산 증인에 의해서 와우형이기 때문에 속초라 한다. 그 앞에 풀단이 놓여있는데 풀단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등대 앞에 봉이 두 개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 있는데 규성이

라고 해서 구불구불 용같이 있다고해서 그걸 규성이라고 하거든. 지금 거기엔 경보초소가 있어요. 방파제가 크게 나와있어요.

그 경비초소 있는데 그 속에 그런 술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 온 지 38년 한 40년 됐는데, 그런데 그걸로, 그 술이 있는 곳을 비선대라고 했어요. 무슨 비 자냐. 비밀이란 비(秘) 자. 신선 선(仙)자. 왜 그런가 하면, 남 몰래 신선이 비밀히 와서 놀던 곳이다. 그만큼 경치가 좋은 곳이다 이 말인지.

동국여지승람에도 비선대가 나온다. 지금 저기 설악산 비선대(飛仙臺)는 그 때 나오지도 않았어. 요즘에야 와서 비선대란 말이 나왔지. 원래는 이게 진짜 비선대란 말이야. 글씨는 달라, 저건 날라간다는 날 비(飛) 자고, 여기는 비밀이라는 비(秘) 자야.

그런데 지금부터 외정때 대정 14년 말로서 대정 15년에 출판해낸 《면세일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70여년 전 일이야. 그러니까 74년 전이지. 내가 10살 때니까. 내가 84세 이니까, 요전에도 장교수란 양반이 와서 그걸 또 인쇄해갔어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는고 하니까 그 부근이 소해금강, 적은 해금강, 왜 해금강이냐 하니까, 그때는 그 봉우리가 비선대란 봉우리가 있고, 송도란 게 있었어요. 그라고 그때는 그게 섬이래요. 지금은 육지예요. 38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그 물이 있어 가지고 못건너 갔어요. 난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낚시를 가자면 파도가 안 치는 날에 걸고 건너 갔어요. 그런데 차차차차 바다가 메워져 가지고 육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초소를 짓느라고 그 술을 베어 버렸어요.

그걸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술을 놔두고 초소를 지었을텐데 경치도 좋고 그랬는데, 이런 무식한 양반들이 저기 뭐야 간첩온다고, 해안초소 짓는다고 그걸 모두 베버렸어요. 그다음 그 앞에 송도란 섬이 있는데, 자취도 없다 이거야. 왜 없느

냐 이거야. 일본 사람이 여기 와 가지고 이제 속초항을 축항할 때 야.

지금은 축항을 할려면 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돌을 마구 깨가지고, 축항에 쓴 모양인데, 그 신기하게 여기 등대 밑에 서낭당이 있어요.

그 서낭당부근에 어릴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노인이 한 분 있어요. 8팔십 먹은 노인인데, 윤익현 이라고, 아이들 모아 놓고 한문 선생도 했어요. 또 동사무소에 서기도 했고 아주 유식하지요. 그 양반이 얘기하는데, 그 양반이 산에 땡기길 좋아하고 나도 산 좋아하고 그래 같이, 산에 땡기고 그랬는데, 영금정 부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자기하고 김 모씨 라는 사람하고 그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영금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한 사람 밖에 없어요. 그기에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나고 했으니까 다 알죠. 그 섬 그 부근에 사람들이 모여 야단이 났더래. 뭘 하는가 하고 가보니까 지금 활어장이라는 고기 양어장이 있어요.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바위가 여기하나 있는데 이만치 만한 바위가 이쪽 바위위에 올라가 있더래.

하룻밤 사이에, 그래 인제 신기하다고, 신기하다고 사방팔방 모여가, 일본사람도 있었는데, 그때가 일본치하니까. 일본사람들이 우리보다 미신을 더 좋아 하거든. 그래 낫하고 이런 것을 말 할 것도 없이. 그래 일본 사람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송도라는 섬과 그 앞에 있는 지금 바위가 이렇게 아주 큰 바위가 있는데 을매나 아름다운지 그렇게 송도라는 섬이 있고 비선대란 곳이 있고, 또 바위가 그렇게 있고 하니까.

여기 영금정이란 데에 장구같은 바위가 있어요. 우리가 동굴 같은데 들어가면 중유석이란 것을 두드리면 땡 땡 소리나잖아요. 그

래 장구같이 생긴 바위를 두드리면 장구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생기기도 장구같이 생기고, 소리도 장구같이 나기 때문에 그걸 장구바위라 하잖아.

그 앞에 또 참 북같이 생긴 바위가 있는데 또 그걸 때리면 북 소리가 나는데 또 그걸 북바위라고 해. 근데 영금정이란 것은 신령 영(靈) 자에 거문고 금(琴)자에 아주 신령스러운 음악이 깃들인 곳이야.

그 때는 을매나 기암절벽이 많은지 여기서 영금정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못넘어 갔어. 험해가지고. 그래서 돌아 가지고, 자기들도 돌아댕겼다 그래. 그 내려가다 보면 그래 그 돌을 다 깨 가지고 지금은 다니기 쉽다. 근데 일본 왜정이 돌도 많고 그러니까, 그 그 돌도 깨내고 그 좋은 바위도 때내고, 그 부근에 있는 것을 다 깨내야 될 모양인데, 그걸 깨라니, 바위가 보통 바위가 아니다 이거지. 만약 깨내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래서 곳을 시작했어.

신에게. 우리가 바위를 깨더라도 탈이 없게 해 달라고, 이 주일인가 했다 그래. 저 먼 곳에서 바위가 올라왔을 것을 구경하려고 왔다 그래. 그걸 네 곳을 한 뒤에 깨냈다. 그래서 지금은 경치가 나빠졌다.

그때 걸 놔둬서 그렇게 돼 있을 때 면세일반이라는 책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와 놓고 시를 짓고, 이렇게 해서 소해금강. 금강산에도 있는 소해금강. 그리고 신흥사에 있는 부근에 소금강. 이게 강원도에 있는 소금강이제. 신흥사도 그 부근에 경치가 좋다해서 소금강이라 불렀대요. 그게 면세일반이라는 책에 써 있어요.

그런데 송도라는 섬도 없어지고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은 영금정이라는 데로 다리를 놔서 정자를 지어서 뒀어요. 옛날에는 초소

있던 데에 정자가 있었더라요. 지금은 흔적도 없고 내가 왔을 때 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젠 속초라 하고, 또 한가지는 이 설악산 전체가 와우형이다 이거죠.

속초 부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다. 지금 여기 대승폭포 있는 부근에서 대청봉으로 오르는 길이 있어요. 가다 중간에 귀뚜기청봉이라는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귀에 해당한다는 거요. 백담사 골짜기에도 귀뚜기청봉이라는게 있어요. 그 골짜기를 우족동이라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나이 많은 사람이나 알지.

여기 이박사라고 산을 좋아해서 병원도 문닫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87세예요. 그가 설악산 개척의 공로자로 설악산 없이 살 수 없는 분인데 그가 안다닌 데가 없어요.

소의 뒷발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도 설악산 전체도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다. 이곳 속초도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다. 아주 모든 것이 일치한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든간에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고 앞에 풀단이 놓여있다 해서 그 소가 풀을 먹고 일을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지명이다 이거죠.

<박익훈, 남·84, 교동, 1999.12.1>

【전설37】

□ 송도의 전설

송도란 섬이 있어요. 송도에 가면 경비초소가 있어요. 술이 우거지고 술이 많아서 송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은 없어요. 송도는 돌산인데 그 사람들이 그때 마구 깨냈으니깐. 그리고 《동국여지승람》을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 하면 비선대로. 내가 30여

전에 올때만 하더라고, 소나무가 용 같이 생긴 소나무가 고불고불하고 그 밑에 사람이 다니는 길이 저쪽에서 보면 보여요. 그런데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근데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경비초소 짓는 다하고 돌도 깨고, 소나무도 베워버렸어.

집을 엉뚱하게 지어놨어. 그래서 내가 속초시지를 쓴다해서. 거기 조사를 가서 경찰서 가서 누가 이걸 깼냐하고 물으니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마커 모른다 그래. 그 물론 알기도 알겠지. 그렇지만 저걸 누가 깨었냐고 물으면 지가 봤다고 그걸 수도 없고, 무식하니까. 다른 것 잘 알려는지는 모르나 명소에 대해서는 무식하니까.

<박인훈, 남·84, 교동, 1999. 12. 11>

【전설38】

□ 신흥사 유래

지금으로부터 1320년 전에 신라의 왕족 소판 3품 벼슬을 가지고 있는 그 물인공의 아들이 인생의 속세를 떠나서 당나라 풍납사, 지상사, 온나라 운재사, 개국사에 들어 가서, 20년간 도(道)를 통달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오대산 갈래사를 창건하고, 부사리 150장을 보완해서 절 앞에는 9층 석탑을 세워서 보완하고 설악산에 들어 왔습니다.

설악산에 들어 와서 사찰을 창건하고 절 앞에는 부사리 33장을 보완해서 8층 석탑을 보완하고 수도를 했는데, 그 창건한 지 223년만에 화재로 소실되었어요. 그래 화재 당시에 6층이 파손되고, 현재 3층만 남아 이 사찰의 추억을 외로이 말없이 그리며 현재 역시 견고합니다, 3층 석탑이. 그 자리는 어딘가 하면, 지금 설악

호텔 밑에 국민학교 분교 그 자리가 그 옛부터 자리입니다. 향성사.

그래 인제 화재로 소실되었고, 사찰이 없게 되었는데, 그러니 의상대사가, 태백산 부석사를 창건하고 영동으로 주옥 올라오면서 보니, 그곳은 꼭 사찰이 있을 만한 곳이라 생각하고, 사찰을 창건했습니다.

사찰을 창건하고, 그 사찰이 전에는 사찰이라고 하지 않았고, 기원도장(祈願道場)이니 호국도장이니, 기원종신으로, 적군이 들어오면 적군을 물리친다는 승려들의 정신을 길이 길러서 보존하기 때문에 호국 기원도장이라고 창건한 것이 지금 현재 낙산사(落山寺)지요.

낙산사가 그 전에 낙하사라고 불리었고, 그 낙하산 떨어진 거와 똑같아요. 그래 그 후에 낙산사라고 불렀지요. 그래 설악산에 들어와 보니 성인이 창건한 사찰도 223년만에 화재로 소실되었고, 이곳은 가장 사찰이 하나 있을 만한 곳이라 단정하고 주옥 올라와서 사찰을 창건했습니다. 그래 사찰을 창건하고 사명(寺名)을, 선정사(禪定寺)라고 사명을 붙였습니다.

그 선정사를 창건하고, 봉안할 불상이 없어서 밤낮 7일간 수도를 하고보니 한 날 밤 꿈에는 어느 도승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는 저쪽에 가면 산 불상이 있으니, 산 불상을 갖다가 봉안하고 수도해라.”

깨 보니 꿈이었습시다. 그래 하도 신기해서 그 이튿날 가서, 꿈과 마찬가지로 가 보니, 산 불상이 있어서, 그 산 불상을 갖다가 절에다 봉안하고 수도하고 있었는데, 의상대사가 선정사를 창건하고, 수도한 지도 150여 년만에 역시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화재로 소실되어서 그 옛터를 비워 두기가 너무 애석하다 해서 암자를 창건했는데, 능인암(能仁菴)이라는 암자를 창건해서 수도

를 했는데, 금강산에도 수도하던 비구니 김수영 씨가 자기 선조들이 수도하던 정지인 줄 알고 와 보니, 사찰은 화재로 소실되고, 암자에서 승려들이 수도를 하고 있는데 공양을 잇기가 곤란해서 자기 토지 50 트랙을 헌납하고, 공양을 이어 가면서 거기서 수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지금 어디냐 하른 계조암 밑에 내원암(內院庵)입니다. 내원암이락 불리어 오고 있지만, 그 능인암에서 수도하던 한 날 밤 꿈에는 어느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는 저 밑에 내려가서 사찰을 창건하고 수도해라. 그러면 너 삼재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3재라는 것은 뭐냐, 사찰의 3재라는 것은 요 근년에 와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얘기지만 예전으로 말하자면 아주 적당하고 꼭 3재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 3재라는 것은 첫째 화재, 둘째 호랭이가 수도하면 와서 물어 가요. 그래 호환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는 빈대가 많아서 쫓겨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개 3재지요.

그래 하루는 승려가 꿈에서 깨어나서 하도 신기하다고 해서 세 승려가 앉아서 꿈 얘기를 하고 보니, 세 승려가 역시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신기해서 그 이튿날 내려가서 보니 넓고 좋은 공지(空地)가 있어 게다가 사찰을 창건하고 사명을 신의 계시로 이루어진 사찰이라 해서 귀신 신(神)자, 일 흥(興)자, 신흥사라고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신흥사에 들어가면 지금 그 원통 보존의 3불상이 있는데 3불상이 지금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의상대사가 선정사에서 그 3불상을 봉안하고 있던 불상이예요. 그게 화재로 소실되었지만 그 3불상만은 남아가지고 그 3불상은 현재 신흥사 원통보존에다 봉안하고 수도합니다.

북판에 있는 것. 크고 양 가생이가 적지요. 북판에 있는 것은 아미타불, 우리측이 있는 것은 세존보살, 좌측에 있는 것은 관음보살이에요. 그래 3불상입니다.

낙산사는 원통보존이고 그건 관음보살상입니다. 원통보살상(圓通菩薩像)이지요. 그래 원통보전(圓通寶殿)이라는 것은 관음보살이다, 관음보살이라는 것은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고, 극락보존의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이 불교에서 얘기라, 그렇게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유만석, 남·50, 설악동, 1981. 4. 18>

【전설39】

□ 신흥사 유래

신흥사는 처음에는 향성사입니다. 신라 선덕왕 때지요. 자장율사가 저 양양 상운이란 데가 있습니다. 상운이라는 데는 역 중에서 우두머리인 찰방이 주재하던 곳입니다. 그러니 상운리에서 이 부근 고성, 양양을 관장했지요. 가장율사가 그 상운리에 와 보니까 지금 신흥사 있는 쪽에서 서운(瑞雲)이 서기(瑞氣)가 비치더랍니다. 그래서

“야, 저기가 부처님이 계시만한 곳이구나.”

그래서 모든 들레가 향기로 싸여 있다고 해서 뭔가 반드시 서기가 어렸으니 부처님이 계시만한 곳이구나. 그래서 모든 들레가 향기로 싸여 있다고 하여 중향사(衆香寺)라 하지요. 뭔가 계시만한 곳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지금 뉴설악 호텔 앞 그 자리에 절을 짓고 향성사라 했지요. 바로 거기에 3층탑이 남아 있지요.

그거가 향성사 처음 지었을 때 탑입니다. 탑인데 처음에는 그것

이 5층이라 했는데 임진왜란때 없어지고 지금 3층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향성사라 이름 지었는데 화재를 만나 가지고 나중에 다시 짓게 되었는데 지금 내원암에 의상대사가 옮겨지었습니다.

그래 이름을 선정사(禪定寺), 선을 아주 중심해서 이루어진 절이라 해서 그래지었는데 거기서 다시 화재가 나니 터가 나빠서 이렇다 해 가지구 정보 원년 인조 22년(1644)에 영서 연옥 두 선사 꿈에 신선에 나타나서 지금 있는 신흥사 그 쪽에 절을 지으면 번창하고 잘될 것이다 해서, 그래서 지어서 신이 나타나서 절을 이룩했다 해서 신흥사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박익훈, 남·77, 교동, 1992. 4. 21>

【전설40】

□ 쌍천 도갑소

‘도갑소’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는데 쌍천가에 있는 소로 도깨비가 자주 출현했다고 하여 도깨비소하고 하던 것이 도갑소로 불리게 되었어.

그런데 내가 젊으셨을 때 소달구지를 가지고 한밤중에 산을 내려오면서 묘지를 지나는데 거기선 도깨비불을 보고 한 걸음에 집까지 달려왔어.

이 도갑소는 옛날에 이대천이라는 사람이 명주골에 살았는데 중이 시주하러 왔는데 중을 팔시하여 소똥을 떠주자 중이 명주골을 이 도갑소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지. 이 도갑소에서 옛날에 자살도 많이 했는데 1936년 병자년에 이 소가 메워졌어.

<김근수, 남·78, 하도문, 1999. 11. 23>

【전설41】

□ 양폭과 음폭

설악에는 양폭이 있고 음폭이라는 게 있는데요. 양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분들 대부분 양폭이라고, 두 개가 떨어져서 똑같이 떨어져서. 양폭인 줄 알고 하는데, 그게 그래. 인제 대청봉이었는데 인제 양폭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양폭이라는 데는 폭이 한 25m 밖에 안 돼요, 길이가.

이 폭이야 뭐 얼마 안되고 한 2m정도 되고 길이가 25m정도 되는데, 거기서부터 계곡이 두 갈래가 생기는데, 그래 인제 우측 계곡에 양폭이 있고, 좌측 계곡에 음폭이 있어요.

그래 인제 우측 계곡에는 양폭에서 한 50m 올라 가면 천당폭포, 그 천불동 계곡에 인제 마지막 상간 폭포라 해서 하늘 천(天)자, 무리 당(黨)자 해서 천당폭포라는 폭포가 하나 있고, 천당폭포 위로 조그만 무명폭이 하나 있는데 좋지도 못한 폭포가 뭐 하나 있고, 그래서 인제 양폭에 인제 계곡으로 올라 가면 양쪽으로 쭉 올라 가면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계곡이 있어요.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와서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렀는지 그전에는 그 백미폭, 건폭. 그 비가 와서 물이 흘러야 폭포가 흐르고, 말라 있다, 그래 마를 건(乾)자, 백미터 폭포. 백미터나 길이가 되는 폭포다 그것이 비가 오면 물이 많아서, 폭포가 좋으나 물이 없고 가물었을 때는 말라 있다. 그래 건폭(乾瀑)이라고 불리고 백미폭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음폭이라고 하는 데는 양폭에 그 두 갈래로 계곡이 있는데, 그 좌측 계곡으로 올라 가면 그게 음폭인데, 음폭이라고 하

는 것은 양쪽에서 한 200m 올라 가면 그게 음폭인데. 그게 좀 올라 가기가 바우절벽이래서 올라 가기가 좀 험상 궂은데 거기는 그 여자의 음모양 아주 흡사 그 여자의 음처럼 생겼다.

그래서 거 음폭이라고 이름을 칭호를 붙이고, 그래 음폭, 음폭이 있으니 또 양폭이 있어야지, 남자가 있어야지, 여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 음양이라는 뜻에 한해서 양폭이니 음폭이라고 불리어 오고 있습니다.

<유만석, 남·50, 설악동, 1981. 4. 18>

【전설42】

□ 염주폭(念珠瀑)과 물너미 고개

음폭이라고 하는 데서 한 600m 올라가면 염주폭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염주, 그 염주같이 생겨 가지고 그 좁게 흘러 떨어진다고 해서, 그 염주 폭포가 많고 계곡이 상당히 흙해요.

거게 올라가면 보통 이 지방 사람들이 고 골짜구를 지명의 이름을 부르는 건 그 골짜구니가 안내피, 죽음의 골짜구를 안내피, 그렇게 되어있고.

거게 인제 죽음의 계곡 있는 데서 우측으로 올라가면, 태백산맥의 능선이 있는데, 그 능선이 인제 지금 물너미 고개라고 하지만, 원래 그 희운각 대피소 있는데는 계곡의 물이 그게 지금 내설악으로 흐르지만 그 외설악으로 그전에 넘어 왔습니다.

그 쪽으로 타 넘으면 그래 외설악으로 넘어 와서 그게 문매미 고개가 아니라. 물 넘어 간다고 물너미 고개지. 인제 물너미 고개데. 그걸 자꾸 오다 보니. 물너미니, 물너미니 하다 보니, 그게 물너미 고개다.

그래 인제 무내미 고개가 이루어진 거고 물이 넘어오고, 그래 그 물이 물 때문에 내설악 외설악 사람들이 싸움을 다 한 때는 하고, 그래 가물었을 때는 물싸움 하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요. 근래에는 그런 예가 없지요.

<유만석, 남·50, 설악동, 1981. 4. 18>

【전설43】

□ 영금정 이야기

영금정은 바위가 다 깨지고 지금은 돌이 없어. 청호동 죽항 쌓는데 다 썼지. 옛날에 파도가 치면 그게 울려퍼져 공간이 생긴 데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거문고타는 소리라고 해서 영금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천제를 지내는데 영금정에서도 옛날에 천제를 지냈었는데 돌을 깨는 바람에 그게 주기가 없어졌지.

청초호를 쌍성호라고 했는데 여기에 청룡이 살았었어. 영랑호에는 영랑 화랑이 있었는데 황룡이 있었고. 매일 청룡과 황룡이 자꾸 싸움을 하니깐 바다가 풍랑을 일으키면서 파도를 일으키니깐 어민들에게 시샘을 많이 당해 사고가 많이 났었어. 그래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청룡과 황룡의 싸움을 막았고 재난을 어느 정도 막았다는 전설이 전해오지.

그 전설이 꽤 오래 800여년정도 되었어. 지금도 용의 꼬리 모양이 아직까지 영금정 부분에 아직까지 있는데 여기서 4년에 한번씩 단오날을 기준으로 3일씩 굿을 하지.

단오날을 같이 서낭을 할 때 할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중앙동 서낭에 가서 할머니를 모시는데 부산 무당, 속초무당등을 선정해

서 곳을 해. 이런 것을하면서 화합의 한마당이 되는 좋은 점이 있어서 영동지구에 배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성금을 모아 재난을 없애지.

<김택성, 남·55, 영랑동, 1999. 11. 20>

【전설44】

□ 영금정과 속초

제가 고향이 여기기 때문예요. 토백이로서 가슴아픈 옛날의 명승지가 없어진거 말씀하지요. 제가 어려서 듣건대 선녀들이 하강해 가지구 목욕을 하고 비파를 타고 다시 날아서 인제 올라갔다.

이래 갖구 그런데서 영금정이란 유래가 됐는데, 명승지가 없어졌다는 것은 일본사람들이 그 명소에서 암석을 부숴가지구 지금 저 방파제를 만들어 가지구 축항 항구를 만드느라고 명소가 없어졌는데, 거기에 가면 됩니까? 장군이 말을 몰구 댕겼다 그래가지구 너래반석위에 말발굽이 있었구, 장군이 말을 몰구 갈 적에 발자국이 남은 게 큰 발자국 남은 게 있었어요.

그리구 말하자면 금강산의 옥녀봉인가 거기 너래바위 건네 뛰듯이 움뎠이를 진데 건네 뿔 때 돌맹이를 밟고 건네 뛰야 하는데 그 돌을 짱 밟던, 얇이 밟던 소리가 나요. 돌이..., 그래서 징바위 같은 소리가 난다 그래가지고 바위소리가 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일본놈들이 축항할 때 암석을 깼는데 여기 토목과장하던 일본 사람 부인이 아주 중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구 아문 약을 써도 안 낫는다 해 가지구 어디 가서 무꾸리를 하니까,

“그 영금정을 당신이 책임지구 부숴가지구 쓰기 때문에 그 영

금정의 혼백들이 당신부인에 실려가지구 앓으니까 큰 곳을 해라.”

그래 가지구 그건 제가 어려서 봤는데 구경했는데, 그 장군바위, 그 영금정 저 본바위가 장군처럼 생겼어요. 투구를 쓰구 모형이 투사같이 생기구 선녀들이 목욕한데는 너레반석 위에 석벽이 있었는데 석벽에 일 곱 갠가 여덟 개 옷 벗어서 넣는 구멍이 파져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거기다가 비단 필륙으로 뭐 세 가진지 네 가진지 필륙으로 바위를 덮다시피 하구 일본놈들이 큰 곳을 했어요. 그래가지구 그 참 우스운 애긴지 모르지만 토목과의 책임자되는 사람 부인의 병이 나았다는 얘기가 있구요.

저기 군인들 있는 부대가 있는 데 거기가 소나무가 이렇게 하늘로 솟구 밑에 바위가 이렇게 되어가지구 딱 이 저 풀잎을 농민들이 이렇게 받는 것처럼 되어가지구 속초라는 이름이 되어 묶을 속(束)자를 거기서 썼다고 그러는데, 거기 지금 소나무가 하나도 없고 그건 외딴 섬처럼 되었는데 지금은 다 메워 가지구 하나가 되었지요.

영금정 안에는 말이 먹던 그 구유가 있었어요. 바위로 된 기 있었어요. 바위로 그렇게 만들어서 달아 났어요. 아주 구유를, 그리구 말발굽이나 장군 발굽을 우리가 봤구, 지금보면 몇 십톤급 큰 돌인데 사람인력으로 도저히 못가지구 가요.

그 큰 암석을 굴려 가지구 갈매기 바위라고 그 북방으로 갈매기 바위와 서치라이트 있는 사이 연안에 큰 바위를 암석 위에 갖다 났어요. 그래서 영금정도 유명해서 관동의 명소라고 해서 많이 왔지만 그걸 갖다 옮겨왔다고 해서 좌우간 촌에서 갖쓰고 하얀 옷을 입고 치마 두르고 촌사람들이 구경왔어요. 지금은 풍랑에 물속으로 들어갔다구요.

【전설45】

□ 영랑호 용이야기

옛날에 용이 하나 있었어. 그 용은 승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용이었어. 그 용은 여의주를 달밤에 아가리에서 뱀내 가지고 달빛을 비추어야 했지.

그런데 그곳에는 여의주를 노리는 이무기가 한 마리 있었거든. 어느 날 용이 잠시 한 눈을 판 사이에 이무기가 여의주를 눈 깜짝할 새에 삼켜 버렸지. 그래 가지고 용이 된 이무기는 승천을 하고 남은 용은 자신의 여의주를 빼앗아간 이무기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지. 그때 흘린 눈물이 고여 생긴 것이 영랑호였어.

<이상기, 남·41, 금호동, 1999. 12. 17>

【전설46】

□ 영랑호 전설

영랑이라는 화랑이 와서 수도를 하고 놀다 갔다해서 영랑호라 하지요. 사실은 이 영랑이라든가 술랑이라든가 남랑이라든가, 이 건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또는 화랑도 한 팀의 이름이다.

근데 숙종 때 김삼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 때 높은 관직에 계셨는데 율곡 선생하고 같은 시대야.

양반의 자손으로써 지켜왔기 때문에 백담사에서 조금 가다보면 그게 왜 영시암이라 했냐하면 화살을 한번 쏘 노면 영원히 못 돌

아온다 해. 나는 여기 앉아 있으면 안돌아 간다 그래서 영시암이라 한다.

그 양반이 영랑호에 와서 글을 썼는데 경치가 좋아 놀다 가려니 경치가 너무 좋아서 사흘을 통곡하고 갔다는 글이 있지.

그렇게 영랑호의 경치가 좋아서 나도 맨 처음엔 깜짝 놀랐어. 또 요즘도 처음와서 영랑호를 처음보는 사람은 탄복않는 사람이 없소. 내가 예전에 영랑호를 자주 댕겼거든요.

근데 어떤 청년 한 명이 가며 한다는 말이

“아저씨 이 호가 뭐래요.? 이야 이렇게 좋은 호수에 왜 사람이 없소?”

“외진 곳이라 사람이 안와서 그렇지.”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은 탄복을 하지.

근데 여기 청초호는 쌍성호라 했어. 동국여지승람에 쌍둥이로 이루어있다, 왜 그러냐 하며 내가 생각해 볼 때 영랑호는 화랑이 왔다갔다해서 영랑호라는 이름을 받았거든. 근데 저게 이름을 못 받았다 이거야.

근데 호수가 쌍둥이처럼 생겼거든. 쌍성호라고 붙였겠느냐. 근데 청초호도 동국여지승람에 뭐라 써있냐 하면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영랑호보다 낫다 그래서 택리지를 쓴 이증환이가 관동 팔경에 낙산사를 안 넣고 청초호를 넣어서 유명해 졌다고.

청초호에는 옛날에 용암이라는 속초 교동 앞에 가면 바위가 크게 있었어요. 그 바위가 이름이 난 것은 한말에 남궁억 선생이 양양군수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작전에 그때 와 있었어요. 애국자니까 이 양반이 사월 초파일에 화전놀이를 해서 더욱 이름이났다 이거여.

그때 이 대포동이 아주 이 부근에서 중심지였는데 왜냐 하면 그 항구가 이 부근에서 제일 수심이 깊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부

두에 하까다라는 배가 우편물을 싣고 사람도 태우는 그런 배가 있는데 거기를 떠나 대포를 들러서 원산까지 댕겼지.

그래서 교통이 편리해서 대포가 중심지였어요.

대포를 중심으로 해서 미시령으로 넘어가는 육로가 있고 배가 수로를 그렇게 댕기고 육로는 거기서 인제 회암산을 타고 원산으로 통하고, 그렇게 인제 교통이 편리하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영랑호는 영랑이란 화랑도가 지나갔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보면 영랑도이니까 영랑도가 한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해석되고, 결국 화랑이 수도했다는 역사에 의해 영랑호라고 지었다고 볼 수 있지.

<박익훈, 남·84, 교동, 1999. 12. 1>

【전설47】

□ 영랑호와 달마대사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신라시대 화랑인 영랑(永郎), 술랑, 삼조, 남석등이 금강산으로부터 고성 삼일포에 와서 3일동안 수련을 하고 각각 분산했습니다. 영랑만이 이 호수에 와서, 뱃놀이를 하며 선유하던 곳이라 해서 이 호수의 이름이 영랑호라 불리어 왔습니다.

영랑호 남쪽 기슭에 송림이 울창한 복판에 자그마한 사찰이 하나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서기 637년전에 정혁담이라는 승려가 사지를 건립하고 53불의 보광부처를 보완하였다고 해서 보광사(普光寺)라고 이름이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영랑호는 아주 물결이 맑고 잔잔해서 언제나 어족이 풍부하며 낚시를 즐기는 태공(太公)들과 뱃놀이를 즐길 수 있는 좋

은 속초 시민의 휴식처가 바로 영랑호입니다.

그럼 영랑호를 떠나서 유래를 마치고 그전으로부터 불교가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번성했나 하면 인도에서부터 번성했는데, 인도에서부터 번성하면, 당나라 동남사, 지상사, 원나라 운재사, 개국사를 거쳐서 금강산으로부터 금강산 신개사, 유점사 장안사 3개 사찰을 거쳐 가지고, 이 영동지구 관동8경을 주욱 내려 오는 그 승려가, 원래는 승려가 말을 탔다고 하면 위법적이지만, 그러나 거리가 워낙 멀고 보니 어딘가는 그 아주 말먹이가 무성하게 자라 있고 그 꼭 말 먹이를 했으면 좋겠어서 말에서 내려서 풀을 비어서 말을 먹일라고 풀을 비어서 등에다 싣고 말을 타고 올라와 보니 점심 때가 되었어요.

시장끼가 있어 하는 것 같아서 그 풀단을 풀어 가지고 말을 먹이고 그래 '먹이재'라 하는 데가 오늘날에 와서 그 풀단을 풀어서 먹였다고 해서 먹이재입니다.

그래 먹이재를 거쳐서 이 봉우리 꼭대기를 올라와 보니 인도에서부터 포도 전법이 부족한 지라 여기서 수 년간 수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바위 틈에서 수도를 수 년간하고 그래서 거기서 도(道)가 통했어요. 그 포도 전법을 통달을 해서 그분이 그제서 도가 통했다고 해서 이를 '달마봉'이라 불렀고, 달마대사가 바로 이분입니다.

<유만석, 남·50, 설악동, 1981. 4. 17>

【전설48】

□ 오세암 전설

백담사서 글로 해서가면 오세암이라고 중간에 오세암이라고 있

어. 나도 한 번 갔다 왔는데 다섯 오(五)자 나이 세(歲)자 오세암자가 있어 거긴 웬만한 사람은 못 간다고 아주 산이 험악하고 가 보면 알겠지.

이 중이 뭐냐면 있는데 한 명이 중이 뭐냐면 있는데 어린 다섯 살 먹은 아이를 갔다놓고 상좌처럼 키웠어. 키우고 소갈 나가야겠는데 가를 내놓고 소갈을 나갔어. 그 동냥을 해외야 먹고 살게 아닌가.

그 나가서 나가면서 뭐냐면 들어올 때 눈이 확 내려서 중은 올수가 없다 말이여. 겨울을 지내서 봄에 거길 들어온 기여. 다섯 살 먹은 어린아이가 뽀얀게 가만히 뭇 먹어서 그런지 건강하고 뽀얀게 가만 앉아있다 이거여. 그래서 인제 신이 살려줬다. 그래서 그 암자를 오세암이라고 해.

다섯 살 먹은 그래서 오세암 이름을 지어 가지고 지금 절을 이룩하는데 헬리콥프로 이렇게 달아내려서 뭐 나무는 거기 뭐 숲하 니깐 저 그런 사람도 목수 데려다가 뭐하면 되고, 기와는 달아 내려서 집을 다 짓고 그렇게 시작을 하더구만.

<김종태, 남·83, 교동, 1999. 11. 25>

【전설49】

□ 용기점마을과 천주교

용기점마을은 상·중·하도문이 있었는데 상도문 2구지요. 거기가 하도문이 하나고, 중도문은 1리, 그리 이렇게 되었고 상도문도 1리, 2리 이렇게 되었지요. 2리인데 대원군 시대에 천주교를 박해할 때 천주교 신자들은 실향민과 같이 피신을 땡기다 보니까 일정한 농토가 없고 옛날에는 농지를 가지구 있는 사람이 부자거든

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논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가난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피신을 해서 살아야 하니까 살길이 없으니 진흙을 파서 점토흙 그걸 파가지구 용기를 빚어서 농촌에 가지구 땀기면서 곡식과 바꿔서 먹었지요.

우리 할아버지는 충청도 충주에서 오셨는데 명주 연곡 행정리에서 부락이름은 자세치 않지만 쪼그만 부락에서 피신을 해서 고조할아버지가 사시다가 증조할아버지를 낳고 고담에 이쪽으로 도문으로 오셨지요. 도문 들어온 연대는 150년전에 들어 왔지요.

그 당시는 도문에 천주교 신자로 양씨네가 있었지요. 양시권씨의 아버지쯤 되요. 천주교 신자끼리 연계가 되어서 왔어요. 충청도 쪽에서부터 쫓겨 땀기다 보니까 그쪽도 천주교 신자가 많은데 용기마을에 가면 천주교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들 한테서 배워서 내내 그걸 했어요. 용기 만드는 건 각자 집에서 만들지만 굽는 것, 가마 만드는 건 공동작업이지요. 서로 이집에서 열 개 만들었다 하면 순서대로 구워주구 품아시 하는 식으로 했지요. 그런데 용기 하는 사람들을 농사짓는 사람들이 천민으로 취급해서 가난하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 갖고 쌀과 하나하나 바꾸는데도 사정사정해서 그 집에서 피치못해 바꾸어 주고 했지요.

정부에서 박해를 하니까 어디가서 마음대로 얘기도 못하고, 그 당시에는 지금 참 보면 기술이 좋았는데 그 양반들이 경제관계가 안되니까 그담에는 얼른 만들어서 바꾸어야 하니까 질그릇 같은 거, 뚜가리 같은 것을 만드는 게 많았지요. 진흙은 하도문가서 파오고 남의 눈에 가서 파오고, 왜냐면 그 동네로 볼 때 농토도 적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되니까, 내 땅이 없구 하니까 거기서 살게 되었지요.

강원도 영동지구로서는 제일 먼저 천주교회가 도문동에 정착했어요. 신자들이 정착한 것이 150년 가까이 되었는데 천주교 신자

들이 차차 모이니까 부락이 형성되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지어 맨 처음에는 가정집에서 기도 드리다가 차츰 숫자가 많아지니까 성당을 지었지요.

그러다가 당시 양양군 속초읍 상도문리가 양양군이 커지고 천주교 박해가 없어지니까 양양으로 옮겨나가구 도문있는 건 강당으로 옮겨 나가구 도문있는 건 강당으로 변했지요. 내가 아는 건, 옛날에는 신부님이 귀했어. 그 당시에는 이 신부님이예요.

이광재 디모테오 신부님이지요. 도문에 이 양반 전에도 신부님이 계셨지요. 근데 이분은 6·25때 돌아가셨어요.

도문 이 부락은 몽땅 천주교 신자로 30가구가 그 당시에 살았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가 다른 데 가서 살데가 없었으니 협동해서 살다보니 웅기점마을이 된겁니다. 완전히 공동체 생활을 해서 협동정신이 투철했지요.

천주교회가 도문에서 양양으로 나갔다가 6·25가 나니까 이광재 신부님이 성당을 지키고 피난을 가지 않아 공산당에 납치되어서 돌아가셨지요. 도문이 영동지구 원산까지가 중심지가 되었지요.

<정형민, 남·60, 설악동 145-1, 1992. 4. 5>

【전설50】

□ 울산바위 매미떼 합창

지금 현재 설악산 울산 바위 밑에 매미들이 가장 많이 울고, 매미 떼가 우는 곳이 설악산 그 계조암, 계조암 골짜기 내려 오면서 매미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계를 갖다가 일명 ‘매미떼 합창이다’ 하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전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 얻었는데, 그러니까 그 매미떼가 어떻게 해서 와서 많이 울고 많이 머물고 있느냐 하면은, 이건 하나의 전설로서 울산 바위의 전설과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해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울산 고을에서 일어난 일인데, 울산 고을에서 한 그 도사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일과가 먹고 잠자는 것이 일과랍니다.

그래서 낮에는 낮잠 자고, 밤에는 밤대로 자고, 그저 밥만 먹으면 자고, 그게 그 사람의 일과인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개구리가 여름에는 말이죠, 이 밤에는 말입니다, 개구리가 어떻게 우는지 밤에 잠을 못 잔다는 얘깁니다.

“이걸 어떻게 없앨 방법이 없나?”

그래 가지고 그걸 다 잡아 죽인다면 살생을, 무모한 살생을 하는 거고. 저 놈을 갖다 입을 딱 봉해 가지고 울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래 가지고 연구를 하는 과정에 하나를 연구했는데 부적으로서 말이지요. 그 입을 봉하는 이런 것을 했어요. 그래 인제 부적을 써서 공중에다 날렸더니, 아, 이놈의 개구리들이 전부 입이 붙어 가지고 울지를 앓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인제 밤에 조용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데, 이 여름에는 이 잘라고 하면 매미가 말이지요, 어떻게 요란하게 우는지 그 낮에는 낮잠을 말이지 매미 소리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놈들도 울지 못하게 병어리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막 인제 부적을 써서 날릴라고 하는데, 그 일부 매미가 그 김새를 알았어요. 김새를 알고,

“여계 있다가는 전부 병어리가 될 테니, 자, 우리 전부 도망가자.”

이래 가지고 매미 떼가 전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아,

이놈이 날아 오다 보니까, 설악산 있는 데까지 오게 되었어. 가만히 보니까 아, 산수가 참 대단히 좋은데,

“여계서 머물면 좋긴 좋겠는데, 여계서 우리가 머물면 어데가 좋겠느냐?”

“그래 저 위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저 바위가 무슨 바위냐?”

“울산 바위다. 울산에서 온 바위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지.

“이왕이면 말이지 그 바위에서 쉬자.”

이래 가지고 그 울산 바위에 피신해서 머물렀다는 얘깁니다.

<김봉춘, 남·54, 금호동 13/2, 1981. 4. 27>

【전설51】

□ 울산바위 매미때

이왕이면 까마구도 내 땅 까마귀가 좋다고, 그 울산에서 왔는 바위가 있다고 하니 우리 여기서 그만 아주 지내고 가자.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이 설악산에 와가 있다 보면은 그 매미들이 참, 많이 울어요. 그래 많이 울고 자주 울고 이렇게 읍니다. 그래서 인제 아주 요란하게 우는데 그러면은,

“왜 그렇게 매미가 유독 많이 우느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말은 매미가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러 자주 우는 거는 울산에서 우리가 도망올 때 아, 우리를 따라 오지 못하고 그 남아 있는 그 우리 동료들이 있다 말이야. 그 동료들은 지금 병어리가 돼 울지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그 동료들 못 우는 뭇까지 우리는 울어주느라고 우리

가 자주 울고 많이 울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매미 중에서 우는 매미가 있고 못 우는 매미가 있다 할 때 그때 그 도사의 도술에 걸린 매미는 지금의 병어리 매미고, 그 당시에 그 도사의 도술에 걸리지 않고 이쪽에 그 설악산 왔던 그 조상에서 나온 매미들은 지금도 잘 울고 있다는 하나의 그 설악산 그 매미떼 합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명철, 남·59, 대포동, 1981. 4. 26>

【전설52】

□ 울산바위 유래

울산바위가 왜 울산바우냐 하든 계조암에 대해서 울이여, 계조암에 대해서 울타리요, 계조암에 대해서 울과 같은 산이다. 울산(蔚山)에서 왔다니 말이 되나. 계조암의 소가 두러 누운 것 같은 바우를 절에서는 마당바우라 하는데 거기서 앉아서 보면, 우정 내 일이라도 가보라고 내가 그진말(거짓말)하나.

울산바우가 거 보면 목탁바우 위에서 보면 계조암이 이렇게 있으면 이 어간이 멀지만 울산바우가 뵈키거든. 그냥 마당바우서 보면, 허허, 그러니 계조암에서 보면 울타리가 틀림없지. 계조암에 대한 울, 즉 답이다. 울같은 바우다, 그래서 울산이요. 그전에는 질방을 지고 와서 내려왔다는 기묘한 소리들 했지만 그걸 모르구 그렇게 했는데...

<박일호, 남·78, 노학동 2/5, 1992. 4. 5>

【전설53】

□ 울산바위 전설

울산바위를 풀단으로 묶었다해서 속초라 한다는 얘기는 뭔가하면 전설에 이렇게 나와요. 울산바위는 원칙은 울타리같이 되어있다해서 한문으로 쓰면 이산(籬山)이고 우리말로 울산바위, 울타리바위라.

지금으로부터 340년전 인종 때 택당, 그 양반이 간성군수로 있었어요. 그때 그 양반이 《택당지》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속에 간성군지가 들어 있어요.

그 양반이 울산바위를 천후산이라 썼어요. 하늘 천(天), 사자울음 후(吼)자, 하늘이 사자울음 소리를 낸다해서 천후산이라 했어요. 하늘이 우는 산이다.

울산바위에 가면 이만한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움푹파인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바람이 그 구멍에 들어갔다 나올 때 우~하고 소리가 난다 이거야. 바람이 세서 큰 소리가 났다 이거야. 이를 하늘이 운다해서 그 지방 사람들이 천후산이라고 했다. 그 양반이 그렇게 써놨어.

근데 전설에 의하면 신이 금강산을 만들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이름난 산은 다 와라 해서 다 모였다, 이거야. 근데 울산 바위는 덩치가 커서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도착하니 금강산이 벌써 다 만들어 졌다 이거야. 그 신이 하는 말이

“수고는 했다만은 이젠 자리가 없으니 저 끝에 가 있을려면 있거라.”

기분이 나빠져 버린 울산바위는 그래 울산가다 보니까 다리가

아퍼 갈수가 있나. 가다보니 지금 울산바위자리가 누을 만 하거든. 울산이 너무 머니 여기서 쉬다가자. 그래서 그 자리를 잡은게 울산바위다.

또 재미있는 것이 고려땐 불교가 국교였거든. 스님들이 맥을 추는 정세를 쥐고 있는 판이네. 스님들이 무슨 일이든 정권을 오래 잡고 있으면 썩는다, 이거야. 멀정한 사람도 정권을 지면 애험하고 썩어버린다 이거야.

울산 원님이 소문을 들으니

“양양군에 가면 울산바위라고 있는데 우리바위를 거기다 가놓고 자랑하니까 가서 세금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신흥사 주지보고

“우리 바위를 갖다놓고 느그 이름이라니까 값을 내라.”

그런데 이놈이 해마다 세금을 걷어가네. 그것도 점점 많아지네. 스님들이 무신 돈이 있나. 원님이 세금을 받으러 올 때가 됐거든. 그런데 돈이 없거든, 안줄순 없지 걱정이거든.

그때 조그만한 동자스님이

“아니 스님 뭘 그리 걱정합니까?”

“니 알 바 아니다.”

“내가 알아서 스님을 좀 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금 받으러 오는데 돈이 없어 어떻하나.”

그래 야가 하는 말이,

“걱정없습니다. 그 원님이 오거든 나를 그 자리에 불러주십시오. 그럼 내가 해결 하겠습니다.”

반신반의로

“그래 해보자.”

때가 돼서 돈을 받으러와 동자를 부르니 가가 하는 말이

“사또께서 세금 받으러 오셨죠.”

“그래”

“이제 세금 못 뚫니다.”

“어 이놈봐. 왜 세금을 못 무노.”

“원님이 세금을 내시오.”

“내가 왜내?”

“원님 이 바위가 없으면 그 자리에 밭을 갈고 논을 만들면 얼마나 득이 많으나. 그놈의 바위 때문에 우리가 손해가 많단 말이오. 그걸 원님이 무시오. 아니면 바위를 가져가든지.”

흐흥. 가만 들으니 그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가. 그렇다고 그냥 ‘오냐’할 수는 없고 가만이 생각해보니

“그래 내가 가져가마. 불타는 재로 가지고 새끼를 파서 울산바위를 묶어놔라. 그럼 내가 와 바위를 끌고 가마.”

재를 가지고 어떻게 바위를 묶나. 원님은 ‘이놈이 요건 못하겠지. 흐흥.’

“예, 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오실랍니까?”

“며칠날 오마.”

하고 갔다. 주지스님이 생각해 보니 가찮거든.

“어떻게 묶을래?”

“걱정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인부를 모아 풀을 모아 새끼를 파서 돌을 묶어 오기 전날 불을 지르니 모양이 그대로 있더라. 원님이 와서 이를 보고 할 수 없이 세금을 못 걷고 그냥 갔다. 이에 속초라 한다.

이런 얘기는 모두 만들어낸 얘기니 전할 수 없고 속초는 지형이 와우형이 맞다.

<박익훈, 남. 84세, 교동, 1999. 12. 1>

【전설54】

□ 울산바위 전설

울산바위는 옛날 전설이 원래는 울산에 있었던 것이 울산에 있던 바위에 설악산에 왔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금강산에 일만이천봉이라 그러잖아 그 옛날부터 일만 이천봉을 만들 때 제석천왕이 각 전국에 있는 산신들한테 명령을 했다는 거야.

내일은 고장에 가장 이름난 명소를 한가지씩 오라고 명령을 하니깐 그때 이제 그 울산에 있던 산신이 울산바위가 기묘하게 생겼으니까 그 바위를 가지고 지금 울산바위는 그 자리에서 힘들어서 쉬고 있는데 그때 그 제석천왕이 “이제는 일만 이천봉이 다 모였으니까 가져오지 말아라.” 그러니깐 할 수 없이 거기 그대로 놓고 쉬다가 그대로 놔 둔거야. 울산바위가.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건데.

그 중간에 이제 그 울산 현령이 여기 신흥사에 울산바위의 관람료를 받으러 왔던 실체가 있어요. 그 신흥사 주지한테 와서 울산바위의 해마다 일년에 한번씩 수금 받아가는 식으로 받아갔단 말이야! 그러고도 울산 현령이 와서

“당신네 울산바위 관람료를 내시오!”

이렇게 수금료를 받으러 오니까 주지가 근심걱정으로 쌓여 있었어. 달라는거 안 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는가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요 도랑에 쪼그마한 나이 어린 동자승이 주지스님께

“스님 요즘 무슨 걱정이 그리 많습니까?”

하니 주지가 하는 말이

“니가 임마 쪼그만 놈이 내걱정을 알아서 뭐하느냐!”

“혹시 압니까? 저 같은 애라도 스님한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니깐 그 애길 했던 말이야. 그렇게 해서 울산바위는 수고비를 받으러 온다고 하니깐 그 꼬마가 무릎을 꿇 치면서

“아이 스님 그 까지결 뭐 걱정하십니까? 모든 책임을 다 저한테 위임했으니깐 저하고 의논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놓고 그냥 간단 말이야. 주지가 하도 어리가 없어서 어제 꼬마가 무슨 지가 대책이 있어서 큰소릴 치는가 싶어 가지고 하도 호기심이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현령이 오니까 그 나무 사신이 저 꼬마한테 모든걸 위임했으니깐

“저 꼬마하고 얘기하십시오.”

그 현령을 꼬마한테 보냈단 말이야. 아 그니깐 꼬마가 현령을 방에 델고 들어가더니 댕다 호통부터 치는 거라!

“예 이놈! 이 패섬한 놈 같으니 어디 남의 땅에다가 바위를 던져 놓고는 니 고을에 가져가지도 않고 말이야!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저거 다시 가져 가라!”

그 현령한테 호통부터 치니깐 어이가 없어서 우물쭈물하다가 며칠을 생각해서

“그러면 동자님! 저 울산바위를 썩은 새끼로 시커머케 썩은 새끼로 세 번만 돌려서 묶어 주시면 제가 저거 가지고 가겠습니다. 언제까지 올까요?”

하니깐

“3개월 후에 와라!”

그러고는 3개월 후로 약속하고 갔는데 이 꼬마는 마을에다가 뭐를 시켰느냐 하면은 장님들한테 새끼줄을 꼬아라 저 울산 바위

를 3바퀴 돌려야 된다. 또 새끼줄을 다 꼬아서 갖다 주니깐 동네 사람 시켜서 3바퀴를 묶고 거기다가 들기름을 싸악 먹인단 말이야. 새끼에다가... 들기름을 먹여 가지고 불을 지른거야. 그니까 그 들기름이 쭉욱 불에 타면서 3바퀴 묶인 새끼줄이 까맣게 다 탄거라! 까맣게 다 탔어 그러고는 현령이 와서

“저기 3바퀴 돌려 묶어 놔으니 가져가시오. 만일 당신이 못 가지고 갈 경우에는 그동안 여기 보관해놨던 그 보관료를 내가 받겠소.”

그 현령이 기가 막힌 거라. 일단 확인부터 해야겠으니깐 가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까만 새끼줄로 3바퀴를 묶어 놔거든 기가 막힌 거지. 도망간거야 현령이. 그러고는 오질 못한 거야.

왜 그러냐! 그 보관료를 엄청나게 내야 되거든. 그니까 아예 포기하고 도망 간거지.

그게 울산바위의 전설이야.

<신흥사 범주스님, 1999.11.20>

【전설55】

□ 울산바위와 동자승

우리 전설에 보면 울산 바위는 울산 고을에서 올라 왔다. 아, 그래 가지고 그 전설이 계속 되어 가지고 저게 이제 울산 바위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아직 원명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 원명을 좀 밝히려 합니다.

그래서 그 울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 천후산, 후자는 울 후(吼)자, 그러니까 공자라는 공(孔)자(字)옆에다가 입구(口) 변입니다. 천은 하늘 천, 그래서 천후산(天吼山)입니다. 본명(本名)이 천후산

인테 저게 인제 왜 울산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인제 준말이 되어 가지고 우는 산, 우는 산, 우는 산 하다가 나중에는 울산,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울산’하니까 듣는 사람이 아, 울산에서 왔구나. 그때 그 뭔가 저 이조 초엽에 한창 그 배불 승유 사상이 벌어질 때 그때 그 선비들이 그 유생들이 놀러 왔다가 그 울산바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 그 울산 고을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때 그 울산 고을에서 원이 그 마침 풍류차 왔다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에 그 뭔가 배불 사상이 농후할때니까 중을 좀 골탕을 먹이고 치부를 좀 할 생각으로 그 호통을 치면서 달려들어가는 겁니다.

“이 무지한 놈들 같으니, 왜 우리 울산에서 이 거대한 바위를 갖다 놓고 세금을 물지 않느냐, 한 놈이라도 오나 하고 봤더니 오지도 않고 패섬한 놈들 같으니.”

하고 호통을 치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 중들이 세력이 없으니까, 꼼짝 못 할 판이거든. 그래서 꼬박꼬박 물다가 동자승이 지혜로 그것을 면했다. 이래 가지고 그 울산에서 온 것같이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래 인제 동자승이 말하기를 그 저, 주지가 맨날 세금을 뜯기다 보니 말입니다, 절의 살림살이 들통이 나는 판입니다. 그래 농사를 지어 놓으면 와 가지고 다 빼앗아 가고 싹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하루는 인제 그 절을 폐해야 될 판인데, 주지가 그 걱정이 된다는 얘깁니다.

“울산에서 살림받으러 올 텐데.”

그래서 상당히 그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동자승이,

“스님, 그 무엇 때문에 요즘 그렇게 근심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건 알 바도 아니고 또 니가 알아 봤자 해결할 문제도 못 된다. 그러니까 넌 알라고 하지도 말아라.”

“아, 그러지 말고 저한테도 얘기를 하면 같이 들어서 근심을 해 보면 뭔가 좋은 수가 나지 않겠습니까?”

동자승이 다구쳤단 말이요. 주지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도 그럴듯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유를 얘기 했던 말이요. 그러니까 동자승이,

“그걸 갖고 뭘 그리 근심하세요? 그건 나한테 맡겨 두세요. 그건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요번에는 분명히 말이지 울산에서 바윗세 받으러 오거들랑 나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인제 아닌게 아니라 가을에 받으러 왔다 이 말이야. 오니까 인제 그 동자승이 나갔어요, 접대하는 걸 그래,

“어째 왔느냐?”

“바윗세를 받으러 왔다.”

“예, 저 바위가 우리 사찰에 와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는 지금 저 바위로 말미암아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

“거대한 놈이 차지하고 있으니 자, 풀 한 포기 안 나고 나무 한 그루 못 심고 거 되겠습니까? 그러니 와 가지고 가시오, 우리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가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하거든, 대단히 분할 것 아닙니까? 그래 야단 났다 이 말이야.

“내 가지고 가는데, 내 가지고 가도록 니가 준비를 해 주겠느냐?”

“해 드리죠. 뭘 준비를 어떻게 해 드리죠?”

“끈 새끼를 가지고 저거를 저 바위를 다 얹어 놓아라.”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달 후에 올테니까, 요 아래 마을에 머물 테니까 다 해 놓고는 연락해라.”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인제 그 동자승이 부락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새끼를 꼬는 거예요. 하, 뭐 맨날 며칠 새끼만 꼬고 있으니까 이 주지가 가만 생각해보니 저 놈이 뭘 할라고 새끼만 꼬고 있는가?

“야, 이놈아, 뭘 할라고 그러느냐?”

“아, 주지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제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 새끼를 짹 짹 꼬아 갖고는, 상당히 많이 꼬아 갖고는 소금에다 한번 푹 적서 소금물에다 푹 담가 가지고 그 놈을 가지고 인제 올라 가는 겁니다. 울산 바위를 마, 칭칭 감고 새끼로 동이는 거지요.

다 동이 놓고 난 뒤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거죽은 마 시커멓게 타빠리고 이 안에 말입니다. 소금물이 들어가 놓으니 안에 속속들이 다 타질 않거든요. 그래 거죽에만 시커멓게 타는 겁니다. 그래 봐 노니까 만약 이 지대로 다 타 버리면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리니까, 안 되니까 속은 남아 있고 거죽만 타는 거지요.

그래 인제

“불을 질러 잘 끄슬러 왔다고 내려가서 읊아매 왔으니까 가지고 가시오.”

이 사람들 생각에

“설마 니가 그랬겠냐?”

아, 올라 가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해 왔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 이랬는데. 그래서 인제 이 울산 바위 전설이 바로 그런 데서 인제 약간에 비추어졌는데 인제 그 산을 갖다

가 인제 천후산을 갔다가 인제 울산, 울산 하다 보니까 그만 저 울산 고을을 생각해 가지고 하나의 해학적으로 인제 그 하나의 전설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럼 저 울산에 대해서 저기 굉장히 뇌성이 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저 산에서 우는 소리가 짹짹 울려서 말입니다. 아주 그 사자가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산이 덜 울창하니까 그런 면이 뭐 별로지만 옛날에는 아주 굉장했답니다.

<장헌영, 남·54, 중앙동, 1981. 4. 27>

【전설56】

□ 울산바위와 세금

울산바위는 어떻게 됐나하면 금강산이 인제 울산서 금강산을 올라가다가 금강산이 실제로 다 섰다이거여. 그게 뭔가하면 내가 갑자기 앓을 데가 없으니 그 개 앓는다는 게 거기 울산바위 앓은 데 앓았대. 그래가지고 울산서 그 세금을 받으라 늘 댕겼대.

이 고성군에 그러니겐 세금을 주다가 골이 난다 말이여 아이 뭔가 하면 바위 앓았는데 왜 세금을 주나 어거여 열살 먹은 아이가 말이여 그럼 어떻게 하나 응 울산서 올라오다가 어디 앓았다고 말이야 세금을 달라고 해서 다 쥐야지 안줄 용의가 있냐 말이야.

“저한테 매끼시오.”

“어떻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울산서 세금을 받으러오니 이놈 알아서는 그걸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잖아. 우릴 세금을 못 물겠으니 그 지계에다가 지계를 하나 갖다놓고 지계에다 이걸 집어넣으면 이걸 내가 저다가 울산갔다 갔다줄테니가 지계나 짚어 놓

으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짊어질수가 있나 그 다음에 아휴 열살 먹은 아들이 그 다음부터는 세금을 안받았다는 얘기가 있대.

<김종태, 남. 83, 교동, 1999. 11. 25>

【전설57】

□ 울산바위와 송강 정철

정철이가 관직에 있을 때 일화가 있죠, 송강 정철이 봉정(鳳頂)이라고 하는 저, 지금 현재 대청봉 산봉을 갖다가 봉정이라고 그러죠. 그래 그 당시에 그 정철이가 관에서 들을 때 이 설악산에서 역적이 난다는 말을 들었던 말이야.

그래서 이 봉정에 와서 혈을 찔러서 역적이 나지 못하도록 혈을 찔러러 왔단 말이지요. 그 송강 정철이가 그런데 설악산 입구에 딱 와가지고서는 아, 이 봉정에 혈을 찔러려고 산을 올라가는 판이예요.

올라가는데 웬걸 산 입구에 탁 다다르니까 말이지 그, 마 여름철이었던 모양이죠.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면서 갑자기 뇌성 벽력이 들이 내려치는데 울산 저 우는 산에, 울려 가지고 말이죠. 찌릉찌릉하는데 인제 막 아주 몸이 오싹오싹할 정도로 대단한 소리가 나드라 이 말이죠.

그래 가지고 그 험한 길을 그 올라가느라고 무한한 애를 썼어요. 애를 써 갖고 그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사방을 살펴보니 아주 산이 말이여. 성역하고 신선하고 말이지.

“이런 풍치 속에서 역적이 날 리가 없다. 이 명산인데 이 명산에서 어떻게 역적이 나느냐?”

그래 가지고 정철이가 그 당시에 그 올라가면서 아주 고생을 해서 답답한 마음으로서 내뿜은 말이

“에, 설악이 아니라 벼락(벼락)이구, 구경(求景)이 아니라 고경(苦境)이고, 봉정(鳳頂)이 아니라 난정(難頂)이라”

어렵다 그렇게 일화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며칠 쉰 다음에 이러한 성역이고 명산에서 역적이 날 리가 없다.

그리고 정철이가 돌아가면서 그 에, 세 번째 들어와서 고생을 해서 그 답답한 심정으로서 내 뿜은 말이 바로 그건데, 그래서 이제 천후산 그 천후산이 그 뇌성이 치고 하면 다른 산보다 많이 울리고 우는 것이 이 설악산 그래서 우는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앞으로 이 천후산은 그 원 고명(古名)을 그대로 인제 앞으로 밝혀 주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현영, 남·54, 중앙동, 1981. 4. 27>

【전설58】

□ 울산바위와 의덕장사

울산바위는 일명 천후산(天吼山)이라고도 합니다. 하늘 천(天)자, 사자 울음 후(吼)자, 하늘에서 사자 울음소리가 난다고 천후산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울산 바위는 사방이 절벽으로 나는 새도 면하기 어려운, 6개의 봉으로 이루어진 영동에서 으뜸가는 돌산입니다.

울산바위 중허리에 구름이 덮혔을 때는, 밑에서 이렇게 쳐다 보면 일견, 연못에 연이 막 피어오르는 듯하다 하여 연화반개산(蓮花半開山)이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큰 대숲을 뒤엎어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울산 바위는 지금까지 한 얘기는 유래고, 전설로는 경상남도 울산군에 있던 바우지, 여기 있던 바우가 아닙니다. 여기 바우가 없었을 적에는 평야 비슷하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불교가 세계적으로 처음에 번성하기는 저 인도에서부터 번성해서 서양으로도 나가고, 중동으로도 나가고 동양으로도 오면서 당나라 동남산, 지상사, 윤재사, 개국사를 거쳐서 금강산 산계사, 유점사, 장안사를 거쳐 금강산에도 들어 왔을때 금강산에는 승려들과 도승들이 많기로 유명했고, 금강산에는 우리나라도 유명해서 금강산에는 천하장사들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금강산 천하장사인 의덕장사라고 하는 장사의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는 금강산 신령인데 너 금강산이 몇 봉우리인지 아니?”

“금강산은 11,999봉이로다. 우리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강산이 한 봉이 없어 12,000봉이 되지 못했대는 것은 분하기 한이 없으니 너는 이유를 막론하고, 어디서 한 봉우리를 갖다가도 채워 놓도록 해라. 만약 너가 안 채워 놓으면 너의 신상에 해로울 것이다.”

깨보니 꿈입니다. 그래 의덕장사가 가만히 앉아 꿈을 생각해 보니 이 꿈을 보통 꿈이 아니예요. 앉아서, 누워서 세월을 보내다가, 산신령께 벌을 받아 죽어도 죽을 꺼고, 그저 힘이 천하장사니 어디 가서 한 봉우리를 훔어지고 가다가 힘에 지쳐서 죽어도 죽을 꺼고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에라, 어디가서 한 봉우리를 훔어지고 가다가 힘에 지쳐 죽는 것이 우리 남아일 것이다.”

그러면 남북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북쪽에는 산악지대가 많이 있으니 북으로 가면 마땅한 봉우리가 있겠지. 그래 북으로 가면서 살살이 더듬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더듬으며 찾아 봐도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고 마땅한 봉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북에 없으니 어짜피 남으로 더듬어 보자. 남으로 내려오면서 약 한 보름 동안 더듬어도 마땅한 데가 없어요, 마땅한 봉우리가. 그러니 마지막으로 경남 울산에 가 보겠다고 울산을 가니 저렇게 커다란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래 그 바우를 보니 바우는 명 바우예요.

그래 의덕장사가 울산에서 바우를 짊어지고 금강산에 한 봉을 채우러 짊어지고 가는데, 가다가 무거워서 쉬어 갈라고 생각해 보니 만약에 내려 놓았다가, 짊어지지 못할 우려성이 많으니깐 내려 놓지를 못하죠. 먹을 것은 없죠, 자지도 못하고 땀은 비오듯 흘러, 오줌 똥도 마려워도 오줌 똥도 걸어가면서 바지에다 싸야되고 땀에 젖어, 오줌 똥에 젖어 냄새는 나지만 냄새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때까지 금강산에 쳐다 놓겠다고 결심을 한 사나이다. 그래 밤낮을 가리지 않고 15일 동안 거쳐서 짊어지고 오는데 양양 고을이라는 데를 지나오게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금강산이 얼마 멀지 않으니 없는 힘을 더 내서 지고 가야겠다고 결심을 먹고 지나가는데, 나그네가 어디서 험레벌떡하고 뛰어 오더니만 하는 말이,

“장사님, 그 큰 바우를 어디로 뭐 할라고 짊어지고 가십니까?”

“이 바우는 금강산에 한 봉을 채우러 짊어지고 간다.”

“금강산은 만 이천봉이 다 확보되었으니 그 바우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다 놔 두십시오.”

“아 그래, 그럼 여기다 놔 두어야겠구나.”

15일 동안 무거워서 쉬지도 못하던 바우는 갑자기 내려 놓는다는 것도 큰 고민입니다. 그러니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짊어지고 서성서성하다 그냥 내팽개치고 장수는 자기 갈 데로 갔죠.

그래 이 바우가 가만히 생각하니 아주 패섬하고 분해 죽겠어요.

왜 분하고 패썹하냐, 그래 인제 가만히 놔두지도 않고 패댕겨쳤으니 어찌 분한지 통곡을 하고 앉아 울다 지쳤다, 울다 지쳤다.

나중에 울음이 안 나오니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 아주 패썹해 죽겠거든요. 차라리 경상남도 울산군에 그냥 놔뒀더라면 그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주민들이 가끔 올라와 하는 말이,

“그 참, 놀기 좋다, 명승지다,”

그 누차에 걸쳐 그런 소릴 많이 들어 대 환영을 받았지요. 그러나 금강산의 봉우리로 간다기에 더 좋던 바위가 금강산에 가지도 못하고 첩첩산중 두메산골 사람도 살지 않는 두메산골에다 가만히 놔두지도 않고 패댕겨 쳤으니 어찌 분한 지, 울상 바위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바람이 불어 올때면 심산에 사자가 우는 듯하게도 울려오고 있습니다.

<유만석, 남·50, 설악동, 1981. 4. 17>

【전설59】

□ 장재터 이야기

옛날 이 지역에 장재라는 아주 유명한 부자가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날 그 부자의 집에 스님이 찾아 왔는데, 그 스님을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 스님이 화가 나서 돌아간 후 비가 아주 많이 내려서 그 부자의 가족과 집, 그리고 가축들이 모두 떠내려 갔다고 하네요. 이 마을 뒷산에 아직도 장재라는 부자가 살았다는 집터가 남아 있는데 몇 년전에는 거기서 장재의 것으로 보이는 유물도 나왔다고 해요. 그로 인해 그 마을이 지명이 장재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갑수, 남·61, 설악동, 1999. 12. 6>

【전설60】

□ 장천마을의 음양수

이 마을 뒷산우물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와요.

물에도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해요. 여자물은 맑고 남자물은 뿌옇다고요.

한 우물은 맑아서 여자샘이라 불리며 또 하나는 남자의 샘이라 해요. 우리 나라 전통 사상에는 모든 사물이 음과 양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물에도 이와 같은 이치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재동, 남. 58, 장천, 1999.12.1>

【전설61】

□ 장천마을의 인심

장천마을에 아홉해 동안 흉년이 들던 시절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거지나 다름없이 유리 결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1년만 흉년이 들어도 소작농들에겐 어렵디 어려운 한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 9년간이나 이어졌다고 해요.

마을에 큰 부자집이 있었지요. 아무리 흉년이라해도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데 떡은 해가야 하므로 두 세 가마나 들여 떡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것도 가을이 아닌 봄(보릿고래)이었다고 해요.

그때 산에서 아기를 낳고 허기가 켜 아기가 강아지로 보이고 요강이 가마로 보여 아기를 삶아먹었다고 하는 미친 거지가 그

부자집을 지나다가 떡을 치는 것을 보고 그 떡에 달려가 넙죽 엎드려버렸다고 해요.

그 거지 몸에는 이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 떡을 사돈집에 보낼 수 없게 되었다고 해요. 또다시 두 세 가마를 들여 떡을 만든 후 사돈집에 보내고 더러워져 버린 떡은 모두 그 거지에게 주었다고 해요. 때려죽여도 마땅한 그 거지에게 말이지요.

그 어려운 시절에도 자기보다는 사람을 중히 여겼다는 이 마을의 구수한 민담이 마을에 전해내려 온다고 합니다.

<어재동, 남·58, 장천, 1999. 12. 1>

【전설62】

□ 장천 유래

장천리(獐川里)는 500년 전쯤부터 있었다고 해요. ‘노루 장(獐)’은 마을 서쪽 원암리(元岩里)로 넘어가는 노루목 고개에서 유래한 것이예요.

마을 앞 냇가가 노루목 고개에서 시작되어 흐름으로 노루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여 장천(獐川)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후에 지금부터 70~80년 전에 엄씨 가문에 진사가 나자 마을 이름에 ‘노루 장(獐)’자가 있는 것이 노루가 있으면 재수 없다고 해서 ‘노루 장(獐)’을 ‘글 장(章)’으로 바꿨다고 전해와요.

<어재동, 남·58, 장천마을, 1999. 12. 1>

【전설63】

□ 저항령 취봉당 산삼터

여기 저항령에 올라가면 취봉당 기도터란 데가 있어요. 거기 메를 우리가 그전에 많이 다녔어요. 산 삼칸다고. 오래 전에 신흥사에 취봉당이란 스님이 있었던 모양이래요. 그래 취봉당이란 게 승명이겠지요. 근데 그 양반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한 모양이래요.

이 너머 갈골이라고 하는데 지금 노학동, 척산 여기를 옛날 목우재로 걸어 넘어 땡기면서 부녀자를 농락하고 이런 짓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 못되게 하니까 주지 스님이 내쫓아 버렸어요. 어디가서 죽든지 하라고.

그래 낙산산에 가니까 낙산사 주지 스님이 그걸 알구서 ‘이 못된 놈’이라고 쫓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인제 뭐 갈데 올데도 없고 하니까 그 배낭에 쌀을 짚어 인제 저항령을 넘어서 백담사로 간다고 가다가 날은 저물고 이래니 그만 길을 잃어 가지구 헤매고 이리다가 산 중턱에 가니까 굴이 있어서 거기서 잔 모양이에요.

거기 보니까 굴이 있고 물이 있구 좋거든요. 그래 ‘에이 여기서 기도나 드린다’하고 ‘내 못된 짓한 거 속죄하고 기도나 드린다’고 기도를 드린 모양이에요. 그래 기도를 착실히 드렸던지 하루저녁에는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구,

“너, 이눔아, 여기서 자빠져 자지만 말구 서리가 내일 모래 올텐데 저 무를 뽑지 않고 어떡할라냐?”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꿈이거든요. 그래 저 앞마당이라고 그래 더래요. 고 취봉당 기도 드리는데 바위 바로 옆에 팬팬한 데가 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거기 나와 보니까 모르는 풀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 파보니까 산삼이더래요. 그래 많이 캔 모양이에요. 그래 거기서 캐놓고 잠을 잤는데 꿈에 그 할머니가 또 와가지구,
 “너, 이놈의 자식 욕심도 없다. 이 단지무는 내가 가지고 간다. 단지무는 내가 가지고 가니 내일 당장 나가라.”

그래 이튿날 아침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자기가 심 캔 위에 아주 진짜 무 뽑은 자리 같은 게 쑥 빠진 게 있는데. 거기 막상 새끼심이 많더래요. 그래 많이 캐 가지구서는 이래 가지구는 갖다 팔아 가지구 어느 절에 내고 다시는 나쁜 짓을 안했다고. 그래서 취봉당 기도터 기도터 하는데, 그런데가 저항령 가다보면 있습니다. 단지무는 모양이 단지처럼 크구. 그건 옮겨다는 산삼이랍니다.

<문광록, 남·65, 도문동, 1991. 5. 4>

【전설64】

□ 척산의 유래

척산지역의 명칭 같은 경우 자 척(尺)자에 퇴산(山)자를 쓰거든요. 어떤 척도를 잴다, 관측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군사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관측소로 위치했다는 유래도 일설에 있어요.

해군기지가 대포항에서 있으니깐 그쪽과 연계해서 그쪽 지역이 넓고 이 쪽 해안에서 들어오는 어떤 여러 가지 외적이라든가 또는 그런 부분들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관측소가 있다는 측면에서 척산 마을 이름을 자척(尺)자를 쓰고 퇴 산(山)자를 써서 척산마을 이렇게 하기로 했었고 유래는 그렇게 되요.

그 다음에 대포항에 수군병영지가 있었다 그랬는데 이쪽 노리 지역에 ‘수군만호유호’라는 게 있었어요. 유호라고 얘기는 그 해군장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머무는 관사 같은 곳인데 그곳

이 아마 노리에 있었다는 그런 것도 있고 이쪽지역은 대포항과 연계해서 군사적인 측면에 강이 높아서 실제 또 노학이라든가, 만천동이라든가 동리의 특성 노학동은 갈대가 많은 마을이고, 갈대가 많은 동네라서 갈골마을이라고 그거하고 유사하게 척산마을을 제가 설명해서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명명이 되어진 그런 것이고 이목리 같은 거나 도리원 같은 경우는 그쪽의 일부 마을입니다.

<김철환, 남·37, 노학동, 1999. 11. 20>

【전설65】

□ 청대리소나무

옛날에 청대리에 큰 소나무가 있었어. 웅장하고 굵기도 크고 가지가 많은 소나무여서 사람들은 그 나무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제사도 드리고 가축을 죽여 재물로 바쳤지.

헌데 한 사람이 그날 그분 나쁜 일을 당해 술을 먹고 만취해 그 소나무가 서 있는 길을 가다가 뭔가 앞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도끼로 그 나무를 한번 내려치니 그 나무는 천둥번개와 함께 울부짖는 소리를 내면서 쓰러졌어.

그 소리에 놀란 그 사람은 도끼를 던져 버리고는 황급히 집으로 달아났는데 그 다음날 그 나무를 벤 사람은 갑자기 벼락을 맞아 죽어버리고 한동안 청대리에는 불행이 찾아 왔다고 전해. 그 후로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불행이 멈추었다고 전하지.

<장명석, 남·56, 조양동, 1999. 12. 7>

【전설66】

□ 청대리의 전설

청대리는 속초에서 조양동에 속해 있으며 청대산(해발 230m)을 끼고 있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은 다른 마을들과는 달리 남향이 아닌 북향을 하고 있어 아주 특이한 곳이라 할 수 있지요.

원래 청대리라는 이름은 6.25사변 당시에 붙였던 이름이고 지금은 조양동이라고 불러져요. 청대리라는 말은 최근 들어 잘 사용하지 않아요. 청대리에는 보기 드물게 아직도 상례를 치르는데 마을이 그리 크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서로서로 알고 지내기 때문에 다 같이 슬퍼하고 상을 당한 가족도 위로해 주는 인심좋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전설로 살인재는 나중에 싸리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 살인재는 고개 이름인데 이곳에서 산적들이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행인을 습격해 물품을 빼앗고 살인을 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지요. 나중에는 전쟁시 왜군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곳에서 많은 살인이 있었고 그 때문인지 원한을 가진 귀신들도 나왔다는 소리도 있어서 그곳을 사람들은 잘 왕래하지 않았고 산적들도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소리가 있어요. 지금은 싸리재라고 불리우고 싸리재 중간에 약수터가 있어 사람의 왕래가 많아요.

송장골은 싸리재에서 죽은 사람들을 묻어둔 곳이라고 전해요. 예전에는 무덤과 시체들이 많아 가끔가다 곳곳이 무덤이 있고 사람을 한꺼번에 묻은 흔적만 있다고 해요. 지금은 그곳은 등산로도 쓰여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데 옛날에 이곳 역시 귀신이 나와

사람을 해 하기도 했다고 전해와요. 싸리재에서 아무 이유없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이 떠돌아다닌다고 전해지고 있어 이 때문에 이름도 송장골이라고 붙여졌다고 합니다.

아랫고개는 옛날부터 무서움의 대상이기도 했던 곳이에요. 어디서 유래되어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곳으로 상여가 지나가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친다고 하여 그 고개로 가지 않고 빙 돌아서 나갈 정도로 무서운 길이었어요. 그 이유로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꺼려했는데, 한동안 그랬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요. 하지만 지금도 상례는 그곳을 지나가지 않는다고 전해요.

<장명석, 남·56, 조양동, 1999. 12. 7>

【전설67】

□ 청초호 용경(龍耕)

청초호에 대해서는 청초호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경이 나오는가 하면은 청초호가 또 한가지는 옛날에는 그 겨울에는 호가 얼습니다. 어는데 얼음을 보고서 그 다음해의 농사를 풍흉을 그 점쳤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얼음이 어는 것이 꼭 논을 갈아 논 것같이 그런 얼음이 었습니다.

그걸 갖다고 용경(龍耕), 용갈이, 용이 논을 갈아 놓았다는 뜻이 용경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인제 그 용경이 누워 있는 방향을 보고, 그 해에 농사가 잘 되겠다 못 되겠다 하는 것을 아마 점쳤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청초호이면서 이 청초호는 앞으로에 우리 속초로 봐서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쪽에 남을 향해서 갈아 났을 때 풍년이 들

고, 북으로 향해서 엇갈리로 갈아 놓았을 때는 흉년이 든다. 그래서 남북을 나눠서 길흉을 점쳤어요.

<장현영, 남·54, 중앙동, 1981. 4. 27>

【전설68】

□ 청초호와 민속

청초호를 쌍성호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쌍성호라 했나하면 영랑호하고 청초호하고 호수가 둘이기 때문에 쌍둥이 이기 때문에 쌍성호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청초호 호수 가운데 청룡이 살았다 해서 청초호라 하고 영랑호는 황룡이 살았다 해서 황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영랑호라면 기록에 엄연히 영랑(永郎)이란 게 남아있고 또 이쪽은 쌍성호라고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같은 호수인데 영랑호는 이미 이름을 얻었고, 청초호는 이름을 못 얻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청초호에서는 무슨 놀이가 있었나 하면 논뉘호의 불꽃놀이, 논산을 우리말을 하면 논뉘가 됩니다. 뉘 산(山)자니까 지방사람들이 그 당시에 청초호를 논뉘호라고 불렀다 이겁니다.

그런데 옛날 봉건시대에는 높은 사또가 부임하면 지방사람들이 그 사또에게 잘 보일려고 환영식을 하는데 여기서 해 왔다는 것입니다.

해왔는데, 남궁억 선생 때까지도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남궁억 선생(1863~1939) 그 다음에 최모 씨던가

그 양반때 일본에 우리나라를 빼앗겼거든요. 그래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냐하면 그런 불꽃놀이 하다가 빠져 죽은 익사사고가 생겼다. 그래 없어졌는데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 일본사람들이 우리의 풍속을 없애려던 차에 호기가 됐고 한가지는 여기 용암이란 바위가 있었답니다.

그 길이가 구척이나 된다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남궁억 선생이 4월 초파일에 이 지역사회분들과 거기서 술을 나누면서 얘기를 했다. 일본사람들이 쓴 글이니까 주연을 베풀었다. 그래서 청초호가 한층 더 이름이 높아 났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바위를 항구를 만드느라고 그 바위를 깎습니다. 박상희란 분이 청초호를 개항하기 전까지만 해도 바다 게가 얼마든지 많았는지 사람들이 가을철만 되면 밤에 횃불을 켜들고 쪽 와서 게를 잡느라고 불야성을 이뤘는데 요즘에는 오징어 배가 불야성(不夜城)을 이루듯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배가 다리역할을 했다 해서 주교(舟橋)라고 저 쪽 부월리를 주교리라 불렀답니다. 그런데 소야팔경 중에 주교야화(舟橋夜火)란 말도 그때 그 불이 아주 꽃같이 밤에 피니까 주교밤꽃이라고 소야팔경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참 뭐니까? 옛날보다 기후가 좀 뜨서져서 그렇지 옛날에는 30년전만 해도 청초호가 많이 얼었습니다. 얼때 바람이 심하지 않습니까? 양강지풍(襄江之風:양양·강릉은 바람이 심함)이라해서 바람이 심하니까 그 얼때 마치 파도 물결이 치듯 바람이 부니까 눈밭을 갈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용경(龍耕), 용갈이라고 불러왔답니다.

【전설69】

□ 청호동 갯배

갯배가 여기 피난민들이 많이 정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처럼 생겼고 이 뒤로 육지로 돌아 갈라카면은 한 10리, 15리 거리가 되니까, 그리 거기서 보면은 불과 한 100m 거리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갯배를 마련해 가지고 줄을 땡겨 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은 시내에 아주 쉽게 갈 수가 있거든.

그거가 여기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부터 생긴건데 언제쯤 될까? 53년, 그러니까네 여기에 피난민들이 집결되서 살고 하나니까네 한 60년대 뭐 그 즈음에서 아마 갯배가 마련됐을 거야

<황화수, 남·75, 청호동, 1999. 12. 4>

【전설70】

□ 청호동 성황제

성황당은 요가면 있는데 조 앞에 가면 바닷가 쪽에 조 높은 산 위에다 있잖아 낫는데, 성황당이란 거는 옛날 고래 풍습이지. 신을 믿고 그 성황당이라는 거는 이 육지에 사는 사람들도 성황당신을 많이 믿어.

“그저 고기라도 많이 잡아주쇼”

하고 1년에 한 두 번씩 거기에 가서 제사를 모셔.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게 성황당이야. 1년에 한 번씩 거기에서 제

사를 모시고 그러지.

옛날에 도감도 맡아보았는데, 옛 풍습에 의하면 성황제라 하면 주로가 전체 동민들이 모여가 하는 기 원칙이지마는 여기에 당시에 풍습으로 보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을 경영하는 선주들이 돈을 내고, 제물을 갖추고 굿도 하고 소도 잡고, 옛날에는 두마리씩 잡고 했는데, 거기 동 전체의 부담은 아니었어요. 그런 형태로, 어업을 경영하는 선주들이 주로 돈을 모아서 지냈지요.

<황화수, 남·75, 청호동, 1999. 12. 4>

【전설기】

□ 청호동 유래

왜 청호동이라고 하는냐 청호동이 말이지 앞에 이 청초호가 있잖아 청초호를 이렇게 움싸고 있으니까 맑은 호수를, 푸른 호수를 가지고 있다 이래서 청호동이라고 아마 이름이 붙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여기에 전부가 반도처럼 생긴 일종의 속초지역을 봐서는 반도 형태지마는 일종의 섬과 같이 좀 거리가 시내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면이 있어서.

그래 저 갯배가 댕기고 그 동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여기가 백사지 땅이고 국유지인데 피난나온 사람들이 고향을 빨리 갈까 해가지고 38선 가차이에 혹 빨리 수복이 되면은 찾아가까 해서 또 이북에서 바닷가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기가 고 순간 이래도 살라면은 아는 직업을 택해야 되고 바닷가에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여기 와서 바닷가에서 뭔가 종사를 해야 생계유지가 되니까 고기잡이가 주축이니까 여기 와서 고기잡이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바닷가에 여기에 정착을 한 거지. 그래서 여 청호동이라는 곳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집결되어 가지고 살다보니까네 여기 주로 함경도 분들이 많고, 이래서 한때는 ‘아바이 마을’이라고 했어요.

이 ‘아바이’라는 것은 함경도에 가면은 영감님이라든가 나이 먹은 사람을 ‘아바이’라 이러카거든. 그래 ‘아바이 마을’이라고 호칭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거야

<황화수, 남·76, 청호동, 1999. 12. 4>

【전설72】

□ 파명당(破明堂)과 학사평(鶴沙坪)

명당자리를 아주 그 처음에 명당자리를 제대로 잡았는데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잘못해 가지고 파명당을 만들었다 하는 문젠니다. 근데 그게 지금 위치가 어딘가 하면 척산, 척산서 지금 현재 달마봉으로 연결하는 그 한 산능선이 되겠습니다.

그게, 가면 지금 서울대학 산장이 거게 있지요. 거 산장 거계서 조금 올라가면 그 구릉 있는 데로 쭉욱 올라가면 그 능선이 파명당지가 있습니다. 그래 가게 올라가 보면 상당히 위치가 좋아요, 지금도 보면.

그래서 그 명당을 어떤 지관에 의해 가지고 그 명당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옛날 그 산주가 상당히 그 겨울에 사냥하는 것을 상당히 즐겼답니다. 사냥하는 것, 그 수렵을 상당히 즐겼는데 그 친구 세 사람이 같이 그 겨울에 수렵을 하러 나갔는데 다른 그 능선은 눈이 잔뜩 쌓였는데 그 위치만은 눈이 녹아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니까 이 사람들이 스이서 거계 앉아서 담배를 한 대 피우

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다른 지역에는 전부 눈이 있는데 이 지역만은 눈이 녹았으니 이걸 분명히 명당지리다 이 말이야. 그래니 우리가 이 자리를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세 친구 중에서 누가 먼저 죽던 시간에 먼저 죽는 사람이 이 자리에 묻히기다.”

그래 약속을 했던 거란 말이야. 그 한 사람은 산주입니다, 산주. 그래 인제 거 이 얘기를 하고 돌아갔는데, 그 참 몇 해 지나고 난 뒤에 공교롭게도 말이지요 그 산주가 먼저 죽었어요. 그래 산주가 죽어서 그 자리에다 갖다 묘를 쓰게끔 그 친구들이,

“우린 묘터 봐 놓은게 있으니, 그 아버지가 원한 자리고 하니까 그 자리에 갖다 묘를 써야 한다.”

이래 가지고 인제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 묘를 썼단 말입니다. 묘를 써 놓고 난 다음에 참, 우찌 됐던지간에 그 뭐 가정에 말이야 참, 붙은 것은 없지만 또 망한 것도 없고 약간 그, 그래도 뭐인가 나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가지 여자들이 딸이 낳으면 그 딸들이 팔자가 세 단 말이야. 그래 한 번은 가만히 그 딸들이 어데 가 점을 해 보니까 그 묘자리가 말이야. 너무 역세서 말이야. 남자들은 그 가정에 잘 되지만 여자들은 그 팔자가 역세단 말이야.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니까 이 딸네들이 말이야 남자들만 잘살라고 그런 자리에 묘자리에 묘를 써 놓고 우리 딸네들은 완전히 만날 그 과부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말이야, 그래니 안 되겠으니까 이 묘자리를 옮겨야 하겠다. 그래 인제 딸네들이 냅다 우기니 아들네들이 가만히 생각하니 사실 그렇거든요. 자기네들만 잘 살겠다고 여형제간들은 만날 망하도록 봐 둘 수만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 그 묘자리 나쁘다면은 우리 옮겨 보자.”

그래서 인제 사람을 다리고가 가지고 묘를 팠단 말입니다. 묘를 파니까 아, 정말 봉분을 다 파 가지고 관이 드러날까 하니까 학이 두 마리가 나오드립니다.

학이 두 마리 날라 나와서 한 마리는 북쪽을 향해서 날아가고 한 마리는 남쪽을 향해서 날아갔는데, 북쪽을 향해 날아간 학이 어데 앉았나 하면 지금 학사평(鶴沙坪)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지금 대학 짓는 그 건물 거개가 학사평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모래밭이에요. 이 노학동을 옛날에 갈골, 갈밭이라고 했었는데 이 영랑, 청초호가 물이 그꺼정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 기 갈골입니다.

그래서 그 우에가 학사평인데 모래밭입니다. 거개 인제 학이 내렸다 해서 학 학자에 모래사자를 써서 학사평이라는 이름이 되었고, 남쪽으로 날아간 학은 지금 저 손양, 양양군 손양면에 가면 학포리(鶴浦里)라고 있습니다. 그 학포리에 앉았다 해서 그 학포라 했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러나 나중에 그 고지명(古地名)을 보면은 그 학포리는 그래서 학포리가 아닌데 마, 그러한 전설이 한 면 있지요.

그 다음에 노학동, 노학동이라 명명이 된 것이 옛날 그 노동입니다. 갈골인데 갈골과 학사평이라는 학자와 그 다음에 갈골 노동의 노자를 따 가지고 노학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치는 바람에 노학동이라 하는 이름이 나왔지요. 그래서 그 파명당에 얽혀서 그 하나 생겼는데 이름이 합쳐가지고 우리 속초의 고유 동명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의 파명당에 대한 전설로서 이쪽에 학사평이라는 말은 그 비슷한 점이 수궁이 가는데, 손양면 학포리 문제는 전연 수궁이 가지않는 얘기가 되긴 합니다만 전설은 전설이니까...

【전설73】

□ 하도문의 지명유래

하도문동 마을 내에서 마을 곳곳마다 불리는 이름이 있어요. ‘건너말’은 하도문 입구에 있는 마을이며 양짓말에서 보면 마을 중간에 있는 작은 개울로 건너편 (남쪽)마을이고, ‘고양터’는 마을 서북쪽 골짜기로 과거에 고(高)씨와 양(梁)씨가 살았는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해요.

‘방축골’은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가두어 두었던 곳이라 이렇게 불려온 것 같은데 지금은 저수지가 다 메워져 있고, ‘선녀골’이란 선녀가 내려왔던 곳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 같은데 마을 뒷간에 있는 골짜기로 지금은 환한 느낌이 들어요. ‘골논’은 마을 뒤 고양터 동편 골짜기, ‘괴골’은 마을 뒤 골논 동편 골짜기지요. ‘신문터’은 하도문과 중도문 사이에 있는 작은 둔덕인데 우리나라를 다시 찾은 기념으로 세운 ‘수복탑’이 여기에 있어요.

‘양짓말’은 산기슭 밑 양지쪽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데 이 집이 옛날 이 마을에서 세력을 휘둘렀던 함평 이씨의 집이라서 마을에서 가장 좋은 곳에 집이 위치해 있었던 것이지요.

‘송정리’는 솔밭 마을이란 뜻인데 예전에 하도문을 부르던 이름으로 큰 소나무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소나무가 많지 않은 것은 일제시대때 모두 베어가서 그래요.

<김근수, 남·78, 하도문, 1999. 11. 23>

【전설74】

□ 학사평의 풍수지리

옛날에 친한 친구 셋이 있었어. 그 친구들은 사냥을 꽤 좋아했지.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풍수지리를 볼 줄 아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 그래 사냥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 딴 곳은 다 눈이 쌓여있는데 한 곳만 눈이 쌓이지 않는 거야. 그래 이 풍수를 보는 친구가 “다른 곳은 다 눈이 있는데 이곳에만 눈이 없으니 이곳이 명당이야, 그래서 우리들 중 먼저 죽는 사람이 이곳에 묻히기로 하세.” 하는 거여.

아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친구들 중에 하나가 죽어서 그 자리에 묻히게 되었지. 그 때문인지 그 죽은 친구의 자손들은 번창하게 되었지. 그런데 죽은 친구의 자손들 중 여자들은 팔자가 너무 세단 말이야. 그래 점을 보니 묘자리가 나쁘다는 거야. 그래 자손들이 묘자리를 옮길려고 했어. 그런데 묘를 파니까 말이야 갑자기 묘자리에서 학이 두 마리가 나오는 기라. 한 마리는 북쪽으로, 한 마리는 남쪽으로 날아갔지. 그 중 한 마리 학이 땅에 잠깐 앉았어. 그 땅이 지금의 학사평이지.

<이성철, 남·82, 영랑동, 1999. 12. 17>

2. 구전민담

【민담1】

□ '꼭'한 이야기

예전에 그, 저, 나이 육십 먹은 노총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아무튼 장개(장가)들기를, 아주 최고 원하는 게 장개 드는 것이 소원이예요. 그리고 좀 모자래요.

사람이 만날 그냥 때, 때, 때하고 '더풀 더풀 똥더풀'이라고 부락에서 인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부락이 그 부락이 어떻게 됐나 하든(하면)부락이 이쪽에 하나 있다고 하면 저쪽 저쪽 한 3km밖에 안 되지만 똑바로 보이지 않고 가다가 산이 이렇게 돼 가지고 산모퉁이 이리해서 착 기억자 모냥 꺾어져서 고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쪽 부락에 한 100여 호 살고, 저쪽 부락에 한 80호 살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부락에도 왔다 저쪽 부락에도 갔다 저 부락에도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똥더풀이라고.

근데 이거 그전에는, 지금은 신발들이 많지만 그전에는 와라지라고 짚세기를 삼아 가지고 신고 땡기는데 이렇게 보니 질(길)이

곧장 이렇게 나 가지고, 카부선에는 서당 나무가 하나 있고 서당 나무 지나 가지고 곧장 이렇게 부락이 들여 보이고 곧장 질이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 먼데서 보니 아주 서낭 낭그 있는데 아주 어여쁜 아가씨가 아주 알뜰 알뜰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짚세기를 벗어 들고 살살 아주 이러 헉 소리가 안 나게 이렇게 가기 그 서낭 나무 커브가 이렇게 기억자처럼 꺾어졌으니까 꼭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거기서 어여쁜 아가씨가 오줌을 누고 있었는데 바로 그 커브가 박하고 보니 오줌누는 그 뒤에 바짝 가서 스게 됐어요.

그래 여자가 오줌 누고 있으니까 환장해 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콧’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렇게 쳐다보니까 총각이거든요. 백살 먹었어도 총각은, 열 살 먹은 아가씨가 시집을 갔어도 총각은 무조건 반말을 해고 총각한테 반말을 해야 해요. 그리고 총각은 언제든지 어른한테는 쪼그마한 나이가 적어도 존대를 하고 이렇게 되는 세월인데,

그러니 총각, 아가씨가 둘러다 보니까 총각이거든, 총각이니 만만하거든.

“당신, 왜 나 오줌 누는데 ‘콧’했소?”

“내가 언제 당신 오줌 누는데 ‘콧’했소?”

“당신, 내 오줌 누는데 ‘콧’안 했소?”

“내가 언제 당신 오줌 누는데 ‘콧’했소?”

이랬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거기서 콧콧, 콧콧하고 서로 싸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새닥은 시집온 지 삼일 밖에 안 됐는데, 자기 신랑이 금방 갔다 온다고 갔는데 안 오거든요. 한 시간, 두 시간 되어두. 아, 그래 왜 안 오나 하고 거기 가서 보니까, 가며 들으니까,

“당신, 내가 오줌 누는데 ‘콧’안했소?”

“내가 언제 당신 오줌 누는데 ‘콧’했소?”

“당신 내가 오줌 누는데 ‘콧’안했소?”

“내가 언제 ‘콧’했소?”

그러거든 그러니 신랑이 갔으니까 아, 총각 놈이 만만하거든.

“이거봐, 당신 왜 우리 마누라 오줌 싸는데 ‘콧’했소?”

“내가 언제 당신 마누라 오줌 싸는데 ‘콧’했소?”

“당신이 우리 마누라 오줌 싸는데 ‘콧’했다는데?”

“내가 언제 당신 마누라 오줌 싸는데 ‘콧’했소?”

거기서 또 둘이 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만날 싸워 봐야 어디 해결도 안 되는 거고…….

그래 인제 신랑 녀석이,

“이리와.”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지요. 그전엔 포도청이라고 했는데.

“이리와.”

그래구선 그 총각은 60먹은 총각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서 그래 인제 경찰서에 들어 가니까 경찰관들도 많고 인제 숙직도 하고 많이 있었는데 인제 데리고 들어 갔어요.

“당신들 왜 오셨습니까?”

하구 경찰관이 하니까,

“다름이 아니고 이 사람이 우리 마누라 오줌 싸는데 와서 ‘콧’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 마누라 오줌 싸는데 ‘콧’했소?”

“당신 우리 마누라 오줌 싸는데 ‘콧’안했소?”

“내가 언제 당신 마누라 오줌 싸는데 ‘콧’했소?”

거기서 그 안에 들어가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암만 수사 기관이구 죄인이 들어 와서 그러는 데도 아, 우스워서 견딜 수가 없으

니까,

“빨리 빨리 나가. 누가 오줌 싸는데 ‘콧’했소, 지랄하고 자빠졌어 들, 빨리 빨리 나가라.”

그래 내쫓았습니다.

그래 총각은 처녀 오줌 싸는데 콧콧해도 팬찮데요.

<유만석, 남·50, 설악동, 1981. 4. 17>

【민담2】

□ 고려장과 부모마음

우리가 옛날부터 고려장, 고려장 하지 않습니까? ‘인간칠십고래희’라고 해서 고려장 했는데 옛날부터 고려장 할 때는 부모님이 칠십만 되면 병이 없어도 산에 갔다가 생매장했다는 뜻인데.

에, 하루는 어떤 사람이 자식이 어머니를 지게에다 지고선 깊은 산 중에다 갔다 파문을라고 지고 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엔 토끼길만한 그런 길인데 그래 첩첩산중에 고려장 할라고 지게다 어머니를 지구선 갖는데, 어머니가 가면서 지게 꼭대기서 낭구까치를 대구꼭구선 가더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참 이상하다 하구선 그 담에 물을 장소에 가서 어머니를 널쿠 놓구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나,

“나는 이왕 죽는데 니가 지금 걸어온 길을 니가 집에 찾아 갈라면 못 찾아 갈끼다. 그러니 내가 낭구까치 꺾은 고것만 찾아가면 집에 갈터이니까, 그래서 니가 집에 못 찾아갈까봐 질을 찾으라고 낭구까치를 꺾구서 왔다.”

그거 한가지로 부모는 당장 땅속에 자식이 묻을 라구 가는데도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애처러워서 집에 잘 돌아가라고 일일이 낭구까치를 꺾어서 방향을 제시해 줬다는 얘깁니다.

<김용구, 남·68, 동명동14/2, 1992. 3. 27>

【민담3】

□ 구렁이가 된 총각

옛날에 총각, 처녀가 살고 있었지. 총각은 처녀를 짝사랑하고 있었지. 그러나 처녀는 청년이 싫었어. 그래 청년이 처녀에게 고백했지만, 처녀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병이나 그 길로 늙게 되었어. 백방으로 약속을 써봐도 완쾌되지 않는 거야.

결국 청년은 며칠 못 가서 죽고 말았어. 그런데도 처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 청년은 죽어서 구렁이가 되어서 처녀에게 복수를 했지.

어떻게 했냐고? 그건 바로 처녀의 몸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 처녀가 낙산사 의상대에 있는 그네에서 그네를 뛰었어. 구렁이를 몸에서 뛰어 낼려고 그런데도 떼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 결국 처녀는 그네를 뛰다가 그만 밑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지.

<김영임, 여. 70, 교동, 1999. 12. 17>

【민담4】

□ 날개달린 강장군 설화

강장군 이야기가 여기 있지. 강장군은 7대여. 내가 11대구. 내 자랑같아서, 그게 강장군이 어떻게 되고 허니, 두 오누이가 살았다 이기여. 뉘두 힘 좋고 강장군은 총각이지. 여기 나무에 갔다가 그때 배가 크겠수? 고기 잡아오면

“야 강장군이다. 아이구 어떡하누.”

그래 강장군이 고기를 빼앗아 안 주거든.

“에이 강장군은 재수없다.”

그래 그때는 밀주야.

“강장군, 참 내일부터 고기 드릴게. 잡수시우.”

하룻밤 그리구 내일 배가 나가드래. 그때 한 밤중이 되니까, 저 산중에 오리가 이리 번쩍, 저리 번쩍, 그래 가니까 강장군이 다니드라 이기야. 아치멩 떡 보니까 배가 거기 있드라 이기야.

강장군이 언제 한 줄 모른다 이기야. 그래 가만히 있더니 이거 질래 놔뒀다가 나와서 행짜 부릴까봐 ‘이거 안되겠다. 잡아야 되겠다.’하고 술을 잔뜩 먹여놓고 보니까 이쪽에 뭐가 이 만큼 나왔드라 이기야. 날개가.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 놈이 행짜 부릴까봐 술을 잔뜩 먹여 놓고는 숯불에다가 송곳을 달궈 꺾 썰러 죽였다 이기야. 양쪽 날개에다.

그래 사람들이 묻는데, ‘난 죽지 않았는데, 난 죽지 않았는데’하고 들썩들썩 하드라 이기야. 그래 사흘 있다가 용마가 서쪽으로 날아갔어. 그게 전설이지.

【민담5】

□ 또깨불이야기

또깨불은 우리들이 클 때 보았는데 그때에 총각 때에 배를 땡겼거덩. 바다에 나가면 날이 구중중 한 때가 있단 말이여. 그때 가면 바다나가면 불들이 많아. 어떤 때는 큰 배가 불켜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게 또 없어진다 말이여. 그럼 이쪽에서 멀리 또 보이고, 또 이쪽에서 한 참 있다가 그런 불이 나오고, 그걸 헛불이라고 그러지.

영감들이 그러거든 ‘헛불보인다.’ 그런거지, 헛불. 그게 애길 들으니까 바다에서 더러 배가 파선될 수 있잖아. 그런게 저렇게 보이게 한다, 전설이라는게 거저 그런 거지.

우리도 몇 번 보긴 봤는데 날이 구중중할 때 이럴 적에, 날이 흐리고 비가 눈개비같이 오고 그럴 때, 이제 바다에 나가서 며칠 작업을 할 때가 있거든. 그럴 적에 비오는 날도 만나고 바람 부는 날도 만나고 이제 이럴 때가 있지.

맨날 나갈 적마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중에 뭐 불이 밝으니까 헛게 보이는 거지. 60년대에 한 번 본 적이 있어. 밤에 내가 배가 들어오는데 배들이 빛이 없어. ‘저쪽 가세’ 그리고 들어와 가지고 없어졌어.

시간이 없는데 없어진 배가 어떻게 들어왔나 했지. 그래서 난 옛날에 어르신네들 하는 소리를 들었지. 난 미신을 믿고 있어. 작업이 안될 적에 옛날식으로 고사 지내지. 배를 가진 사람이 믿지 않으면 안돼.

【민담6】

□ 동해용왕신 이야기

사람이 바다에 나가서 빠져 죽으면 우리가 혼을 불러서 고사를 할 때 용왕님한테 빌어요.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들어왔다” 어떤 것은 못 찾아가지고 “그냥 어디로 간지 없다” 이러면은 혼은 들어와도 물밑에 있고, 안들어와도 물밑에 가라 앉아 고기가 다 뜯어 먹어도 물밑에 혼이 있고, 그럴 때는 용왕님한테 비는 거야.

아무개 김뉘이, 최뉘이 이름써서 산담 집어넣고 그 사람 혼이 나와 달라고 그것을 사해용왕님에게 비는 거지 뭐. 육지로 환생해 달라고 그저 비는 거여. “어찌든지 좋은 데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지.

혼을 불러올 때는 닭을 넣어야 돼요. 닭을 안 넣으면 그 혼이 안나와. 또 해야되고 하니, 죽은 것은 넣지 말고, 산 닭을 넣어야 돼요. 밥그릇에다가 밥을 딱 떠가지고 뚜껑을 덮어 가지고 매어서 꼬나풀을 길게 하고 닭도 발을 묶어 가지고 질게 해서 똑같이 남자들이 바다에 던진다고.

그러면 우리들은 막 혼을 부르는 거야. “용왕님, 사해용왕님요. 내 명에 죽었는지, 남의 명에 죽었는지, 용왕님 앞에 별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이 불쌍한 중생 혼 좀 육지로 환생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그 닭이 물에서 휘 댕기다가 물먹고 죽으면, 그 혼이 또 오는 거야. 그거 안 넣으면 혼이 나올 수가 없어. 또 하고 또 해야돼. 닭이 숨지면, 그것을 불러내다가 닭을 꼬집어 내다가 땅을 파고 묻어.

손없는 방우에 삼살방우, 나쁜 방우에다가 묻으면 안되고, 손없

는 그 해 손없는 방우에다가 땅을 파고, 그 닭을 묻지. 땅에 묻어. 그러면 그 사람 혼이 나오는 거지. 물밑에 고사는 안하지.

물에 죽은 사람은 그래 곳을 해주고, 또 그렇게 죽은 사람이 없으면 물가에 사는 사람들은 배있는 사람이나 배타는 사람은 바다에 용왕에 나가 잘 차려서 나가서 물결치고 바람 불더라도 아무 탈없이 무사하기를 빌지. 그 다음에는 좀 먹고 살게 용왕님께 재수 있게 해달라고 빌지.

<정춘자, 여·65, 청호동, 1999. 12. 15>

【민담기】

□ 머리 좋은 아들

아버지가 사냥을 갔다가 안 오고 어머니랑 아들이랑 둘이 사는 데, 그 조그만 한 것이 칼만 들고 뭐 그렇게 놀더래. 어머니가 ‘저 애가 커서 뭐가 될려고 그러나’ 하면서 지내기를 하다가 그 아들이 열 살이 넘었대.

아들이 부엌에다 물을 한 동이 길어다가 바가지를 띄우더니 ‘이 바가지가 계속 돌아가면 내가 살아 돌아오고 멈추면 죽은지 알라’고. 아들이 아버지원수를 갚으로 갔고 어머니는 물동이 밑에서 계속 울기만 했다.

아들이 가다보니 한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가다가 보면 산딸기가 많이 열려 있을테니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래. 가다보니 할아버지 말씀 그대로 더래.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 먹고 수양버들 밑에서 쉬고있는데 하얀 할아버지가 오더래. 가봤더니 그쪽에 집이 커다랗게 있더래.

하룻밤을 청했는데 사랑에서 자라고 하더래. 밤이 됐는데 밖에

서 칼가는 소리도 들리고 느낌이 이상하더라. 이렇게 보니까 호랑이더라. 호랑이가 변동을 했더라. 나가서 막 싸워서 이 아들이 이겼대.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당해서 아버지 머리고 여러 사람들 머리가 있더라. 호랑이가 원래 머리는 안 먹는데. 오다가 보니까 가시덤불 사이에 무 싹이 이렇게 있더라. 캐보니까 산삼이더라.

집에 와보니 어머니가 하도 울어서 소경이 됐더라.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하니까 눈을 뜨더라. 그래서 아버지 원수 갚고 어머니랑 잘 살았다. 옛날에도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있었다.

<최금순, 여·78, 청호동, 1999. 12. 2>

【민담8】

□ 박문수 어사와 초동

옛날 박문수, 박어사가 하루는 그 팔도강산을 순회를 하다 보니까 하루는 어딜 가다 산 계곡에서 개가 여우를 쫓아 가는 걸 봤다 이겁니다. 그 개가 여우를 쫓아갔는데 그 여우가 어느 동네에 가서 울안으로 나무 울타리 속으로 해서 울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그러자 그 집 개가 나와 가지고 그 똥니까, 그 여우를 잡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쫓아가던 농부가 하나 있었는데 가서 그 주인을 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네 집 개가 내가 몰고 오던 여우를 잡았는데 여우를 날 주시오.”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말이에요.

그런즉 그 집 주인 얘기가,

“여보시오, 몰기는 당신이 10리 밖에는 몰았든, 100리 밖에서

물았던지 좋은데, 잡기는 우리 개가 잡았으니 우리 여우지 당신네 여우요?”

그래 시비가 붙었던 말입니다. 그래 박문수, 박어사가 가만히 결과를 보고 있노라니까 나중에는 그 지나가는 행객에게,

“당신이 좀 알아 해 주시오.”

그랬는데, 그 어떤 초동이 말이죠. 쪼그만 그 서당에 다니는 그 학생이,

“거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판단하기를,

“개가 여우를 잡을 적에는 무엇 때문에 잡았겠습니까? 그 가죽에 탐이 났겠습니까? 개는 분명히 고기에 탐이 났을거란 말입니다. 근데 당신이 여우를 몰고 왔을 때는 무엇이 탐이 났냐?”

그건 가죽에 탐이 났습니다. 그럼 간단하잖소. 고기는 개를 주고, 가죽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래서 인제 시비가 마무리 되고 보니까 하도 신기해서 박문수, 박어사가 도대체 가의 거처가 어딘 지를 따라가 보았던 말이에요. 따라가 보니까. 그 서당에 떡 들어가는데 그 옛날에 박문수, 박어사가 너무도 참, 그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그 민정을 살피고 그 당시에 그 세종대왕인가 하여튼 그 상당히 그 정치를 잘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사가 출동을 해 가지고 그 어사 놀이를 하더란 애깁니다. 그 서당엘 가니까 그래서 그 어사가 출동을 해 가지고 그 어사놀이를 하더란 애깁니다.

아이가 떡하는 얘기도 하고 그 어사 놀이가 하는 게 재미있어 가지고 박문수, 박어사가 떠억 바깥에 가서 보니까, 그러니 그 어사는 늘 그 걸인 행세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 쪼끄만 아이가,

“바깥에 있는 걸인 붙들어 오라.”

하니 그 박문수, 박어사가 그 어린아이들한테 붙들려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그 어사가 출두해 가지고 어린 몸이지만 어사가 그 어사 노릇을 하는데 지나가는 걸인이 말이지 감히 뻥히 들여다 볼 수 있느냐 꿰어 앉아 보지 않고.”

그래면서 인제 그 볼기를 치더란 얘깁니다. 그래 박문수, 박어사가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맞았다는 얘기가. 그래 맞는 동안에 그 보따리에서 뭐이가 나왔는가 하면 아, 그 마패가 나왔단 말이야. 마패가 쭈르르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마패다 마패다’ 하니 까, ‘마패고 뭐이고 쳐라’ 이런 얘기가. 그래서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맞고 난 다음에 그 어린아이가 떠억 하는 얘기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 철부지한 것들이 놀다 보니까 어사님께 그 송구스럽게 되었는데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 실컷 두들겨 주고 실컷 때려 주고 잘못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가. 그래 너무도 자랑스러워 가지고,

“너 도대체 너의 집이 어디냐?”

하나 하나를 전부가 아주 감탄할 정도다. 거동이 그래서 가의 집을 떠 찾아가니까, 아버지는 안 계시고, 참,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슬하에 있었는데 생활이 너무도 궁핍하더란 말입니다. 그래 야가 들어가면서,

“어머니 저 서울에서 손님 오셨습니다.”

하고 한 마디 하니까 어머니는 그 뜻을 알아먹고,

“방안으로 모셔라.”

그래서 그 종자 할라고 놔 두었던 베를 그 옛날에 농촌에 가면은 방아가 있어요. 혼자 짚는 발 방아가 있어요, 그 종자를 가지고 어머니가 방앗간으로 가더란 말이야. 그래 방아를 혼자 짚으면서,

“아가야, 그 빗자루 좀 가져오너라.”

한단 말이야. 그 쓸어 넣는 빗자루를 그래 가져오니까 이 아이가 즈 집에 있는 강아지를 부르더니 강아지에다 빗자루로 땀어요. 그래,

“어머니, 나를 부르지 말고 그 강아지를 부르시오.”

그래 강아지가 그 방앗간으로 가니까 그 빗자루가 따라갈 수밖에 그래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니까 도대체가 이 뭐 기이한 얘기가 이런 얘깁니다. 그래 누구냐 그래 그 아이가 장차 그 박문수 박어사가 장차 그 아이를 데려다가 내주에 자기 그 후세, 후세가 아니고 하여간 그 명문대가의 그 사우를 맨들어 가지고 나중에 그 좌의정인가까지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그 옛날에도 그렇게 그 참 아주 그 재주가 비상한 그런 아이들이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헌영, 남·54, 중앙동, 1981. 4. 27>

【민담9】

□ 배성주 제사

배에는, 자그만 어선에는 성주라는 게 있어. 집안에도, 집에도 성주라는게있잖아. 집에도 옛날에는 집에 가면은 일년에 햇곡이 마련되면은 맨 먼저 그 햇곡을 장만해가지고 이 단지 같은 데다가 담아가지고 방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모신다구.

그거는 옛날 조상들한테 대접하고 “우리가 금년에 이와같이 농사를 지어서 햇곡을 마련했습니다.”하고 조상들한테 위하는 거는 한가지거든. 그럼 배에서도 신주를 모시고 신을 모시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 주시오”, “사고없이 해 주시오”하는 뜻에서 그 배에도 신을 모시자.

모시는데 거기에 뭐 작업이 잘 안된다던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배에 가서 음식 차려놓고 절도 하고 축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성주야. 이를 ‘성’, 기동 ‘주’자거든. 그러니까네 이 배 자체를 이루는 것은 이루는 혼이 있다 그런 이야기지. 거기에 기도하고 잘되게 해주십사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런 신을 모시는 것이 성주야.

<황화수, 남. 76, 청호동, 1999. 12. 4>

【민담10】

□ 배성주신 유래

배에나 집에나 여성주, 남성주 그것 두 똑같은 거여. 집에도 성주님이 앉는 거야. 왜 집마다 고사를 부치잖아. 아무 것도 보살들은 그냥 ‘받으시오, 잡수시오, 네 성주님’ 이러지 좀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터부터 먼저 이는 거야. 터전이 일어나야 성주님이 좌정해 앉거덩. 흔들지 않는다는 말이야. 터에서 흔들어 놓으면 성주님이 아무리 앉아 있을래도 자기 멋대로 성주님이 앉을 수가 없는데, 땅이 없는데, 허공에 앉겠나. 그저 그거야 똑같애.

이 성주님도 이제 가만히 내가 땡기면서 해보면은 남성주, 여성주가 다 그렇다. 그 분도 여전히 한 가지요. 옥황상제님한테서 성주님이 태어났거덩. 아들이 태어나 옥동자가 성주 아버지 천중대 왕이고, 성주부인도 옥진부인이야. 두 동자가 성주님이 옥황상제님 전에 태어났지. 몇 살에 태어났는가 하면 아버지는 37살, 어머니는 39살이다. 이래 기도해가지고 태어난거야.

이 성주님이 어디가도 기도, 칠성님한테 기도, 산신님한테, 미륵님 부처님한테 기도, 용왕님한테도 기도 네 군데 땡기며 기도, 석

달 열흘 백일을 했던 말이야. 해가지고 성주님한테 했던 말야. 이름을 뭐라 짓느냐? 성주는 별호란 말이야. 아석국, 그 사람 이름이 그거고, 성주는 명이 길라고 별호를 지은 기 성주라고 별호를 지었다고.

이래 가지고 이 분이 어떻게 됐냐른 엄마, 아버지 품에서 나이 먹어서 탄생했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컸겠니. 컸지만 장가가야 할 게 아닌가. 장가를 갔는데 무남독녀 외동딸한테 장가를 간거야. 옥황님 무남독녀 외동딸한테 딱 가니까.

장가가서 가만히 사주를 보니까 자기가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천상 옥황나라국에 있을 사람이 아니냐. 지하로 귀양을 내려와야 해.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별하고 엄마도 이별해. 그 귀엽게 키운 자식인데 자기 팔자대로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하나. 앓을 곳이 없잖아.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내려가서 니가 이걸 먹을 때까지 도를 닦아라.”

인간사 그뻔 인간의 집도 없는거야. 풀을 가지고 쓰고 가리고 그냥 생식만 하는데 이걸 음식도 모르고, 이럴 때 그런 거 배웠는지 모르겠다.

석문씨는 돌만들고, 복신씨는 나무만들고, 수인씨는 물만들고, 공자 맹자 성인 군자님은 율법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이 성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지상에 내려와 백일만 먹고 입을 옷을 췌으니까, 그것만 먹고 도를 닦으라고 했으니까.

지하에 내려와 봐라 사람이 못먹어. 집도 없어 나무 그늘이면 그늘 밑에 사니

“니가 인간 속까지 내려가서 인간에 의지해서 살만큼 도를 닦아서 소원을 인간 세상에 주어라.”

그래 성주님이 이 집을 마련해 준거야. 그러니까 성주가 먼저 집이면 들어오잖아. 대들보에 성주가 들어오는 거야.

그 분이 이 나무를 심어. 아무리 나무를 해도, 집짓는 법을 모르니 그 성주 양반이, 경상도 안동땅에 제비위넝 솔씨를 받아서 우리나라 팔도 명당마다 갖다 하나씩 뿌리니 풀도 자라 나무도 자라 이것을 패다가 집을 지으니까 배를 지어도 집을 지어도 승용차에도 성주, 공장에서도 성주가 바르 의미가 그렇게 된거야.

종이 한 장에다가 명을 주라고 명실이요. 복을 주라고 종이에다 복을 주라 그런 의미지. 남성주 있는 집도 있고, 여성주 있는 집은 왜 있느냐? 그거는 자기가 혼자 살다 너무 답답하니 18살 먹어 장가갔는데 천상에 있는 자기 부인을 불러내려 모셨어.

근데 어판 땡기면 남성주가

“당신은 여성주로 당신이 앉소, 나는 남성주로 앉을게.”

차도 어떤데 보면 쌍성주가 있다고. 신랑 각시 그때 같이 만나가지고 좌정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쌍성주 한꺼번에 있고, 어떤데 가면 여성, 어떤데 가면 남성주, 어떤데 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배는 뭘 성주가 있소?”

이러면 듣기 좋게

“남성주가 있소.”

그러면 그거 틀리면 큰일 나거덩.

뺏고사 부치고 뭐 빌고 나면 사고가 나거덩. 웬가 하면 남성주인지 여성주인지 몰라서, 말하기 좋아서 남성주인데, 남성주라고 다 빌어 놓으면 여성주는 못 받아먹고, 남성주로 빌어놓고 나면은 사고가 나는 거거덩. 여성주가 내려와서 같이 있고, 어떤데 가면 갈라져 노뵈 있고, 신랑이 시키는 거라.

“니는 저쪽 가 저기 앉아라. 나 여기 이렇게 앉겠다.”

이래 가지고 남성주, 여성주 갈라지는 거야. 남성주와 여성주가 채리는 것이 다를 거 없어요. 여성주, 남성주 채리는 방법이 다른 것은 남성주는 배는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 하얀 실에다 창호지 하나 고거 하나 해서 달면 남성주야. 여성주는 뭐가 다르냐 하면 물색으로 올린다고. 빨간 천, 노란 천, 색색을 해가지고 어데 가면 색실하고 어데 가면 천을 하고, 그래서 여성주를 분간하는 거야. 차리는 것은 똑같애.

<정춘자, 여·63, 대포동 3/2. 1997. 11. 28>

【민담11】

□ 썩조골 김부자의 구렁이

거게 그 썩조골, 영랑동에 옛날에 그 김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데, 예, 그 사람이 그 상당한 돈이 많았어요. 그 돈을 옛날에 그 어떻게 계산할 도리가 없어서 그 사람 돈을 보관하는 방법은 저 시골에 가면 노죽가리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통나무를 이래 둥그렇게 마당에 놓고 그 안에다가 옛날에 그 엽전이겠지요 그걸 차곡 차곡 쌓아 놓고 이렇게 지나고 있는, 그런 참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거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부가 된 동기는 옛날에 그 업이라 그러지요. 그 구렁이, 그래서 그 업 그 하나로 살았다 그래서 그 김부자야 구렁이에 얽힌 전설이다, 이런 문제가 나오지요. 나오는데.

그럼 그 업 그 항상 그 김부자가 거상을 했는데 장사를 나갈 때마다 꼭 따라 나간답니다. 그 업이가 꼭 따라다니면서 보호를 해 주는데, 그러니까 한 번은 저 김부자가 장사 나갈라고 물건을 잔뜩 싣고서는 배를 탈라고 하는데 그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잘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제 물건은 잔뜩 실어 났고, 바람은 불고, 나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인제 며칠간 머무르는 동안에 원체 바람이 세게 부니까 나중에는 뭐 아, 배가 닻줄이 끊어져 가지고 도저히 잡을 수도 없고, 그 배가 파손되고 인제 뭐 살림은 그로서 끝날 위기에 그 도산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그야말로 이 닻줄이 끊어지면서 그게 한 가닥 두 가닥 커져 나가는 과정인데, 그래도 바람은 계속 해서 강풍이 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젠 뭐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잡을 수가 없다는 데서 아주 포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이 닻줄이 끊어지지 않고 닻줄이 분명히 터졌을 텐데 끊어져 나가지 않고 그런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 참, 기이한 사실이다.”

그러나 뭐 바람이 원체 부니까 가 볼 수도 없고, 그런데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다가 그러다 바람이 잦단 얘기가야. 자서 인제 딱 보니까 그 같이 다니던 업이가 말입니다. 그 돛대에다가 몸을 감고 그 밧줄에다가 끈지를 달아 가지고 버틴단 말입니다.

그래니까 이 줄은 끊어졌지요, 끊어졌는데, 그 업이 버티고 있는 그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배가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고 그 바람이 잦다 얘깁니다. 그래서 그 업이 힘을 다 쏟고서는 그 위기를 모면해 주고 업은 죽었고 그 다음에 그 김부자도 실은 그 장사를 나가다가 풍랑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갑자기 업이 죽고 나니까 갑자기 그 살림이 파산이 돼 가지고서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그 가족들까지도 거처서 못 살고 그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될 이런 실정에 놓여 있었다는데 그 집이 그 당시에 그 얼마나 그 호화스럽게 살았는지 옛날 그 집을 뜯어다가 다른 데다 옮겨서 보통 집을 세 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뜯어 보니까 그 선반에다 옷칠을 하고 살았다

고 하니까, 요즘 뭐 자개 놓고 호마이카 올린 것 보담도 그 당시에 옷칠을 하면 화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화려한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 업의 영향으로서 큰 부자로서 살았는데 업이 죽는 바람에 그 재산도 파산됐다, 그래서 거 지금도 그 구렁이와 김부자에 얽힌 얘기가 전하는데, 우리가 들어볼 때는 상당히 막연한 얘기고 한데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김봉춘, 남·54, 금호동 13/2, 1981. 4. 27>

【민담12】

□ 선비 강태봉 이야기

옛날에 강태봉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어. 그런데 아주 그렇게 못 살았대. 마누라가 발방아 찌어서 먹거 살았는데, 그 강태봉이라는 선비는 밤낮으로 공부만 하더라.

어느날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날에 마누라가 잠깐 어디 갔다온 사이에 베 짜놔던게 다 떠내려 갔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나. 문을 열어 보니까 그 강태봉이란 사람은 계속 공부만하고 있더라. 마누라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랬대. ‘이렇게는 살수가 없다’고. 그러고는 떠났대. 나중에 그 선비가 출세를 해서 큰 사람이 됐대. 친정에 있던 마누라가 그 소식을 듣고 돌아왔더라.

그래서 강태봉 선비가 ‘그럼 당신 지금 가서 물을 한동이 해오시오’ 그랬대. 마누라가 해온 물동이를 냅다 던지면서 그랬데. 이렇게 깨져버린 독에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겠냐고. 마누라가 울면서 집으로 갔대.

<최금순, 여·78, 청호동, 1999. 12. 2>

【민담13】

□ 설악산 다부골 청년

젊은 사람이 하나가 매일 어려서부터 죽만 먹고 그러니까 밥 먹은 거하고 죽 먹은 거하고 기운이 들날기 아닙니까. 배만 부르고 이래 인제 금방 또 소화가 잘 되고 이러니까 금방 또 배가 꺼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다부골에 사는 청년이,

“야, 이렇게 죽만 먹고살면 뭐 하느냐 남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데 에이, 아주 높은 산꼭대기 올라가서 어낭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 떨어져서 투신자살해서 죽어야겠다.”

그러니까 어낭이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말입니다. 올라가서 죽을라고 인제 그 어낭을 향해서 내려 쏟아질라고. 그러니까 뭐이 뒤에서 큰 힘으로 잡아 낙꾸는 기 있더라 이기래요. 그래서 뒤 돌아 보니까 아주 희안한 장부가 목덜미를 퍽 잡고,

“젊은 사람이 왜 여기 낭떠러지서 떨어져 죽을라고 그러느냐?”

그래,

“내 죽 먹기 싫어서 죽을 라고 그러다.”

그러니까,

“니 타고난 팔자에 죽 삼만 그릇만 먹으면 그 다음에 아주 잘 사는데 고대를 못 참아서 순간적으로 죽을 라고 그러느냐? 죽 삼만 그릇을 먹는 고때에 만나자.”

그래고 고만 헤졌어요. 사람이 죽는 순간에 기분에 약간 돌리기만 하면은 되루 사니까 그래 이제 와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이제 죽을 삼만 그릇을 먹으면은,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고 다음에 인제 마침 죽을라고 그러던 때 목덜미 잡아 주던 사람이 나타나 가

지고,

“니가 부자가 될라고 그러면은 산신령 있는데 가서 치성을 백 일 동안 빌라. 매일 한 번씩 치성디리러 갈 때 마동 소대가리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서 치성을 디려라.”

근데 이제 그 밀천이라는 것이 죽 먹으면서 한 손가락씩 저축해 둔기 있었는데 그걸 봐 가지고 팔아 보니까 삼십 냥이 되드라이기래요. 그래서 인제 시장에 가서 소대가리하고 이제 체수 뭐 산신제 지내는데, 제물 준비 하느라고 삼십냥을 가주 가서 준비를 해 가지고, 가주 와서 산신령 있는데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퇴물을 먹지 않고 그냥 가주 와 가지고 시장에 가서 되 팔아 가지고 또 쪼금 더 보태 가주고, 다시 올라가 가지고 또 산신제 지내고, 구십 구 그러니까 아흔 아홉 번을 끝냈어요.

그 다음에 인제 백 번째 가서 소를 바꾸려고 하니까 소대가리 파는데 가기만 하면은 아주 외뿔이 달랜 귀신 두 뿔이 달랜 귀신, 아주 뭐 이런 귀신들이 지키고 앉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드라이기예요. 그러니까 고깃간에 가서 고기는 사지 못하겠고 요번 한번만 가면 다 하겠는데 그런 귀신들이 자꾸 지키면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에라, 할 수 없다. 그냥 산신님 있는데 가서 돈 삼십 냥 갖다 놓고, 당신이 소를 뭐, 대가리 어떠 구해 가지고 잡숫던지 그러구나는 돈 삼십 냥 갖다 놓고 기도 디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산신기도 드리느라고 백번 째는 돈 삼십 냥 갖다가 놓고 산신 앞에 갖다 놓고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절을 하고,

“잘 살게 해 달라.”

그래 인제 치성을 드렸더니, 조금 있더니, 치성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아, 산돼지가 하나가 나타나더라 이기래요 아, 멧돼지가 그래서,

“저 놈의 멧돼지를 잡아 가지구 인제 산신 제사 지내도 되겠다.”

그래서 멧돼지를 잡을 라고 쫓아가는데 멧돼지가 아주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고 자기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데 올라갔는데 그 산돼지가 얘기했는데 어데 산신이 얘기 했는지 몰러도,

“니가 나를 위해서 제사 지내 주는 건 좋은데 아흔 아홉 마리 소고기를 자꾸 사기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죽었다. 어, 그러니까 마지막 백 번째 돈 갖다 주고 치성드리는 거는 그 돈 삼십 냥 가주고 너 보다 더 가난한 사람있는데 내가 갖다 줬으니까, 그 정성이 가륙하다. 그러니까 너 어떻든 간에 기도를 지성으로 들이고 백일을 채웠으니까, 이 멧돼지 따라서 나가면 아주 잘 사는 동네로 인도해 줄 께다.”

그래서 고 다음에는 멧돼지 죽일 생각도 안하고 멧돼지 가는 대로 따라서 몇 날 몇 일을 따라서 멧돼지 따라서 갔다 이깁니다. 그래더니까 어떤 오막살이집 몇 채 있는 동네루 딱 들어 갔는데 그 멧돼지 따라 다니느라고 잘사는 동네 가르쳐 준다고 그래 배 줄은 창지를 가지구 그 동네 앞에 가서 쓰러졌어요.

그러자 이제 그, 물동이 이고 나오든 처녀가 거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는 거 보고 그래 집에 어른들 있는데 얘기해 그 집으로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래 그 집에 들어가 간호를 받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뭐 별루 그렇게 배 굶는 동네두 아니구 잘 사는 동네라 이기래요.

집은 비록 뭐 오막살이 집을 쓰고 있지만 잘 살더라. 그래 그 집에서 이제 그렇잖아도 노동력이 없어 가지구 그 사람보고 또 어데루 갈데도 없구 이래,

“여기가 어데냐?”

이러니까,

“설악산 다부골이다.”

이래요. 그래서 설악산 다부골에서 데릴사위 비젓하게, 그래 가지구 거계서 죽 삼만 그릇을 먹고 그래 고 다음 이밥만 먹게 됐다, 이런 전설이 옛날부터 내려오는데, 그래서 인제 죽 먹으면 말이죠.

“아이 죽먹기 싫다.”

어려서 그러면 말이죠,

“야, 이놈아. 니 이 다음에 커서 다부골에 가 가주고 이쁜 색시 얻고 살지 누가 아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홍덕유, 남·54, 중앙동, 1981. 4. 27>

【민담14】

□ 스님의 일곱 자식

옛날에 산골짜긴데 아주 부자집 마나님이라구. 근데 남편은 아주 멀리 일을 다닌데 남해 쪽으로 일을 나가시고 그러는데. 남편이 나가고 없으면 혼자서 일주일도, 혼자계시고 한 달도 있고 두 달도 있고.

그래 여자가 그러고 있는데 한 삼 개월씩 있다가 아저씨가 오시고 그러는데 하루는 어떤 스님이 오셔 가지구 스님이 꼭 여자 같이 이쁜 스님이야. 남자스님인데 그래 가꾸 시주를 좀 해달라고 시주를 들어달라고 그러니깐 뭐 그저그저 뭐 주는거 있잖아.

그런 것 달라구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자가 그 인제 여자가 얼굴 안색이 아주 안 좋은 안색으로 한숨을 푹 쉬면서 쌀을 떠다 주었는데. 이제 스님이 ‘왜 한숨을 그렇게 길게 쉬냐’고 그러니까 ‘아휴, 꼭 죽고만 싶은 심정이다’고 이렇게 살아도 죽고만 싶은

심정이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휴 난 이렇게 살아도 아저씨가 한번씩 출장을 가시면 석 달도 있다오고 한 달도 있다오고 그러는데 그냥 난 죽고만 싶다’고 막 그러는거라.

이제 그러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그럼 좋은 방법을 해주겠다고. 아저씨하고 오래 떨어지지 않고 애기도 빨리 생길 수 있는 방법을 해 주겠다고 있다고. 그러니 스님이 그래 ‘그러면 좀 해달라’고 새댁이 그래.

그러니까 스님이 거서 묵고 있었어. 며칠하면 좋냐고 그러니 일주일간 하면 좋다고 그랬어. 그러는데 일주일간 했거든. 스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 했는데 인자 마지막날에 비가 막 쏟아져 쏟아지는데 스님하고 새댁하고 같이 한방에서 있는데 여잔 줄만 알았는데 예뻐서 여잔 줄만 알았지.

근데 마지막날쯤에 오늘 저녁쯤에 오늘 저녁이 마지막 하면은 인제 다 된다고. 인제 그래 그럼 그 마지막 날에 뭐를 다 채려놓고는 다하고 있더라는데 나중에는 둘이서 잠이 든거야. 둘이서 잠이 들었는데 아이고 이 스님이 남자 스님이여. 여자 그 배 위에다 발을 톱 걸치고 이렇게 잠을 자는 거라.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해야되는데 시어머니가 보니까 안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헛바닥으로 침을 딱 발라놓고는 창구멍에다 이렇게 발라놓고는 구멍을 푹 뚫어갔고 이렇게 들여다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 세상에 스님이 여잔 줄 알았더니 다리가 털이 시커먼게 다리를 자기 며느리 배 위에다가 딱 걸쳐갔고 자거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엉겁결에 문을 딱 여는 것이 그냥 팔딱 떨어져 버렸어. 잠근 문이… 그래 갖고 스님은 자기도 모르게 엉겁결에 뛰어 도망가 버리고. 며느리 보고 이제 그러는거야. ‘세상에 그 스님이 여잔 줄 알았더니 남자 스님이다’고하면서 시어머니 보고 막 며느리보고 저질해.

에이 그날 저녁에 스님이 자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만약에 아들 나면 애기를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하고 이름을 잊어 버렸는데, 애기를 낳으면 파란 저고리에 빨간 띠를 둘러서 애기를 저고리에 입히라고 그랬어. 그러는데 진짜 그날 저녁에 애기를 뱃어.

애기가 임신이 되어가지고 애기를 인자 낳게 됐어. 낳게 됐는데 인제 하루는 스님이 인제 그 동네를 전혀 못 오는거라. 무서워서 인제 오는데 얼마 지나가서. 근데 그 애기를 낳아가지고는 낳는데 애기를 십 개월 있다가 애기를 낳는데 파란 저고리에 빨간띠를 둘러서 애기를 업어 가지고 나가는데 그런 똑같은 애기들이 일곱 명 있다는 거라. 그 애기가 일곱 명이... 그 스님이 낳은 애기라 그 애기가 전부다 다 그러고 하고는.

끝을 잘 모르것는디 여러분들도 이런 속음이 많이 있을 거라. 이런 스님들에게 속지 말어.

<진경희, 여·62, 교동, 1999. 12. 17>

【민담15】

□ 식충이 장사(壯士)

그전에 어느 가정에서 아주 빈곤한 가정에서 그래 두 내외 사는데 임신을 해 가지고 인제 태아가 하나 들어 가지고 낳았는데 보니 이 아기가 즈 아버지 어머니는 약질(弱質)인데 아주 통통하게 그냥 눈이 뭐 정말 뚱그란게 무슨 큰 저 후렛쉬 모양 이렇게 생겨 가지고 대갈통이 크다랗게 아주 이렇게 생겨 가지고 몽때이가 아주. 아들이, 다리껍이 뭐 아주 튼튼하게 생겼거든, 두 내외 하는 애기가

“아하, 저게 아주 우리 집안에 장사가 나는 모양이다.”

장사가 나니까 조거를 인제 아주 잘 멕여서 그 참 한 번 성공을 시켜 가지고 기대를 걸어 본다고, 그래 밥을 먹기 시작해 젓도 모자라서 젓 반, 밥 반, 이렇게 먹고 젓도 많이 나오는데 모자라 가지고 그래 야중에 밥을 먹기 시작하네.

밥을 처음에 으른밥 먹더니 점점 커 가며 점점 먹기 시작해서 야중엔 한 되, 두 되로 한 되 해 지가 먹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먹더니 나이가 한 여덟 살 즈음 되니까 반 말, 반 말을 해 먹고 그래 열 댓 살, 이십 살 가까이 되니까 안되미 꼭 한말을 해 야 지가 먹는 단 말야.

안되미 고거 한 말이라면 다라로 하나야. 밥이 그래 그 다라로 하나를 먹어야지. 반찬도 이런 큰 그릇에다 한 개씩 해서 전부 싹 싹 돌이 하는 거야. 아주 그냥.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안되미래는 건 고봉 한 말을 갖다 안되미라고 하지. 소복하게 지금은 깎아서 주지만 그전엔 아주 소복하게 담아서 안되미 한 말이라고 아주, 안되미 한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인제 그러니 고봉 안되미 한 말을 먹으니 하루 밥 세 끼 먹으면 하루 스 말 인데 그 내외 것 해서 아마 스 말 닷 되는 먹어야 된단 말이야.

스말 스 되 내지 닷되를 먹어야 되니 그러니 빈곤한 가정에서 자꾸 그렇게 밥을 많이 먹는데 애가 스무 살이 넘어서 되니, 눈깔이 자동차 헤드라이트 모양 같고, 아주 기골이 장대해 가지고 콧날이 넓다 선 게 심은 하나도 없고. 기운은 하나도 없는 게, 거기 잘 하는 것은 뭐가 하면 소리 한 번, 입이 크니까 원래 목청이 굵어 가지고 소리 한 번 지르면 골이 아주 쨍쨍 울릴 정도로 그렇게 소리는 잘 친다 그거여.

그래 소리 한 가지 밖에 치는 것 그 이상 더 없는데, 그러니 자꾸 그렇게 먹으니 즈 아버지 어머니는 연세가 많아 영감님이 인

제 돌아가시고 지가 혼자서 천상 있는 거는 논마지기 있는 것 다 해서 팔아서 쌀 사다 먹고 집까지 팔아 먹고, 나중에 인제 오도 가도 없이 갈 데 없이 홀몸이 되어버렸네. 그래니 인제 부락에서 밥 많이 먹는데 얻어 먹을 수도 없고

“에라, 어디 떠나자.”

어딘가는 정처 없이 개나리 붓짐을 싸 짊어지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데로 떠나가는데, 어딘가는 가니 그 구리당같은 기와집 그 기와집들이 한 100여호 되는 아주 그 부자집을, 부자집 동네를 들어 가게 되는데 아주 삼태 한 모양으로 동그랗게 둘러싸인 산이 둘러싸이고 오복한 데 요렇게 아담하게 모여 있는 부락인데 삼태라는 건 이렇게 동그란 걸 얘기 하는데, 한 쪽이 지울고 한 쪽이 동그란 걸 말하는데.

그래 그 부락에 떠억 들어 가니 그 위에 산으로는 사람이 하얗게 기어 올라가며 ‘여’소리를 지르며 기어 올라 가는 걸 많이 보고 그리구선 그 중에서 꼭대기 제일 큰 집을 찾아 가면 큰 집은 제일 부자고 그 부락에서 대감집이 틀림 없다. 그러니 대감집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 그 집에 가서,

“주인 양반 계십니까?”

하니 그 집에서는 그 집의 대감이 이렇게 내다 보니 모습은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눈이 헛드라이트 모양 생겼겠다, 아주 각짓동같이 이렇게 건장한 사람이 그러니깐 아주 장사가 온 줄 알고 천하 장사가 온 줄 알고

“네, 지가 대감입니다.”

땀발로 마루를 나오면서 얘기하거든. 그래,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시장기가 있어 그래 찾아 들어 왔습니다.”

“아이고 이리 들어오십시오.”

그래 방에 모셔 가지고 인제 대감이 들여 모셔 가지고 사람을,
“그래 대관절 산에는 웬 사람이 저렇게 기어 올랐소?”

“네, 그렇잖아도 지금으로부터 몇 백년쯤 묵은 호랭이가 대낮에
와서 이 부락에 사람 하나씩 잡아다가 먹습니다. 그래 인제 매일
한 명씩 잡아다 먹는데 오늘 역시도 그래가지고 그래 각지에서
인제 명포수들을 주문을 하다가 저 몰잇군이 올시다.”

“아, 그러시오?”

그런 얘기를 주고 받는데 대감이 있다 하는 말이 ‘여봐라’하니
까 그 몸종이,

“네.”

“그 밥 한 상 와라.”

“네.”

하고 간단 말이야. 이 식충이가 있다가

“저는 밥을 안되미 고봉 쌀 한 말을 내가 한 끼에 다 먹는 사
람이오.”

그러니까 대감이 다시,

“여봐라.”

하고 부르니,

“네.”

하고 몸종이 와요.

“그 쌀 안되미 한 말 퍼다가 밥 한 상 해 와라.”

“네.”

하고, 그래 가 가지고 안대미. 고봉 한 말을 해다가 밥 한 상하
고 큰 다라로 하나지, 안대미 고봉 한 말이면. 거기다 인제 또 바
가지가 입에 다 들어가. 이게 순갈 떠먹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걱이
인제 순갈이고 바가지가 그래 인제 국 한 됴이, 밥 한 다라, 그
안에 딸리는 반찬 많은 것, 이렇게 한꺼번에 청소하듯이 배고파

시장하던 찰나에 다 먹고, 그리구선 인제, 저는 대감이 생각하기에는 장사로 생각했는데, 지가 힘은 하나도 없는데 밥 만 많이 먹는 식충이 새긴데. 그러니 지가 한 번 덩치 값을 할라고 우쭐해 불려고,

“대감, 여보시오.”

“네.”

“저, 호랭이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오?”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가르쳐 드리지요, 여봐라!”

하니까, 몸종이,

“이분 저 호랭이 목 좀 가르쳐 드려라.”

“네, 저를 따라 오시지요.”

“재를 따라 가십시오.”

대감이 인제 따라 보냈거든, 따라 보내고 인제 얼마침 이 몸종이라는 사람이 산 비탈을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냥 헤치면서 그냥 그 높은 봉우리를, 이직 뭐 점심때니 해는 많지, 그냥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냥 기를 쓰고 따라 올라가서 그 식충이가 따라 올라가서 보니 큰 산에, 큰 영에 올라가서 보니 하도 무서워서 사람들이 안가서 솔대는 아주 왕성하고 그냥 송림이 울창한데, 딱 요렇게 잘뜨목이라. 이렇게 생겨 양쪽 봉우리가 아주 이렇게 있고 아주 잘뜨목이 있는데,

“여기가, 저게 저 대호(大虎)목입니다.”

밑에서는 ‘우우’몰려 오느라고 야단인데 그래 인제 고길 가르쳐 주니 고기 풀이 그렇게 왕성하니까 이렇게 섰다가 인제 옆에 이래 보니 대호목이라 띠 질이 아주 반질 반질해 호랭이가, 몇 백년 묵은 대호가 황소만한 게 왔다 갔다 해서, 그래 인제 그리고 내려 갔어.

몸종은 그러니 앉았다가 풀썩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 가지고, 풀

에 딱 파묻히지, 암만 커도 풀이 이렇게 왕성하니깐, 그 가만 들으니까 가까이 오는지 호랭이 올라오는 소리가 나는데,

“흥 흥 흥.”

그러면서 소리가 나거든. 그래 나중에 곁에 와서 ‘왕왕’ 하니까 깜짝 놀랬어. 아주, 깜짝 놀래서 식충이가 까물어 치느라고 드러누울 때 가만히 드러누워 까무러치면 좋은데, 이게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면서 벌떡 일어나면서 냅다,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냅다 지르면서 까무러쳤단 말이야, 그래 인제 밑에 사람들은 인제 그 대감은,

“저놈의 새끼 인제 저거 돼지느라고 저 소리 났어. 에이, 저 따위 새끼들 들어오면 귀찮아서 저거 잘 돼졌어,”

인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쯤 이 사람이 까무러쳤다가 나중에 일어나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호랭이가 넘어와서 정신을 잃고 까무러쳤었구나. 그 호랭이가 갔겠는데 어디 넘겨다보자.”

가서 넘겨다보니 이게 능선이 칼등같은 좁은 능선인데 그래 거기서 인제 호랭이가 올라 오면서 어흥, 하니까 별안간 그냥 깎짓동 같은 게 어디 풀 속에서 보이지 않던 게 별안간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니 호랭이도 또 까무러치다시피 놀래 가지고 말야, 그냥 공중으로 칼등같은 능선으로 넘겨 쳐서 내려 떨어뜨린다는 게 바로 가서 떨어지는 게 잘못 떨어져서 이 나무 새간 굶다란 나무 새간에 척 끼어 가지고 이 가는 허리가 끼어서 꼼짝을 못하고 거기 끼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으렁 으렁’하고 나무에 끼어져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제서 아주 그냥 천지가 지 세상모양으로 천하장사 역할을 하고 지가 우쭐해 가지구서 내려 오는 거야. 대감님 집에 와서, 그전에는,

“대감님 계십니까?”

하고 주인을 찾았지만,

“여봐라, 거 아무도 없느냐?”

거 대감이 보니까 아, 저, 돼진 줄 알았는데 소리를 껍뻍 지르고,

“아, 네, 네. 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응, 거, 몇 백년 묵었는지 모르겠다. 아주 여러 백년 묵었더라.”

그래 닥 훑여치니까 아주 어금이 벌어 가지고,

“그래, 죽이긴 뭐 하고, 그래 나무 새간에다 끼워 났으니 그 포수들하고 몰잇꾼들 10여명 데리고 올라가서 그 잡아 가지고 내려 오도록 해라.”

아, 대감이 오히려 종노릇을 하고 아주 굴복하고 그래 가지고, 그래 대감이 다시 명을 내려.

“여봐라, 거, 포수 5명하고 몰잇꾼 한 10명하고 데리고 올라 가서 이 장사님이 거, 붙잡아 가지고 나무 새간에다 끼워 놓고 오셨대. 그러니 잡아 가지고 내려 오도록 해라.”

“네.”

하고 말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보니 이건 뭐, 정말 아니, 이 건 정말 천재지변으로 이 건 이렇게 되었지, 원 붙잡아서 저렇게 끼워서 저렇게 났다는 게. 그게 정말 아주 어이가 없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만약에 그랬다면 천해장사라고, 그런 장사 건드렸다간 팔세를 아주 많이 받을 것 같으니, 아주 천하장사라고 그 사람들이 판정을 내렸지.

그 포수들, 그 사람들도. 그래 내려 와 가지고 잡아 와 가지고 내려 왔어. 그러니 대감인데 이 사람들이,

“아주 그 분 천해장사입니다. 그분은 뭐 천지조화를 막 그냥, 산을 막 그냥 주름을 누릴 수가 있고 아, 뭐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장사니까 절대 여기서 우리 부락에서 팔세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니까 대감이 있다 하는 말이,

“그 가족을 잘 베풀어 가지고 그 호피하고 고기하고 가져다 팔아서 그 팔은 돈은 얼마가 되던지 간에 가져오너라. 내가 보관하겠다. 어느 땐가는 장사님이 가실 때 여비를 보태 주는 거다. 그러니 일전도 소비하지 말고 가져 와야.”

그래 가지고 전부 팔아 가지고 종들이 그 밑에는 전부 대기하자니 전부 종들이야. 대감이 이게 원 대감이고 그 밑에 사람들은 전부 종이야. 그래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어디 가서 팔아 각 돈을 갖다가 그래 500냥 정도, 그때 500냥이면 지금 5,000만원정도 되지. 그런 돈이었어.

해 가지고 인제 갖다 주니까 보관하고 있고 그러니 하루에 안되미 고봉 쌀 한 말인데 한끼에 한 말씩 먹으니 하루 세끼 먹으니 스 말이니 그 열흘이면 얼마야? 세 가마지, 그게 석 달인가 먹었으니 90가마 아냐? 그러니 대감네도 식량이 딸리고 하니 대감이 이 종들한테 회의를 해 가지구선.

“이젠 어쩔 수 없다. 우째됐든 한 서 너 달 장사님이 파잡셨는데 우리 식량이 대롱대롱 한다.”

우리 먹을 것도 그러니 어쩔 수 없으니 회의를 열어 가지고 토막돌림, 1번, 2번 해가 지구선 100번까지 번호수를 맥여 가지고 처음에는, 오늘 저녁은 우리가 먹이구서 재운다. 재우면 내일은 1번이 데려다가 조반을 메기고 조반 점심, 저녁 맥이고 재우면 그 이튿날은 2번이 데려다가 조반 맥이고 점심 저녁 맥이고 재우고 그게 ‘토막돌림’이라는 거야.

그래, 그래 가지구 100집을 먹으면 그것도 석 달 열흘이네, 석 달 열흘이지. 그래서 인제 그렇게 토막돌림으로다가 이렇게 장사를, 식충이를 먹이는 거야. 먹여 가지고 그래 석 달 열흘이 또 다

떨어지네, 다 떨어지니까네 결과적으로 그 대감네 집에 또 찾아오는 거지. 대감네 집에 찾아오니 자기도 염치가 없던지,

“대감 저는 가야 되겠소.”

“아휴, 장사님 가실랍니다까? 아휴, 왜 가세요?”

속으로는 ‘어서 갔으면, 이놈의 새끼야’ 했지만 겉으로야 어디 내막을 할 수 있습니까?

“아휴, 더 계시지, 묵으시지요. 몇 달 동안.”

“아니야, 가야 되겠다.”

“그럼, 가시겠습니까?”

“아, 가야지.”

“그러면 이거 몇 푼 변변치 못하나마 이 여비나 가져 가십시오.”

그 호랭이 판 돈을 인제 여비를 해서 쥐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역시 피나리 붓짐을 짊어지고 어디 만치 가는데, 가다 보니 또 그런 부락이 또 생기거든. 그 살 때가 되어서 그런 거지.

그래 거기 가서 그런 부락이 생겼으니, 나타나니까 한 100여호 되는 부락에 들어섰는데 그 중에서 제일 꼭대기 높은, 높고 큰 집을 찾아가는 기라.

그 집이 물론 대감집이지. 그래 그 집이, 큰 집을 찾아가서,

“주인 양반 계십니까?”

하니 대답이 없거든,

“주인 양반 계십니까?”

하니 그 집의 여인이 이렇게 내다보고,

“지나가는 객인데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루 저녁 쉬어 갈라고 찾습니다.”

“아휴, 네, 들어오십시오.”

하며 어여쁜 여인이 반색하거든. 그래 들어 왔어.

“내가 하루 저녁 쉬어 갈라고 찾아 왔습니다.”

근데 쉬어 가는 것은 좋은데 반 즉 천하장사거든, 천하장사니 맞아들었지. 장사 아니면 맞아들이지도 않지, 그 여인은.

그래 인제 저녁을 해다 준다고 그래 그 안방으로 모셨어. 그 집은 또 여인 혼자 밖에 없고 그래 인제 안방에다 모셔 놓고 나는 밥을 먹는 게, 저녁을 해다 줄라 하니, 밥을 인제 많이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느라고,

“난 안되미 고봉 쌀 한 말을 해야 한 끼 먹는 사람이오.”

“아휴, 해다 드리지요.”

그래 바깥에 나가서 그냥 쌀을 한 말 퍼다가 큰 솥에다 해야지. 한 말이면 큰 솥에다 하는 거야. 해 가지고 거기다 인제 또 국을 가마솥에 한 가마 끓여 가지고 해서 거, 뭐, 김치도 큰, 큰 그릇에다 이렇게 하나, 장도 하나씩 장도 잔뜩 잔뜩 놔 가지구선 아주 반찬만 큰 두리반이 찌그러져라 하게 이렇게 가져 오고 밥은 밥대로 가져 오고 국은 국대로 그냥 큰 동이에다 한 동이 퍼 오고 이래 갖다 주니까 앉아서 그걸 다 먹거든. 다 먹고 여인이 하는 얘기가 그래,

“내가 보아한 즉, 천해장사님 같아서 모셔 드렸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기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생김 생김만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게 생겼지.

“근데 우리 소원을 하나 들어주세요.”

“그래 소원은 인제 뭘 소원이냐고 얘기를 해 보라.”

“꼭 들어 주시겠소?”

“아니, 들어 주고 아니 들어 주고는 우선 얘기를 해 보시오. 들어 드릴만 하면 들어드리고 정 불가능하다면 내가 못하는 거지. 우선 소원을 얘기해 보라.”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이 밑에 100여호 되는 부락 사람들이 전부 우리 종놈들입니다. 그래 우리 대감님댁 식구 수저를 보세요. 수저통이 이렇게 큰데 여기 하나 가득 있어요. 이게 식구가 이렇게 많던 식구인데 이 종놈의 새끼들이 종노릇을 하기 싫어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하루 저녁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큰 아버지, 우리 아버지, 뭐 식구를 하루 저녁에 한 명씩 잡아가지고 지금은 다 잡아 가고 오늘 저녁에 마저 잡아 가는 날입니다. 그러니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그거를 안해 준다고 할 수 없고 제 힘으로는 힘에 벅차지, 못하는 거지, 그게. 그래 제 힘으로는 벅차지마는 그러나 덩치 값을 할라고 한 번 우쭐해 볼라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 대감 있던 방과 그 시설이 다 있느냐?”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언제쯤 와서 잡아가겠느냐.”

“밤 열 두 시면 잡아갑니다.”

“그럼 내가 피곤해서 가서 잘 테니 하여튼 촛불을 이 처매 밑으로 뺏둘러 케놓고 그리구는 대감 그 화로 쓰는 데다. 화루불을 이글이글하게 담아 놓고 대감 피시던 담배와 대감 장죽, 그것하고 갖다 놓고. 거게다가 저 테이블을 하나 놓은 것 갖다 놓고 거게다가 자부동을 하나 깔아 놓고 높이 이렇게 준비를 다 해 놓고, 내가 잘 테니 12시에 오거든 11시경에 깨워라.”

그 여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이 식충이는 피곤하고, 밥을 잔뜩 먹고 하니까 둔너서 자는 겹니다.

그래 어느 땐가는 깨우길래 일어나서 안내를 인체 여자가 해주니까 대감방에 가니 대감방에서 이렇게 내다 보면 쌍바라지 문에다 거게 대청마루가 있고 그 대청 마루 앞에는, 밑에는 큰 100

명이 이렇게 집합할 수 있는 연병장 모양 큰 마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는 마당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거게다 그 문, 쌍바라지 문을 확 열어 놓고, 그 화룻불에다가 장죽, 장죽이 한 발이 넘어 저게 있는 화룻불에다 담배 피우고, 그래 인제 책상위 높은 테이블에다 꼭대기가 자부동을 깔아 놓고 이게 워낙 덩치가 큰 게 참 그렇게 높으게 앉았으니까 뭐 천장에 닿을 듯하게 참 거창하게 앉아 있는데.

그러니 그 얼마쯤 있으니까 동 동 동, 소리가 나드니만,

“하, 이놈의 집안 오늘 중으로 마지막 가는 날, 집안이라 그래는지, 야 좋긴 좋다. 화려하다.”

그래 인제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나거든, 그래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게.

“이놈의 새끼들아, 천하 고약한 놈의 새끼들!”

여인이 인제 반응을 하느라고 그랬겠지.

“이놈의 새끼들, 우리 오라버니가 오셨는데, 오라버니한테 물어 보구선 잡아 가던 지 해라. 이놈의 새끼들!”

하고 소리가 난단 말이야.

“응, 느이 오라버니가 오셨어?”

“그 느 오라버니 어디 계시냐, 느이 오라버니 잡아가고, 내일 저녁에 너 잡아 가마. 그게 잘 됐다.”

그래 와서 마당에 와서,

“어디 계시냐?”

“저 대감방에 계시다.”

그래 마당에 와서 대청마루에서 방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깐 아니 뭐가 산더미 같은 게 앉았는데. 저게 사람인가, 참 그릴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하거든.

그래 눈깔이 이래 햇트라이트 모양 꺾박꺾박하는 게, 담배 장죽

도 기단 것 갖고 벽벽피우고 그러니 100명이 다 덤벼서 확 덤빈
대도 저걸 당할, 당하지 못하겠고,

“저걸 어떻게 때려 잡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 한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가,

“아하, 저걸 잡는 수가 있다. 저걸 잡으려면 몇 백년 묵은 산호
랭이 한웅큼으로 움켜쥐서 잡은 천애장사님이 계시대, 그래니깐
아무 소리 말고 우리 집에 말이 있어, 말이 있으니까, 또 어디 또
말이 있고, 그게 천리말이다 그거야. 그 천리를 하루 간다 그거지,
하루 가는데. 빨리 치면은 순식간에 칠 수 있으니까 그 말을 탁
가서 하나는 거기 가서 그 장사님을 모셔 오는데 그 말을 태워
가지고 이렇게 말 하나 끌고 가서 그 장사님을 모셔 오도록 해
라.”

“그래, 하겠다.”

인제 그게 곁이 나서 밤에, 밤에 그냥 신속하게 가서 그 말을
타고서 하나 비상용으로 끌고서 그 부락을 들이 달려 들어가니
그 뭐 자기가 순식간에 들어가지, 천리말인데, 그래 뭐 예를 들어
40분만에, 불과 한시간만에 들어가든가 그랬지.

거기 들어가 보니, 벌써 열 두 시가 넘어서 조용한데 그 부락
에. 그러나 어느 어느 집의 어느 사랑방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나서 가서 거게가 내려 가지고 내려서 말을 인제 매 놓고 들어가
서,

“주인 양반 계십니까?”

하고 찾으니 그 놀러 온 사람들이 인제 거게 많이 있으니,

“다름이 아니고 여기 저 산호랭이 잡은 천애장사님이 어디 계
신지 아십니까?”

하니까 그 부락에서 까부는 사람이 있었던지 간에,

“여보시오, 밤에 그 천애장사님은 왜 찾으시오?”

“아, 글세 돈은 얼마든지. 달래는 대로 드릴 테니까, 뭐든지 달래는 대로 드릴 테니까 어디 기시면 좀 아르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까부는 사람이 있던지 뚱뚱한 사람이,
“나요, 나.”

하고 나서거든, 그래 나타나니,

“장사님 그럼 이 말을 좀 타시지요. 우리 부락에 무슨 일이 있어 그랬는데, 뭐든지 돈이든지 뭐든지, 달래는 대로 서슴치 않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인제 그 사람이 말을 탔어. 돈 욕심이 나서 말을 탔어. 말을 탁 도로 여기들이 달려 그 마당에서 대청마루가 그 방을 들이다 보면,

“저기 저 놈이라.”

고 하니까, 딱 보니,

“아, 우리부락에서 산 호랭이 잡은 천애장사님이시다.”

공지가 빠져라고 도망쳐 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100명은 100명의 종이 더군다나 그냥 아주 기절하다, 기절초풍할 정도로 그렇게 떨게 되는 거지.

그래니 그제서부텀. 이놈이 인제 그 소리 이 소리 다 듣고 앉았거든. 그래서 인제 소리를 치는 거야.

“이 천애 고약한 놈들 내가 삼천리 밖에서 느, 행동을 나쁘게 한 대서 느 버릇 좀 고치려고 내가 왔구나, 내가 왔는데 느 이놈의 새끼는, 느 내가 아주 손 하나 까딱 안하고 느 씨를 멸종시킬 수 있어. 고안 놈들.”

하고 소릴 지르니,

“아휴, 제발 좀 살려 주십시오.”

그 100여명은 그 마당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그냥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냥,

“제발 살려 달라.”

그냥 전부 앉아서 엎드려서 빌고 비는데,

“내, 내가 그렇게 성의껏 빈다 하면 인정상 어쩔 수 없구나. 그러니 너 요번 한 번은 내 용서를 해 주겠다. 그런데 용서에 약속이 있다. 약속은 여계서부터 몇 백리 안에는 침범을 하면 나는 침범하는 가족은 일절 멸살시키겠다. 그러니 그걸 느 명심해서 알고 내 용서를 해 줄 테니까 느낌이 돌아가거라.”

아주 뒤 죽은 듯이 사라지고 말았어. 그래서 깨끗하게 인제 그 일을 해결 봤어.

그리구선 날이 인제 밝아서 인제 또 인제 밥을 해 여인이 밥을 해 줘서 먹고, 그래니 대우가 참 특대우자. 특대우야. 특대우를 받게끔 되었어. 또 이 식충이가. 그러니까 대우를 받고, 있다가 보니까 사흘만에 전 가기 싫지마는 어디 한번 그래 볼라고.

“아이, 가겠다.”

고 하니까, 아, 여자가. 안 보내 줘, 보내면 인제 죽을 판인데. 그래 안 보내고 있으니 자꾸 대우하니 결과적으로 그 여자는 그 남자하고 같이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요것은 매듭을 마치고….

<유만석, 남·50, 설악동, 1981. 4. 18>

【민담16】

□ 어느 선지자의 예언

옛날부터 여자는 산에 안데리고 다녔잖아. 매누리는 남이고 딸은 도둑놈이야. 저는 안되고 친정만 잘된다잖아. 그래서 옛날엔 산에 안데리고 갔잖아 그랬어.

요즘엔 안그렇잖아 내가 여기와서 살은지 충청도에서 45년쯤 됐잖아. 아휴 여기 첨에 와서 비포장된 이 길도 다니면서 맨날 울고 살았어요.

눈도 엄청 많이 오고 눈이 오면 여기서 이웃집도 못 가게 왔어 지붕하고 땅하고 딱 닿게 왔어요. 그래서 눈이 오면 지붕을 뜯어다가 남의 집 지붕을 뜯고 때서 막 집도 부시고 그렇게 심한 데가 여기였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산에서 공부한 분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몇 년 더 가면 여기가 큰 건물이 들어서서 바람도 안보이고 눈도 그렇게 많이 안와서 별천지가 된다고 하더니 그때가 왔어요.

지금 그래서 그전같이 바람도 안 불고 눈도 많이 안 와요. 여기 산이고 집이고 오니까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되로 갈래도 갈 차비가 없어서 못갔어요. 이룬데 오니까 뭘 벌이가 있어야죠. 농사지어서 떨어지면은 죽끓여 먹고 그렇게 먹었어요. 지금은 다 부자 됐어요. 발전해서 그래서 여기는 학사평이고 저기는 자활촌이 예요.

<이복순, 여·68, 학사평, 1999. 12. 7>

【민담17】

□ 여자 배성주

여기는 여자 성주가 많고요. 배를 만들어 배 내릴 때 고때 성주를 모셔놓고 술 한잔씩 올리는 거지요. 그거는 항상 비는 것보다 마음으로 성주 앞에 배에서 술 한 잔이라도 할 때는 성주 앞에 올리고 바닥에도 뿌리고 마음으로 모시는 거지요.

첫 설망할 적에 처음에 올라오는 고기, 그걸 성주님한테 모시지

요. 일년에 한 번씩 같지요. 그전에는 명태를 올렸는데, 지금 현재는 오징어가 많이 잡히니까 오징어를 올리지요. 성주는 실하고 한 지고 모시지요. 육지나 바다나 모시는 거는 한가지요. 함경도 단천에서는 단지귀신모시지요. 귀신 묶어서 단지에다 싸 가지고 집 뒤에다 모시지요. 무당 들여놓고 귀신을 잡아서 모셔놓지요.

<이학주, 남·63, 청호동, 1999. 12. 15>

【민담18】

□ 영랑호에서 다시 만난 친구

어느 때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아득한 옛날 일이라 합니다. 한 동리에 그 다정한 두 친구가 서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우연히 이별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다정히 지내던 그 친구와 갑자기 이별을 하게 된 것이 서러워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의복을 적셨지요. 적시면서 이별하고 통 그 소식을 모르고 한 10년이 지나도록 서로 중무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 하루는 이별하던 그때 그곳에 당시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이 그때에는 청운에 돌아갈 것이며 나는 청유산을 바라보고 돌아간다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친구중의 한 사람의 이름은 만수 만취 오옥령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서로 헤어진 지 10년이 지난 그 어느 날 오옥령은 관동당력이 되어 해상을 순회할 제에 10년 전에 이별했던 친구를 영랑호에서 작은 배를 타고서 즐기고 있는 것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그때 그 오공이 말하기를,

“군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하고 물은즉 나는 미시령 아래 화엄사 동굴에서, 동굴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고 또는 그 회령군에도 있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이 하루는 그곳을 한 번 찾아서 친구가 말하던 굴에 들어가 본 즉은 일월이 명랑하고 주택이 화려하며 또 춤추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공은 참으로 가여히 여겨서 다시 그 친구를 보고,

“군은 어떻게 하여 이곳을 알고 찾아왔는가?”

하고 물어본즉,

“이런 곳이 수 십여 처가 있다고 말하므로 그후 재차 찾아갔으나 알 길이 없었다.”

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알 길이 없고 심천봉이 돈봉 학산 잡록에 상세히 찾아보아도 그곳이 어디인지 전연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설에 의하면 그곳은 잠시 본 무릉도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장현영, 남·54, 중앙동, 1981. 4. 27>

【민담19】

□ 이 부잣집 구렁이

옛날 영랑동에 이부자가 살았어. 이부자가 어떻게 부자됐냐면 구렁이 때문이야. 그 구렁이가 이부자가 장사나가면 꼭 따라다니면서 지켜주는거야. 어느날 이부자가 장사 때문에 배를 타게 됐어.

물론 구렁이도 함께.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크게 부는거야. 그래 장사는 가야 하는데 바람이 부니 이부자가 고민이 되지. 그래 결심한 끝에 배를 탔지. 근데 말이야 배를 탔는데 갑자기 배를 묶어둔 줄이 풀어지는 거야. 이부자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줄이 끈어지지 않는거야. 지켜보던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생각했지.

바람이 잦고 줄을 보니 구렁이가 자기 몸을 칭칭 매 줄을 연결시켜 놓은 거야. 결국 구렁이는 죽었지. 구렁이가 죽으니까 이부장의 재산도 붓물터진 물처럼 빠져나갔지. 결국 구렁이오 이부자는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거야.

<이성철, 남·82, 영랑동, 1999. 12. 17>

【민담20】

□ 장사가 되어 다시 찾은 부인

옛날 기적 깃날, 깃적 귀뚜라미 소실 적에, 아이 적에, 다윗적에, 띠꺼머리 총각 전에, 그 어느 디 났방앗간을 지나 가드니까 어여쁜 아가씨가 방앗간 안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깐 얼른 들어가서 그 아가씨는 어떻게 이쁜지 툽 떨어진 제 제비 갈구, 기어가는 꿩 갈구, 까치 뱃바닥 갈구 구렁이아래 턱내가 같애요. 아래 턱내가 같은데, 그래서 들어 가서 손목을 꼭 잡았더니,

“이 새끼야, 너 왜 남의 손목을 잡아? 니가 엇저녁부터 내 손목을 잡고 바들 바들 떨더라. 나는 하늘이고 너는 땅이야.”

그리고 꼭 손을 붙잡고 그랬는데, 그 부락에는 한 가장이 살았는데 그 가장이, 그 가장에는 그 옆 웅달집이고 이 집은 웅달집이고 양지집 웅달집 양쪽에 부락들이 살았어요. 그래 양지쪽 사람하고 웅달쪽 사람하고 같은 친구고 또 그 친구의 아들이 툽 같이 결혼을 했구 그러니까 그 친구가 모여 앉아서,

“자네 아들이 아기를 낳으면 손자 아닌가?”

“손자지.”

“손자든 자네 네가 딸을 낳고 우리가 우리가 아들을 낳고, 우리

가 딸을 낳고 자네가 아들을 낳든가 우리 혼인을 하세.”

이래 가지구 그 구두(口頭)혼인을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 웅달 집이어서 아들을 낳고 양지집이서는, 아니 바꾸어졌구나. 양지집이서 아들을 낳고 웅달집이서 딸을 낳구 그랬는데, 딸은 얼굴이 참 돌아 오는 보름달 모양으로 얼굴이 둥그스름하고 아들은 초싱달 모양으로 반달 모양으로 얼굴이 뾰어요, 얼굴이 반 쪼가리 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그러니 저 할아버지가 구두 결혼 언약을 헨 걸 애들은 모르고 서루 무럭 무럭 자라가지구 이제 결혼을 할 나이가 차 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그러니 신랑 녀석은 못 생기고 신부는 잘 생겼어.

그래 신부가 어떻게 이쁜 지 신랑 녀석이 신부한테 떨어지려고 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 계속 같이 한문 공부를 하구 이렇게 있는데, 근데 밤에 화장실에를 간다구 그래두 신랑 녀석이 꼭 따라 가구, 신랑이 가도 부인이 따라 가구, 그래서 그렇게 같이 땡겼는데 한 날 저녁에 그 신부가 화장실을 가는데 신랑이 따라가질 못하게 땡어요.

그래 따라가질 안했는데 그래 금방 갔다 올 텐데 30분이 지나도, 한 시간이 지나도 안들어 오거든. 하두 이상해서 신랑이 나가 보니 화장실에도 사람이 없고 어딜 가나 사람이 없어요. 그래 찾아보니, 밤새두룩 자기 처가집까지 쫓겨 뛰어 땡기면서 쫓겨 그 부락을 싹 뒤져두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 날이 샐는데 신랑이 인제 어딘가는 낮에 보따리 싹 짊어지구 어딘가는 가 가지구 돌아땡기면서 문탐을 해 봐두 어디 누구든지 모른대요. 어느 부락에가서 해두 모른데구. 그래 탄 부락에 가서 물어 보니 다 모른데는데 어느 쪼그만 귀동자가 하나 나타나더니 ‘자기가 봤다 그거야’. 자기가 봤는데,

“권해 장사가 우측 옆구리에 끼구선 산을 주름을 잡아 동쪽을

향해 나갔다. 동쪽을 향해 갔으니 동을 향해서 찾아가야 당신을 만날 수 있는데 당신이 가서 만날래면은 밤, 밤, 생률(生栗)제사 때 쓰는 거 같이 깎아 가지고 깎은 밤 서 말, 계피떡, 계피떡을 세 개. 깎은 밤 서 말은 그 밤이 떨어질 때까지 하루 한 개씩만 먹으면서 떨어질 때까지 가야 한다.

가야 그 집을 당도한다. 그렇게 멀지. 그리고 계피떡 세 개, 명주 세 필, 계피떡은 그 집에 가면 대문이 세 개 있는데 대문 하나에 호박개 한 마리씩 매 있단 말이야. 호박개가 낫선 사람이 오면 물어 죽인데. 호박개라구 아주 큰 게 호박개라구.

그전에 아주 말만한 개가 호박개라구 있어. 그러니 낫선 사람이 들어오면 물어 죽이기 때문에 얼른 던져서 그걸 뭘 던졌나 하고 돌아서는 사이에 대문을 통과하라구 해서 세 개, 대문이 세 개니까 호박개도 세 개고 세 개를 가져가라구. 그래서 가져가는 거고.

명주 세 필은 가다가 강이 나타나는데 그다지 깊지도 얇구 아니 그 깊은 데는 한 길 넘구, 그래 가지구 그 명주 세 필을 가지구 그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명주 세 필을 가져가는 거라구, 그래야 당신 부인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찾아 가라.”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 와서 자기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 계피떡 그거 해주구 양쪽에서 그냥 밤을 깎아 가지구 서 말을 해서 주구, 명야 세 필 질쌌하는 거니까 명주 세 필해서 전부 해서 싸서 쥐서 깊어지구 가는데 하루 가다 밤 한 톨 먹구 하루 가다 한 톨 먹구 저믄 때믄 밤 한 톨씩 먹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래두 얼굴에 살이 붙었던 게 말라 가지고 젓갈짜(젓가락) 모냥(모양) 뻥따구(뻥다귀)만 앙상하게 남구 이래니 그저 목숨만 붙어 가지구 가는데 물이라도 가다, 어디가다 물이라도 먹구 그러는데 그래 밤이 한 반 없어지다 보니까 강이 있

어서 명주 세 필을 가지구서, 명주 세 필을 던져 가지고 강을 건너 갔어.

그래 명주 젖었으니까 거게다가 내 던지고 거 동쪽을 향해 가다 하루 가다 한 개 먹구 하루 가다 한 개 먹구 매일 그렇게 아주 누차에 걸쳐서 몇 달이 걸렸든지 간에 그러는데 어디꺼정 갔는지 밤이 인제 몇 알 안 남았어. 한 서너 톨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거의 다 왔나 보다.”

가다, 하루 종일가다 저녁 때 밤 한 톨 먹구, 또 그 이튿날 또 진종일가다 저녁에 밤 한 톨 먹구, 또 그 이튿날 진종일가다 저녁 때 밤 한 톨 먹구 그래 백다구만 남아 눈깔만 남아 눈깔만 텅해가지구 정말 누가 보든지 간에 몰라 볼 정도로 그렇게 말라 있는데 그래 인제 밤이 한톨 남았는데 이젠 거진 왔나보다 하구 가다 점심때가 되어서 어느 능선에서 영에서 밤을 먹구. 그러니 어딘가는 지금 저렇게 떠드는 거 모양으로 막 떠드는 소리가 나는 거 같거든.

그래 이거 어떻게 되어서 떠드는 소리가 나는 거 같거든. 그래 이거 ‘어떻게 되어서 떠드는 소리가 이상하다’ 하고 넘겨다 보니까 그 안에는 거 참 아주 벌판인데 앞에는 모래 사장이구 현대 거기 큰 개울이 흐르는데 아, 개울가에는 어느 아낙네들이 그냥 잔뜩 앉아서 빨래 하느라고 히히덕 거리고 앉아 웃고 떠들고 빨래를 하고 앉았거든요.

아하, 그래 인제 바짝 념게다 보니까 거기는 기와집이 아주 엄청 큰 게 두부로 같이 네모 반듯한 게 그런 구당 같은 기와집이 있어. 아하, 여긴가 보다 하구 찾아 내려갔어.

내려가 가지고 떡 대문에 가니까 호박개라고 하는데 명명 하구 하니까 계피떡을 끄내 가지고 획 던지니까, 획 던지니까 물을려구 획 돌아서는 사이에 그 대문을 들어 가구, 또 그 다음 대문도 마

찬가지고, 고 다음, 고 다음 이렇게 세 대문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대문을 다 들어 갔더니 자기 부인이 섰거든. 자기 부인이 섰는데 자기 남편인지 모르지, 말라서.

그러니까 인제 이 신랑 녀석이 자기 부인을 알아 본 거지. 눈을 가죽이 모잘라 뚫어 놓은게 아니니까. 보래는 거니까. 눈은 정신이 있으면 보는 거니까 암만 몸은 말랐거니와 눈이야 보이지. 그래 참 자기 부인이 있으니까.

“아, 여보!”

그러니까,

“아, 누구냐?”

고, 자기 부인이 하는 소리가.

“아, 나 사실 이만 저만 나라구.”

“아, 그러냐?”

“그러면 이리 오라.”

그래 뒤에 뒤로 돌아 가더니만 그 전에는 어느 바우에서 어느 장수들만 먹는 장수물이 있어, 장사물이 있어 가지고 그걸 먹으면 장사가 된데. 힘이 세어지구 그래 그 물을 먹을 라구 하는데 보니 그냥 뭐 정말 엄청난 집채만한 돌맹이루다 뚜껑을 막아놨는데 그걸 열어야 먹는데 그걸 어떻게 도저히 열 수가 없습니다.

똥,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유 빨대모양으로 그냥 빨대를 해 가지구선 이렇게 빨아먹으라고 주니까 그래서 얼마쯤 들이 빨아먹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점점 정신이 나 가지고 아주 정신이 나는데 그래 가지고 나중에 얼마를 빨아먹구 며칠 동안 빨아먹었어.

빨아먹구 있으니 정신이 나니 나중에 물 뚜껑을 퓌 여니 번쩍 들리거든. 그래 열구서는 가 가지구 물을 막 들어 올려서 떠 먹고 실컷 먹고 이 사람이 아주 똥똥하게 천하 장사되었어요. 그러니 이 집 장사는 인제 삼천리 도둑을 나갔는데 도둑을 나가고 집이

비어 있는 찰나인데 이 인제 자기 신랑은 완전히 장사가 되었으니까 저 햇간으로 들어 가라고 들이 몰아서, 햇간이 아주 큰 햇간이 있는데, 밑에는 마루가 방같이 깔려 가지구 아주 두껍게 이다가 깔려서 바깥에 스프링장치가 돼 가지구 이걸 속 잡아 땡기면 이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져 이 안으로 이걸 아주 껌껌한 난간이야.

이 안은 이 무루 밑에는 그런 장치를 해서 나쁜 사람은 그 안에다 떨어 뜨려 죽이고 이 장사가 그랬는데 그리루 들어 가라구 자기 부인이 그래서 인제 가만히 보니 뚜껑을 갖다가 이 장사두 좀 영리하지 못하지 이 집 장사보다야 기술 면에서 많이 떨어지지만 기운이 세지.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 집 장사는 거기 집 덩어리만한 거기 공 모양 볼 모양 이렇게 동그란 돌이 거기 있는데 거기 뒤에 있는데 아주 그 뒤가 넓어 가지구 집채만한 게 있는데 이걸 한 손으로 해 가지구 획 던지면 모래 아침에 떨어진데. 하늘로 던지면 모래 아침에 떨어진데. 하늘루 던지면. 그러니까,

“당신 던져 보라.”

그러니까 아주 자기 신랑이 이렇게 이렇게 던졌는데 내일 아침에 떨어져. 이직 멀었다구 물 더 먹으라구, 그래 물을 더 먹어. 얼마 더 먹구 나서부텀,

“이제 던져 보라”

이렇게 해서 들구서 획 던져 보니 글피 아침에 떨어져, 글피 아침에 떨어지니까 이 집 장사는 모래 아침에 떨어지는데 하루 더 있다 떨어지니 더 씨게 더 멀리 올라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해 가지구서 인제 놓구 그 햇간으로 들어 가라구 하니까 물통을 갖다 깔구선 이 장사가 햇간에 들어 가서 앉아 있을 거야.

그러니 얼마쯤 두 내외가 있을 때니까 아주 땅이 찌르르 하더

니 땅이 ‘쿵’하거든. 그러니 천리 들어왔다 이거야. ‘쿵’하는데 천리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 조금 있더니 또 찌르르 하더니 쿵하구 그래 이 천리 들어 왔다구. 조금 있으면 인제 마루와 툽 떨어지는 거야.

인제 삼천리까정 오는 거로 그래서 자기 부인이 빨리 나갔어. 나가니까. 나가 가지구 원래 저 먼저 그 여자들을 다 훑쳐다가 빨래하는 여자들인데 이 장사가 다 훑쳐 왔어.

훑쳐 오고 그 집은 뭐 창고에 가보면 고기 그냥 통소가 있고 돼지 고긴 뭐 술이니 진창 아주 도둑놈이 죄 훑쳐다가 여자 두이쁜 여자들 죄 훑쳐다 한 50명두 죄훑쳐다 놓구 전부다 그런 도둑질 하는 장순데 그래 가지구 여자가 주인을 잡으려고 여자들끼리 서루 짜 가지구,

“요번에 인제 우리 도둑 나갔다 들어오시면 우리 특대우로다 술도 많이 드리고 하자.”

이렇게 짜구 하구 있었는데 얼마쯤 있더니 ‘쿵’하구선 마루가 툽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얼른 나가 가지고 있다가,

“아 영감님, 이제 오시냐?”

그래서 맞아 들어 가지고 아, 딱 떨어지더니,

“아, 누가 왔어?”

그러거든.

“아, 누가 오긴?”

“아, 누가 왔어? 왜 거짓말은 거짓말이야. 이 년이 누구 앞에서 거짓말이야?”

“아, 우리 오라버님이 왔어요.”

“아, 우리 오라버니가 왔으믄 왔다고 해야지, 온 걸 아는데 왜 그래, 어딴어, 창고에 있지?”

“창고에 있어요?”

“그놈 새끼 잡아 죽여 놓구서 올라 가야겠다.”

바깥에서 스프링을 잡아 댕기면 쪽 밀려 가서 여기 빠져서 죽게 돼 있거든. 그렇게 돼 있는데 잡아 댕기는 거, 벌써 댕기는 걸 알거든. 와서 잡아 댕길 줄 알고 이 사람두 그래서 어디 턱 올라 붙으면서 얼른 올라 서니까 쓱 잡아 당기니까 안 잡아 댕겨지다가 얼른 올라스니까 확 댕겨져서 마당에 와서 얼마쯤 있다 쿵 소리가 나거든.

“응, 인제 저 새끼 죽었구나.”

돌맹이 떨어지는 소리지 사람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거든. 그래 가지구 완전히 인제 죽은 지 알고 이 사람은 들어 가니 그 부인들이 아주 서방님 오셨다구 그냥 술, 이 소다리, 소 뒷다리 하나가 안주 한 것같이야. 한 것같이구 술이 다리로 하나가 한 잔이구 그저 막 막걸리 뭐, 그냥 별 술다 많지. 그전엔 막걸리두 농주 진 짜지. 어디 지금 막걸리와 같은가, 독하지. 그래 한 자리에 몇 잔을 한 이십 잔두 더 먹었어. 그래 가지고 인제 골아 떨어졌는데 자기 부인이 언젠가는 나오더니 나오라구 그러니 어디서 칼을 큰 비수를 갖다 쥐 가지구서,

“이거 가지구 가서 목을 치라고. 골아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눈을 뚱그렇게 뜨고 있거든. 아, 그래, 골아 떨어졌다는데 눈을 뜨고 장사는 눈을 뜨고 자거든. 아, 저저 자니까 겁이 나서 못찌르고 있는데.

“아, 지금 자는 거라구, 정신 없이 골아 떨어져 있는데 왜 가만 있느냐구 들어가라구, 내 부엌에 들어 가서 재를 싸 가지구 들어갈 테니까. 빨리 들어 가서 목을 치라.”

그러다가 들어 가서, 에이, 들어 가서 자빠져 있는 것을 목을 냅다 쳤어. 목을 치니까 목은 천장에 딱 올라 붙고. 몸뚱이가 들어 누웠든 게 벌떡 일어 나서 웅웅하고 돌아 댕기구 말이야. 그러

니까 자기 부인이 재를 부엌에서 싸 가지구 와서 그냥 몸뎡이, 목 떨어진 자리에 피 나오는 데다 딱 재를 끼 얹어 가지구 허니까, 목이 도로 와서 붙을래니까 붙지 못하지. 그러니까 몸뎡이는 그냥 슬슬슬 돌아 뎡기는데 대가리는 공중에서 천둥치듯, 호령하듯,

“이년, 천하 고약한 년들 같으니라구. 니가 어쩐지 오늘만은 더 이상하더라. 씨비스가 이상하더라. 이년들 아니나 다른가 이렇게 봉변을 당하게 되었구나. 이 천하 고약한 년들.”

하면서 또 와서 붙을래다 못 붙구 역시 얼마쯤 떠들다가 또 와서 붙을래다 못 붙구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말두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와서 폭 떨어졌어. 이 모가지를 던지구 몸뎡이도 던져 가지구 지금까지도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거구, 결과적으로 인제 보물을 전부 여자들을 전부 모다놓고 이 장사가,

“너 이 집에서 금은 너 가져 가고 싶은 보물 얼마든지 싸 가지구 가져 갈래면 가져가고 이 집에서 살 여자는 우측으로 앉고 나갈 여자는 좌측으로 앉아라.”

그래 우좌를 가려 가지구 집합 시켜놓구. 그래 나간다는 여자는 저 고향으루 찾아간대는 여자는 저 가져 가고 싶은 대루 이 집에 있는 거 뭐든지 가져 가라구 해 놓구선, 있는 대는 여자는 일정하게 이렇게 놓구 칼을 가져 가지고 목을 쳐 가지고 일정하게 죽이고 나간 대는 여자는 다 보내구.

그러구서는 저 두 내외의 나와 가지구 그 집에다 불을 싸 놓고 두 내외 나와 가지구 자기 부인 옆구리에 차구 산을 주름 잡아 자기집으로 와서 잘 살다 죽더래요.

【민담21】

□ 제일 힘센 막내동이 장사

어느 두메 산골에 두 부부가 살다 보니, 아들을, 첫 아들을 낳았는데 고 다음에도 또 아들, 고 다음에도 2년 차이로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이래서 아들만 아홉을 낳았어요. 9형제를 낳아 가지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즈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들만은 장사더란 그 말이야.

장산데, 한 날은, 밥을 먹는 밥상에 앉아 즈 아버지 보고 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아버지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부 장사 아납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싸움을 하고 이기고 오면 좋지 않습니까?”

“아, 물론 싸워 이기고 온대 면야 좋구 말구.”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장수끼리 싸움을 하는 게 흔히 많았습니다. 그래 인제 아무날,

“아무 날은 우리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그래, 가서 성공하고 와라.”

즈 아버지한테 결재를 맡고서 그 날이 돌아올 때는 고대, 고대 기다려 가지고 날이 돌아 오니까 아들 9형제가 떠났습니다. 그냥 정처 없이 아무 데나 가고 싶은 데로, 내키는 대로 걸어가는데 어딘가는 가니 설악산 보다, 더 깊은 산중 심심계곡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들어가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어 오는데 어딘가는 대문이 하나 보여서,

“주인 양반 계십니까?”

하고 찾으니, 대답이 없어, 그래 대문을 들어서며,

“주인 양반 계십니까?”

하니 대답이 없고, 그래 대문을 자꾸 들어서면서 주인 양반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자꾸 들어가 보니, 마지막으로 들어가니, 문을 열 두 대문을 들어가서 주인 양반을 찾으니까 어여쁜 아가씨가 하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

“다름이 아니고 지나가는 객인데 하룻저녁 쉬어 갈 수 없겠습니까?”

“여기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왜 안 됩니까?” 자고 갑시다.“

그래 자고 가자고 하니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여기는 위험한 데라서 당신네들을 못 재우겠습니다.”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우리가 전부 천애장산데 위험한 게 있대면 우리가 해치면 될 게 아니요?”

“아이, 당신네들이 해치지 못합니다. 여기는 아주 깎짓동만하고, 몸이 아주 여덟 자나 되는 큰 사람이 뿔이 아주 이렇게 크게 굽다란 게 양쪽에 나고 눈이 자동차 헤드라이트 모양 큰 게 아주 천애장사가 왔다 갔다 하는 집입니다. 당신네 들은 그 장사에게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당신네 들을 위해서 잠은 안 재웁니다.”

“우리가 천애장사니, 그까짓 우리가 잡아 버릴 테니 우리 우선 시장하니깐 밥이나 우선 해 주시오.”

그러니 밥은 해 주겠다고 그래, 밥을 먹구선 피곤하니까 자겠다고 그러면서 그 장사가 언제쯤 오느냐 하니까, 밤 열 두 시면 들어온대요. 그래 밤 열 두 시만 되면 들어오는데, 여자보고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이 열 두 시 되기 전 11시경에 우릴 좀 깨워 주시오.”

“깨워 드리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래 인제 드러 누워 아홉이 전부 다 잤지요. 자고 있는데 어느 땐가는 여자가 와서 깨워서 일어나니,

“인제 일어나 가지고는 배치하는 겁니다.”

열 두 대문에서 제일 말형이 앞에서부터 고 다음, 고 다음, 막 내가 맨 앞을 서고 열 두 대문의 아홉을 차지하면 세 대문밖에 안 남았다. 그러고 있는데, 거의 열 두 시가 되었는데, 어디서인지, 걸음 걷는 소리가 쿵쿵쿵 하며 땅이 쿵쿵 울려오거든. 그래 겁이 나서 말형이 앞에 대문 하나를 걸었는데 쿵쿵쿵하면서 들어 오더니만,

“문 따거라,”

“문 못 따 놓겠다.”

“문 못 따 놓겠느냐? 이 열 두 대문을 집어 던진다.”

그러면서 휘휘 잡아 당기니 들먹들먹 합니다. 대문에 한 사람씩 꼭 앉았는데 들먹들먹해요. 그래 문 틈으로 이렇게 내다 보니, 아주 엄청나게 큰 사람이, 아주 눈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만 생기고, 눈썹과 코가 이렇게 크고 입이 두 자나 되는 큰 사람인데, 못 따 놓겠으면 이 대문을 전부 부순다.

“이 자식들, 내가 누군지 아니? 이 자식들아, 못 따 놓겠니?”

“그래 따 놓을게.”

“그럼 따 놓아라.”

그래 문을 떠억 따 놓으니까는 이 천애장사가,

“너 이거 한 대 받아라.”

퍽, 입에서 불이 싸악 나와 가지고, 이 통만한 게 그냥 나와 가지고, 그 아주 타서, 불에 타서 고 아주 타서 죽었죠, 첫째가. 첫째 성(형)이. 큰 성이 인제 죽었죠. 고 다음에 고, 아주, 둘째 아들인데,

“너 이거 한 대 받아라.”

또 셋째 아들 세 번째에게,

“이거 한 대 받아라.”

혁 죽고, 넷 죽고, 다섯째 가서 다섯째 보고,

“너 이거 한 대 받아라.”

혁, 해서 죽고, 여섯 번째 들어가서,

“너 이거 한 대 받아라.”

혁, 여섯 죽고, 일곱 번째 들어가서,

“너 이거 한 대 받아라.”

혁, 일곱 죽고, 여덟 번째 들어가면서,

“너 이거 한 대 받아라.”

혁, 여덟 죽고, 아홉번째 들어가면서,

“너, 이거 한 대…”

너 이거한대…말 떨어지기 전에 모가지를 반 이상 잘랐습니다. 막내가 그래니까 획 하는게 아주 그냥 뜨거운 김이 획 나오거든요.

“너 이놈의 새끼, 우리 형님들 다 죽이고, 이놈의 새끼.”

하면서 아주 그냥 빠른 동작으로 모가지를 잘랐더니, 모가지가, 푹, 공중으로 천상에 올라가 붙고 몸때이(몸)만 서서 돌아다니는 것을 흠을 파서 몸때이 나오는 데다 모가지 떨어진 데다 얼른 붙이고 흠을 끼얹어 놓고 그러더니 천상에서 호령을 하더니만 흠이 붙어 가지고 흠으로 피가 나오는 곳을 막아 났으니 거 붙지는 못하죠.

그전에 장사들은 목이 떨어지면은, 목에 피가 있으면 거게 척하고 가서 도로 붙었답니다. 그래 붙지는 못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힘이 없으니 푹 떨어지니, 대가리가 이제 뭐가 됐냐 하면 바깥에다 냅다 내던지니 어디 떨어질런지도 모르죠.

그래 지금도 5형제가 되던지, 몇 형제가 되던지 간에 막내둥이를 으뜸으로 세지요.

<유만석, 남·50, 설악동, 1981. 4. 17>

【민담22】

□ 집안의 세 가지 소리

이거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긴데 집안에는 세가지 소리가 나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우는 소리가 나야 하고, 두 번째는 글 읽는 소리가 나고 세 번째는 베짜는 소리가 나야한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린가 하면 애우는 소리는 집안에 자손들이 흥하게 되서, 에 잘된 다는 얘기고, 그 담에 글 읽는 소리는 자손들이 글읽는 학문을 연구해서 출세한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담에 베짜는 소리는 경제를 튼튼하게 맨든다는 그런 뜻에서 세 가지 소리가 집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있습니다.

현대는 한가지 더 첨가해서 비오는 소리가 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문, 농사가 잘 될라면은 비가 마침 잘 와서 그래야 우리가 잘 살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서 현대에 와서는 네 가지 소리가 제일 듣기 좋다는 뜻입니다.

<김용구, 남·68, 동명동 14/2, 1992. 3. 27>

【민담23】

□ 향아리 산삼

옛날 한 늙은이가 다 죽게 되었으니 ‘산에 가서 몽사를 한 번 깨서 심(산삼)이나 한 번 얻어 봐야겠다’하고 그래 심 구경도 못 해 본 늙은이야. 아 그래서 정성을 들여설라무네 뭐라고 정성을 들이느냐 하면, ‘그저 산신님 빌 줄도 모르지만 이제 달라’고 하니 그저 할 말이 없더라.

“산왕대신이 그저 향아리 심을 내 주십사. 향아리 그러나 독심을 내 주소사.”

하고 며칠을 빌었더니,

“너 재물이 뒤에 있으니 올라가 봐라.”

그래 올라갔대. 심이 있어. 심이 있어서 췌어. 캐서 심을 너래반 석 있는데 내려 보니 속이 궁글(비)었던 말이야.

“이 놈 내줄려거든 바로 내주지.”

속이 궁글어서 향아리 심이 썩은 심을 차니 심이 깨졌단 말이야. 바위에 깨졌단 말이야.

“산신님이 늙으막에 향아리 심을 내달라고 그랬더니 썩은 심을 내 주니 이런 도리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화가 나서 거기에 획 집어 내 던진고 집에 왔단 말이야. 와보니 삼 살 사람이 몽사를 해 갖고 얻어 가지고,

“노인이 간 밤에 며칠 전에 향아리 심 하나 얻은 게 있잖느냐?”

“하나 심 캐 본 것도 없고 본 것도 없소.”

“왜 심을 캐고도 안 췌다고 하시오.”

이렇게 다그치니,

“응 나 심을 캐긴 캬소. 캐긴 캬는데 내가 부화가 나서 돌맹이에 미때렸는데 어떻게 된지 몰라. 가 보자.”

그래 심 살 사람하구 거기 떡 가서 심조가리를 굶어 모아 따깡을 이어 맞추어서

“여기 구녕을 들여다 보시오.”

해서 들여다 보니 동자 아이 스이(셋)가 있더라. 동자 아이 스이더라.

“스이 들어 앉아 있으니 이런 재물을 여기에 미 때리고 이래 있느냐?”

하고 이래 꼭 싸매 가지고 설라무네

“내 아무 때 당신 집에 갈테니 어여 걱정하지 마시오.”

하, 그래 놓고 심 값도 안 주고 그냥 달아났지.

도둑놈 한테 심 값을 놓쳤나 우쨌나 이리고 있더니 며칠 있으니 당나귀에 돈을 자꾸 실여 보낸단 말이야. 아, 그래 돈을 받아 가지고 가난한테 눈 발때기를 자꾸 사네. 맨 마지막 바리에 그 놈의 돈이 오면서 그 사람이 왔더라.

“이만하면 노인이 잘 먹고 지낼끼요.”

그래 한 번 크게 됐단 말이에요. 옛날 이야기지. 큰 향아리 심은 그대로 속이 비었으니 향아리 심은 향아리 심인데 향아리 심은 속이 비었는데, 그 놈은 향아리를 보내달라고 했으니 속이 폭썩은 놈을 내어주니 돌맹이에다가 미때렸단 말이야. 깨구서 심산다는 사람에게는 몽사가 나가지구

“아무래도 니 물건이 있으니 가서 사가라.”

그래 쫓아와서

“심을 캐다가 어떻게 했느냐?”

하니

“아, 산에다가 지다 내 팽겨치고 왔다.”

그래서

“좋다. 가보자.”

가서 이렇게 보니 돌맹이에 심물이 쏟아져 노란 게 있단 말이야. 그만큼 항아리 심이 빈 항아리에 요길 틀어 막구서 요 안을 들여 보라 말이야. 들여다 보니 동자가 들어 앉았다는 거야. 그게 심이야. 약효란 말이야. 그래 그 심 사간 사람도 크게 되고, 심 캔 영감도 크게 됐단 얘기가.

<전달재, 남·72, 설악동, 1981. 4. 17>

【민담24】

□ 헛불 이야기

우리들이 풍선 가지구서네 댕길 적에 바다에 나가면 인제 그 헛불이라는 게 바다에 있어. 날이 구중중하든 배두 없구 그런데 말이야. 불이 쪼끄맣게 빨강게 요렇게 보이거던. 그 헛불이 많이 있지.

옛날 영감들 따라 댕길 때 그걸 들어봤는데 영감들이 그걸 헛불이라고 그러더라구. 그 어떤 거는 어떤 불은 상선처럼 그렇게 상선 같 적에 불켜놓고 가듯 이렇게 꺼정 불이 있어.

“여보게— 여보게, 저기 저 불좀 봐라, 거게 헛불이라는 거네.”

그 날 날이 좀 좋지 않았는데, 그 양반들은 우리들 보다 경험이 많거든. 그래 바다 나가면 그런 불에 홀리지 말라 이기지 인제.

귀신불이라구 헛불 본적이 있어요. 분명히 봤는데 헛불이 목소리까지 다나. 아주 흐리한 게 목소리까지 다 나구. 일하는 거까지 다 나구, 저거 배에 곁에 가 보면 없어져 버려. 사람 목소린데 희미해. 좀 약하게 나는데 그 헛불이 귀신불이야.

바다에서 그건 우리가 직접 봤으니까 그것두 각이 우리가 여럿이 다 들어. 배에서 일하듯이, 배에서 바다에 가서 죽은 귀신들이지. 거기, 그래두 거기 가면 불이 없어져. 금방가면 불이 없어져. '저 배다'하고 가면 없어져. 그 귀신불이라고 그렇게 불렀지. 우리가 헛불이라 그래. 헛불이라고 하고. 그 중얼중얼하지 소리가 약해. 사람 목소리 보담 소리가 희미하게 나온다구. 그래 그게 헛불이야. 이 육지에 도깨불 있듯이 그 한가지여. 그건 내 눈으로 봤으니까.

<천윤이, 남·81, 장사동, 1997. 11. 27>

【민담25】

□ 호랑이와 싸운 할아버지

여름에 더워서 한 할머니께서 밖에서 주무셨다고 해요.

밤에 호랑이가 나타나 그 할머니를 물고 벼락바위로 올라갈 때 호랑이 사냥꾼인 할머니의 아들이 보고 호랑이를 쫓아 올라갔고 결국 호랑이와 할아버지가 싸우게 되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호랑이와 싸울 수 있었던 것이 할아버지도 힘이 굉장히 세셨다고 해요.

할아버지께서 호랑이를 주먹으로 아무리쳐도 죽지 않자 자기 부인보고 도끼를 가져 오라 했지만 누가 감히 호랑이와 사람이 싸우는 곳에 갈 수 있었을까. 할아버지의 부인은 쌀독 뒤에 숨어있었고 호랑이와 사람도 지칠 때로 지쳐서 호랑이는 도망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집에 와 보니 할머니께서 쌀독 뒤에 숨어있었어요.

<어재동, 남·58, 장천, 1999. 12. 1>

【민담26】

□ 효도한 아들

옛날 어느 추운 겨울날에 늙은 아버지와 젊은 아들이 소먹이를 맨들기 위하여 작두에 곡초를 써는데 아버지는 작두 발비를 밟고 아들은 곡초를 작두날에 들이면 곡초를 드려 밀면 아버지가 작두를 밟아 곡초가 끊어지는데 때마침 아들의 어린 것이 할아버지와 아빠가 일하는데 치워서 벌벌 떨어서 서있으니까 애비가 자기가 끼었던 토시를 벗어서 땅에 깔고 아들은 토시짝 위에 올려 세웠지.

할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무심코 혼자말로 ‘나도 저렇게 키웠건만’하고 한마디 하였는데 아버지에게 평소에는 잘못하였던지 감동되어서 그 후에는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였다고 해.

<권억옥, 남·90, 조양동, 1999. 12. 23>

【민담27】

□ 효불효교 이야기

남편과 사별한 미망인이 아들 삼 형제를 키우면서 사는데 낮이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밤이 깊으면 아들들이 모르게 어데론가 가는데 아들 삼 형제가 하루 밤에는 어머니를 미행하였어.

마을 앞에 강이 있는데 다리는 없는데 치운 겨울밤에 강을 건너서 어떤 불빛이 희미한 집 사랑채로 들어가서 남자를 만나는

것을 목격한 삼 형제는 어머니를 위하여 그 강에 다리를 놓아주었지.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불효가 되고 어머니에게는 효도가 되었다는 효불효교(孝不孝橋)로 명명하였다고 하지.

<권억옥, 남·90, 조양동, 1999. 12. 23>

【민담28】

□ 힘센 장사 5형제

옛날 한 마을에 5형제가 있었어. 그 형제는 모두 힘이 장사였었지. 근데 이 형제들은 자신들의 힘이 정말 센지 증명을 해 보고 싶은 거야. 그래 아버지에게 “저희들의 힘을 시험해보고 싶어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 아버지는 “나가서 너희들의 힘을 시험해 봐라” 그러는 거야. 그래 형제들은 자신들의 힘을 시험해 보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 그런데 어느 한 마을에 가니까 괴물이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 형제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5형제가 괴물을 잡아 드릴테니 당신들은 잠시 이곳을 피해있으시오” 하는 거야. 그래 마을 사람들은 형제들에게 괴물을 꼭 잡으라고 하고 떠났어.

밤이 되니 괴물이 온 거야. 형제들은 각자 흩어져서 괴물을 상대했지. 그러나 괴물 힘이 워낙 세서 상대가 되지 않는 거야. 결국 형제들은 차례대로 죽었지. 그러나 막내는 피가 있어서 괴물이 형들을 죽일 때 무방비상태가 되는 것을 보고 냅다 칼을 휘둘러 목을 단번에 쳐 버린거야. 괴물은 목에서 핏물이 팔팔 흘러내렸지.

아 그런데 이 괴물의 머리가 다시 붙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내는 목에 흙을 뿌려 목이 붙지 못했지. 그래도 혹시나 하

는 생각으로 머리와 몸뚱아리를 붙살라버렸어. 그래 막내가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형들은?” 하고 묻자 “모두 죽었어요” 하는 거야. 그래 아버지가 막내를 이뻐했지. 나도 하도 들은 지 오래된 이야기라서 잘 모르겠다.

<이상철, 남·42, 중앙동, 1999. 12. 17>

Ⅲ. 속초 구전설화의 특징



관동읍지(1860년)

인간의 삶 속에는 이야기가 있고, 이 이야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먼 조상들이 움집을 짓고 사냥을 하면서 살았던 시대에서 이야기의 由來를 찾아볼 수 있다. 움집에서 불을 피워놓고 빙 둘러앉아 사냥감을 먹으면서, 狩獵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던 민족이다. 이 이야기들은 사실을 바탕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흥미를 주기 위하여 확장되었다.

확장된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는 상상력이나 허구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허구적 상상력과 현대문명은 깊은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다. 狩獵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화자가 청자에게 전하는 談話樣式은 흥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람이 땅을 달리고, 하늘을 날았다는 허구적인 이야기는 현대사회에서 기계문명을 만들 수 있는 상상력으로 발전되어 우리 생활에 풍요와 여유를 주고 있다. 이처럼 상상력이 때로는 현실보다 강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하였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상상력을 키워왔을 정도로 단순한 지식보다는 상상력을 더 중시하였다.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흥미이다. 이야기에 흥미가 없다면 그 이야기는 이미 생명력을 가질 수 없듯이 우리의 설화에는 흥미와 교훈성이 함축되어 우리 민족의식을 지배해 왔다.

특히 속초지역은 아름다운 바다와 호수 그리고 평야와 산악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연유로 풍부하고 다양한 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속초는 李重煥의 《擇里誌》에 의하면 “이 지방 주민들은 자주 놀러 다니기를 좋아하여 동네 노인들은 기꺼이 妓樂과 술과 고기를 가지고 산이나 물가에 가서 마음껏 논다. 이것으로 큰 일로 삼기 때문에 자제들은 이에 감화되어 학문에 몰두하는 사람이 적었다.”(士人重游衍 其父老 喜載妓樂酒肉 跌宕於湖山之間 以此爲大事子弟化之 少治文學)고 하였다.

이처럼 산과 호수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이곳 사람들의 성격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주장은, 이중환이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접경지역이라는 인식의 부족에서 야기된 無知의 所致이다.

이 지역 사람들은 바다를 통하여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어 바다와 관련된 많은 민속신앙이 존재하고 있고, 이 신앙의 특징은 독자적이면서도 공동적인 요소를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바다에서 풍요와 열정적인 힘을 배웠고, 그리고 호수에서 평화로움과 여유 있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호수와 관련된 놀이문화와 흥미 있는 이야기들이 전해오고 있다.

평야에서는 농경생활을 하면서 기다림의 참을성과 농경문화의 진실한 삶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농경문화에서는 다양한 제례의식과 신을 위한 演戲行爲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산악을 통해서 장중함과 웅장함, 그리고 진리를 배우면서 설악산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신비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 風光으로 많은 詩人墨客들이 이곳을 찾아 자연을 벗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 전해오는 조상들의 삶의 모습과 설화들을 알게 되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지명유래의 특징, 해양설화의 특징, 호수설화의 특징, 산악설화의 특징, 평야설화의 특징으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고찰하였다.

1) 지명유래의 특징

지명유래는 고유어의 역사와 전통, 설화를 간직한 상징적 구연물이다. 그러므로 지명을 통해 지역민의 심성과 기원, 발전, 역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고유한 지명에 대한 인식은 지역 공동체와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다.

《論語》顏淵편에 보면 “齊景公이 問政於孔子하니 孔子 對 曰 君君臣臣父父子子니라” 하였다. 이처럼 正名法 중시하여 지명에도 正名을 우리 민족은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人名, 地名, 官名 등 모두 陰陽五行과 天理에 따라 명명한 것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作名法을 보아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알 수 있다. 오늘날 정치나 사회가 잘 되려면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하고 질서가 붕괴되는 것이다.

束草라는 地名은 많은 설이 있다. 그 중에서 울산바위 전설이나 臥牛形 전설 모두 미래 지향적이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의 의식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降仙 - 道問 - 臥仙臺 - 飛仙臺로 이어지는 지명에서 이곳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가를 알 수 있다.

영랑호와 청초호 호수의 지명에서 이곳이 고대사회부터 산자수명하여 심신을 수련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많은 젊은이와 지식인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워 왔음도 알 수 있고, 所野八景의 아름다움과 권금성의 지명에서도 웅장함과 장부의 기개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상도문이 배형국으로 배가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돌로 막고 우물을 파지 못하게 한 의식에서 우리 선조들의 풍수사상과 獐川을 章川이라고 개명한 것에서도 이곳 사람들이 文을 얼마나 숭상하였는지도 알 수 있고, 만천동이라는 지명에서 조상들의 선견지명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재터와 만천동의 지명에서 이곳 사람들이 풍족한 삶과 여유로운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다. 이처럼 이곳의 지명은

산, 호수, 바다, 등 다양한 지명에서 이곳의 문화와 아름다운 삶의 양식을 이해 할 수 있다.

2) 해양설화의 특징

모든 인간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평화로운 세계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루소(J.J.Rousseau)는 《社會契約論》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몸으로 태어났지만 쇠사슬에 얽매어 살아간다고 하였다. 자유롭게 태어난 인간이 자유롭지 못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때문이다.

고대인들에게 자연은 풍요와 자비를 베풀지만 폭풍, 지진, 홍수 등으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해 왔다. 이런 연유로 선사시대의 유적지를 보면 바다와 접하고 있는 산기슭에 터전을 잡고 삶을 영위하였다. 이것은 삶의 지혜이다.

지금도 바다만큼 인간에게 풍요를 제공하는 자연은 없다. 그러나 바다만큼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도 없는 현실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무사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하여 성황제와 용신제를 지내면서 다양한 풍속과 설화들이 전해오고 있다. 용왕제는 바다를 접한 농경국가에서 신성시하고 있다. 서양에서의 용은 때로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농경민족인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신성시하며 숭배해 왔다.

용을 농경국가에서 중시하는 것은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말처럼 용은 물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 용은 다양한 짐승의 합성체로 실존하는 호랑이와 함께 우리의 의식 속에서 가장 강인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민속신앙에

서 용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어로생활에서의 두려움과 풍요를 기원하는 존재자로 용왕제를 지내면서 이 지역에서는 산 닭을 바치는 것도 龍神을 즐겁게 하기 위한 민속신앙이다. 용은 우리 민속신앙에서 물의 지배자이고, 절대자이며, 인간성이 부여된 예시적인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해양문화에서 성황제 제사에 용왕을 모시는 것은 바다를 접하고, 바다에서 생활하는 속초지역 신앙의 특징이다. 그리고 용왕을 숭배하면서 바다에서 풍요와 열정적인 힘과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 해양설화는 동해용왕신, 배성주신과 관련된 신앙적인 내용과 햇불이라는 도깨비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바, 이러한 민속문화의 존재론적인 면모는 이 지역사회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첩경이다.

3) 호수설화의 특징

어느 지역이나 호수가 있기는 하지만 속초처럼 아름다운 호수가 가까이 연결된 곳은 없다. 영랑호와 청초호를 쌍성호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호수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擇里誌》의 기록에 의하면 “동해에는 이름난 호수와 이상스러운 바위가 많고, 높이 올라가 보면 푸른 바다가 망망하고 동네에 들어가면 문과 돌이 그윽하여 景物이 실로 전국에서 첫째이다. 樓臺, 亭觀의 승지도 많아 曠곡의 侍中臺, 통천의 叢石亭, 고성 三日浦, 간성의 淸澗亭, 양양의 靑草湖, 강릉의 鏡浦臺, 삼척의 竹西樓, 울진의 望洋亭 등을 세상에서 關東八景이라고 부른다”는 기록에서 청초호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

옛날에는 양양부사가 부임해 오면 청초호에서 불꽃놀이를 하면

서 연회를 베풀었다는 말은 이곳 사람들이 얼마나 풍류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청초호는 청룡이 살았고, 영랑호에는 황룡이 살았다는 말은 이 두 호수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초호는 논미호 불꽃놀이와 용신제와 같은 아름다운 놀이문화가 있었고, 영랑호는 화랑인 영랑의 무리가 아름다운 호수를 찾아 심신을 수련하였다는 사실에서 명명되었다. 영랑호는 지금보다 훨씬 넓은 호수 주위에 소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산짐승들이 뛰어 놀던 곳으로 화랑의 무리들이 이곳에서 자연을 벗하며 심신을 수련하였다. 이곳에 화랑정이라는 화랑의 숙소가 있었다는 말에서 이곳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다.

문화와 정신은 유기적인 상관성을 갖고 있다. 지역문화가 흥하면 그 지역도 발전할 수 있지만 그 지역문화가 쇠퇴하면 그 지역이나 그 지역사람의 의식도 쇠퇴할 수 밖에 없다. 이 지역은 만은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아왔다.

고대사회부터 이곳은 접경지역으로 옛날 東瀛의 후손으로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보면 東瀛는 10월에 舞天이라는 종교행사가 있었다. 항상 10월이면 하늘에 제사지내고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는데 이것을 舞天이라고 하였다.(常用十月祭天晝夜飲酒歌舞 名之爲舞天) 고대사회부터 오늘날까지 이곳은 접경지역으로 많은 기층문화가 파괴되었지만 면면히 이어와 우리 지역사회의 정신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아름다운 자연과 설화들은 시간을 초월한 인간의 합심체라는 의식과 거리와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라는 의식,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인간소외나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산과 바다를 연결하는 이 호수들은 자연의 신비와 생명을 갖고 있는 이 고장의 자랑으로 이 고장과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평

화로운 마음과 정신적인 기쁨을 주고 있다.

4) 산악설화의 특징

孔子는 《論語》의 雍也에서 “知者は 樂水하고 仁者は 樂山이고, 知者は 動하고 仁者は 靜하며 知者は 樂하고 仁者は 壽하니라” 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이 말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바다에서 살아가려면 지혜로 와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는 의미는 언제나 고요히 장중한 산을 보면서 웅장함을 배우면서 어진 사람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속초 사람들의 특징은 知者이면서도 仁者이고, 動하면서도 靜하고 즐겁게 長壽할 수 있는 것은 호수, 바다, 산을 항상 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리의 山河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과 바위가 있다면 설악산과 울산바위를 들 수 있다. 울산바위는 설악산과 속초를 대신할 정도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속초의 지명유래와도 상관성을 갖고 있다.

이밖에도 권금성 등 산악과 바위의 전설은 이 지역 사람들의 지혜와 기층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민중성, 주체성, 그리고 전통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고유문화와 전통의식을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설화들은 이 지역인들의 의식의 표상이다. 이 장중한 산과 바위와 이와 관련된 아름답고 지혜로운 설화들을 통하여 우리는 경건함과 웅장함을 배웠다.

5) 마을설화의 특징

우리는 농경민족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과 평야는 중요한 생활수단이고, 삶의 터전이다. 우리 선조들은 농경생활을 하면서 지혜를 배우고 삶의 양식이 발전되었다. 이 지역 사람들의 특징은 바다처럼 열정적인 힘과 호수처럼 잔잔한 마음, 그리고 산처럼 웅장함을 갖고 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인내심이다. 그 인내심은 농경생활에서 체득한 것이다.

서양의 유목민족들은 양떼를 몰고 집을 떠나야만 생활이 영위되었고, 해양민족들은 배를 타고 멀리 떠나야만 살 수 있었다. 그들은 집을 떠나는 이별을 해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별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봄에 씨를 뿌려 정성껏 보살피면서 기다리다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인내심이 강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성을 은근과 끈기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별을 무척 두려워하지만 기다림에 길들여져 있는 민족이다. 이것은 농경민족의 특성이다. 봄에 파종하고 가을까지 기다리며 많은 자연의 재해를 접하면서 우리 선조들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 앞에 신을 생각하게 되었다. 조상신을 숭배하기도 하고 천신이나 지신 등 다양한 신의 존재를 설정하여 숭배하면 자신들을 돌보아 줄 것이라고 상상하며 마을마다 성황당이 있고 집집마다 신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神이 존재했었고, 그 존재가 일부이기는 하지만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기다림의 생활로 인해 음식이나 생활문화도 기다림의 문화를 갖고 있다. 서양인들은 고기를 바로 구워 먹거나, 야채를 날것으

로 먹지만 우리 민족은 그렇게 산 민족이 아니다. 고기도 하루 이틀씩 채워두었다가 먹고, 야채도 발효시켜서 먹는 지혜있는 민족이다. 특히 우리의 주식인 밥을 꼭 뜬들었다 기다려서 먹는 기다림, 그것은 농경문화의 특징이다.

이 지역에 고대사회부터 전해오는 파종기와 수확기에 신에게 제사 지내는 연희의 행위도 농경문화의 영향이다. 이러한 연유로 이 지역에는 다양한 신앙과 설화들이 전해오고 있다.

이 고장의 이러한 자연 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삶의 모습과 아름답고 독특한 음식 문화와 후덕하고 어머니 같은 훈훈함을 느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 설화는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진 이야기로, 민중의 문학이며 생활에 지혜와 흥미를 갖게 한다. 설화는 이미 그 자체로서 문학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설화들을 통하여 세계관과 인생관을 알 수 있고, 흥미와 도덕성을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설화는 민중의 생활체험을 통해서 향유된 문학양식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산과 호수, 그리고 바다와 평야가 함께 공존하는 지역이고 신비스러운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으로 다양한 삶의 방식과 생활 모습을 찾을 수 있듯이 많은 설화들이 다양하게 전해오고 있다.

바다를 통하여 자연에 대한 경외심, 그로 인한 다양한 신앙과 설화들이 있고, 그리고 자연의 풍요와 열정적인 힘을 배웠고, 호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평화로운 마음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관계된 놀이문화와 아름다운 설화들이 우리의 생활에 여유를 주었다. 산과 평야와 관계된 설화들은 삶의 지혜와 인내심을 주어 이 지역의 정신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모든 것이 과학화되고 변화하는 오늘날 아직도 우리가 좋을 강

조하고 생활의 최고의 덕목으로 선을 주장하는 것은 오랜 세월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勸善懲惡 설화의 영향이다. 설화는 생활의 체험으로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 정신적인 즐거움과 지혜를 제공한다. 이 고장 사람들이 효와 우애와 자연을 사랑하는 원동력은 이 고장에 전해오는 설화의 요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전인자처럼 우리의 몸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洞祭나 서낭제가 마을 사람들의 공동적인 동질감을 긴밀하게 해주었다. 이러한 많은 아름다운 설화의 보존과 전승은 공동체 사회의 중심적인 매개체로 우리의 의식을 지배해 왔다. 민속문화에 대한 지향적인 노력은 根源에 回歸하려는 인간의 본성이고 현대 과학의 문명 속에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설화는 역사보다 많은 삶의 의미를 갖고 있다.

IV. 속초 문헌설화의 내용



현재의 속초지도(1999년)

《신증 동국여지승람》(1530년)소재 속초관련 설화 양양도호부(제44권)

□ 설악(雪岳)

부의 서북쪽 50리에 있는 진산(鎭山)이며 매우 높고 가파르다. 8월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으로 이렇게 이름 지었다.

□ 이산(籬山)

부의 북쪽 63리 쌍성호 서쪽에 있는데 곧 대관령 동쪽 가닥이다. 기이한 봉우리가 꾸불꾸불하여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으므로 이름을 지었다. 울산(蔚山)이라 하기도 한다.

□ 쌍성호(雙成湖)

부 북쪽 40리 간성군 경계에 있으며 둘레가 수십 리다. 호수 경치가 영랑호보다 훌륭하다. 예전에는 만호영(萬戶營)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 대포영(大浦營)

부 동쪽 12리에 있다. 성종 21년(1490)에 강릉 안인포에서 여기로 옮겨왔다. 수군만호 1명이 있다.

□ 대포진(大浦鎭)

동쪽으로 12리에 있다. 성종 21년에 강릉 안인포에서 옮기고 만호를 두었다. 중종 15년(520)에 성을 쌓았으며, 둘레가 1천1백69척이었는데 후에 고쳤다.

□ 비선대(秘仙臺)

부 북쪽 50리 쌍성호 동쪽에 있다. 돌봉우리가 가파르게 뻗어났고, 위에 노송 두어 그루가 있어서 바라보면 그림과 같다. 그 위에 앉을 만하며 실 같은 길이 육지와 통하는데, 바다 물결이 사나워지면 건널 수 없다.

□ 권금성(權金城)

설악산 꼭대기에 있으며 석축이다. 둘레는 1천1백12척이고 높이는 4척이었는데 지금은 반쯤 무너졌다. 세상에 전해 오기는 “예전에 권씨, 김씨 두 집이 여기에 피난한 까닭으로 이름하였다.”한다. 낙산사 기문에 “원나라 군사가 우리 강토에 마구 들어왔는데 이 고을에서 설악산에다 성을 쌓아서 막았다.”고 한 곳이 여기인가 의심된다.

□ 설악산 고성(古城)

산 정상에 있으며 권금성이라고 하며 토토성(土土城)이라고도 하는데 둘레는 2천1백12척이다.

□ 청초호(靑草湖)

고려때 만호를 두어 정박하는 병선을 관리하였다.

《동국여지승람》 간성군 (제45권)

□ 영랑호(永郎湖)

고을 남쪽 55리에 있다. 주위가 30여리인데, 물가가 굽이쳐 돌아오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 동쪽 작은 봉우리가 절반쯤 호수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옛 정자터가 있으니 이것이 영랑 신선 무리가 놀며 구경하던 곳이라 한다.

안축(安軸)의 시에 “평평한 호수 거울인양 맑은데, 푸른 물결 엉기어 흐르지 않네. 놀이베는 가는 대로 놓아두니, 둥실둥실 떠서 나는 갈매기 따라가네. 호연하게 맑은 홍이 발동하니, 물결 거슬러 깊고 그윽한 데로 들어가네. 붉은 벼랑은 푸른 돌을 안았고 옥동(玉洞)은 경주(瓊州)를 감추었네. 산을 따라 소나무 아래 배 대니, 하늘은 푸르고 서늘한 기운이 이제 가을이네. 연잎은 맑아서 씻은 것 같고, 순채 실은 미끄럽고도 부드러구나. 저물녘에 배를 돌리려 하니, 풍연(風烟)이 천고의 수심이네. 옛 신선 다시 올 수

있다면, 여기서 그를 따라 놀겠노라. 저문 구름 반쯤 걷이니 산은 그림 같고, 가을 비가 새로 개이니 물결 절로 생기네. 이곳에 거둬 올 것을 기필할 수 없으니, 배 위에 노래 한 곡조 다시 듣노라.” 하였다.

이곡(李穀)의 시에 “안정승(안축)의 정회는 황학(黃鶴)의 달이요. 이생(이곡 자신)의 행지(行止)는 흰 갈매기 물결이네. 이 곳에 다시 올 일 기필하기 어려운데, 부질없이 관동의 한 곡조 노래만 듣네.”라고 하였다.

□ 설악(雪岳)

신라 사전(祀典)에 “수성군에 달려 있는데 명산이므로 소사(小祀)에 실려 있다.”고 하였다.

《간성군 읍지》(1633년) 소재 속초 관련 설화

□ 천후산(天吼山)

군 남쪽 7리에 있다. 이 산에는 돌이 많다. 바람이 산중에서 스스로 불어 나오기 때문에 “하늘이 운다.”고 전해온다. 양양과 간성 사이에 큰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은 이 산에 성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높은 곳에 있는 바위가 부처와 같고, 그 옆에 있는 큰 돌이 마치 쌀갓간과 같아서 항간에서 부르기를 화암(禾岩)이라고 전한다. 옛날에 수자리가 이곳에 있었는데 고점라(藁苔裸)라는 돌이 적에게는 양곡을 쌓아놓은 것으로 보여져서 적이 퇴각

했다 하므로 그 이름을 화암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 영랑포(永郎浦)

군 남쪽 55리에 있다. 주위가 20리다. 물굽이가 산골짜기로 들어와 있다. 돌아드는 개천과 굽은 모래벌은 볼 수 없고, 암석이 뒤섞여 있다. 물 속에는 고립된 돌과 점석이 있고 동쪽 산 밑에는 모래 언덕 가까이에 송림이 있어 해를 가리고 백여명이 앉을 수 있다. 옛날부터 정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다. 영랑이 유람왔기 때문에 영랑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온다.

□ 울산암(蔚山岩)

군 남쪽 60리 미시령 부근 일대에 바위가 총총이 솟았는데 바위 산이 마치 풀포기 같이 옆으로 5~6리나 뻗어 마치 기치창검(旗幟槍劍)이 좌우로 달려가는 듯한 웅장한 기상이다. 비록 금강산 밖에 있으나 금강산 못지 않은 기암총석이다.

■ 신중동국여지 승람

<p>郡名 翼峴 伊文 翼嶺 德寧 襄州 襄山</p>	<p>姓氏 本府 金李孫朴河鄭 張林尹 朴金崔李陳 林錢</p>	<p>山川 雪岳 在府西北五十里 嶽山極高 所冬羅 嶺 在府西六十里 重巒疊嶂 地城隍山 在府北二 里 勢險阻 舊有路通京師 今廢</p>	<p>五峯山 在府東北十五里 在府東 德山 在府 里 十六 草津山 在府南二 嶽山 在府北六十三里 東支也 有奇峯 縱橫如 設磨 嶽故名 俗云 蔚山 陽野山 在湖山 縣 鼎足 山 在府西南四十里 三峯 海 在府南十三里 把典 把 雙成湖 之形 勝優於永郎湖 昔置萬戶營 治兵</p>	<p>松今 南大川 在府南二里 出江陵府 五臺山 竹 島 在府南四十五里 觀瀾亭 府南 入海 竹 傳因石 柱 轉 其 中 處 而 成 凹 磨 畫 則 世 故 矣</p>	<p>味子 紫草 人參 地黃 茯苓 蜂</p>	<p>土產 芋 鐵 出 西 樺 寺 竹 箭 山 竹 海 松 子 五</p>
<p>蜜 白花蛇 海衣 薑 鱧 紅蛤 文魚 大口魚 松魚 鱧魚 銀口魚 黃魚 魴魚 古刀魚 廣魚 鱸魚 秀魚 雙足魚 海參 松蕈</p>	<p>城郭 邑城 石筋 用四百三尺 高五尺 土築 周二千 八百里 二十五尺 內有二井 今半廢 落 關防 大浦營 在府東 十二里 成宗二十一年 自 一八 關 應 王 德 庚 辰 設 石 城 周 一千四百六十九尺 高十二尺</p>	<p>嶽 水山 烽燧 北 應 德 山 南 德 山 烽燧 北 應 竹島 南 草津山 烽燧 北 應 水 山 陽野山 烽 燧 南 應 江 陵 連 谷 縣 注 文 山 北 應 草津山 三十六</p>	<p>新 東軒 姜 深 詩 覆 陽 來 憶 故 人 賢 城 香 勝 德 州 英 道 此 行 情 興 薄 會 頓 地 不 用 吟 賦 意 名 途 信 安 不 圖 前 來 佳 斯 樓 已 二 年 覆 柱 竹 叢 分 興 月 傍 岸 番 樓 半 摧 煙 柱 苔 高 吟 迎 爽 氣 舉 觴 白 眼 望 青 天 朱 鉉 不 用 樓 城 弄 兩 林 間 烟 雨 泉 安 仙 詩 名 途 信 安 不 圖 前 來 佳 斯 樓 已 二 年 覆 柱 竹 叢 分 興 廣 庭 門 排 出 城 蒼 煙 綠 觀 民 需 養 吾 國 建 員 君 恩 愧 故 天 計 拙 未 能 興 利 路 若 為 漢 家 漢 金 築 口 趙 復 詩 古 郡 經 營 自 國 前 大 平 風 月 年 千 年 萬 運 官 謝 三 草</p>	<p>樓 太平樓 在 賓 館 南 ○ 郵 振 韓 濟 清 著 樓 成 廷 祐 月 傍 岸 番 樓 半 摧 煙 柱 苔 高 吟 迎 爽 氣 舉 觴 白 眼 望 青 天 朱 鉉 不 用 樓 城 弄 兩 林 間 烟 雨 泉 安 仙 詩 名 途 信 安 不 圖 前 來 佳 斯 樓 已 二 年 覆 柱 竹 叢 分 興 廣 庭 門 排 出 城 蒼 煙 綠 觀 民 需 養 吾 國 建 員 君 恩 愧 故 天 計 拙 未 能 興 利 路 若 為 漢 家 漢 金 築 口 趙 復 詩 古 郡 經 營 自 國 前 大 平 風 月 年 千 年 萬 運 官 謝 三 草</p>	<p>味子 紫草 人參 地黃 茯苓 蜂</p>	<p>土產 芋 鐵 出 西 樺 寺 竹 箭 山 竹 海 松 子 五</p>

日人進道村一傳烟江溪流傳世道山何幸劍嶺昔
 幸君起登事起前歲天書齊天年律布泉已同劍嶺昔
 日開寄語有六平煙秋何山園坐隔并已同劍嶺昔
 接天奇蹟新陳望太中臨今年蘇頌泉漢此樓心
 果僅曉前新柱暨又一年蘇頌泉漢此樓心
 和諸王公宦頃清開可燈深及深深深深深深深
 敢望范公前游賞猶能及壯年影逐山樓道有月
 專華岳御流輝想深欲無地任官難二愧道有月
 興枉選似美流輝想深欲無地任官難二愧道有月
 春偶作勝遊以打東深浪靜散詩遊遊古塞山高日
 渚抱漁打君改可採束蘇白清景能醫弱眼吞三前洲
 三十七
 三十八
 三十九
 四十
 四十一
 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四十五
 四十六
 四十七
 四十八
 四十九
 五十
 五十一
 五十二
 五十三
 五十四
 五十五
 五十六
 五十七
 五十八
 五十九
 六十
 六十一
 六十二
 六十三
 六十四
 六十五
 六十六
 六十七
 六十八
 六十九
 七十
 七十一
 七十二
 七十三
 七十四
 七十五
 七十六
 七十七
 七十八
 七十九
 八十
 八十一
 八十二
 八十三
 八十四
 八十五
 八十六
 八十七
 八十八
 八十九
 九十
 九十一
 九十二
 九十三
 九十四
 九十五
 九十六
 九十七
 九十八
 九十九
 一百

亭

在府前二十五里傍嶺有山水通十里
 給仰不見日松間無障并怡山連
 嶺峯成

紅嶺嶺
 鄉校 在府東二里安輪記闕之東山水奇
 出是邑無虛而於百餘年間未聞有懷奇清淑之士
 不惟也今者邑中混一而民不知兵革與學與子第
 日並宜置學校置人才庶定邑者唯以軍書為急
 而處不及焉故山水之氣此壘非邑人之不崇賦余
 到是邑聞之者皆邑之北有洞相傳云宜王洞斯
 邑古之學蓋而後邑父與余心竊嘆焉於其地命
 下同年交通州守任陳君益督其役工役始與而
 邑中正照朴君來任任朴君亦文儒相門之子也
 用其力以成其志豈非邑人之幸也歟夫地之氣
 其表也父則其孫也孫則其子也遠則有以當山水之
 取而有才學之孫里不實也然則後有以當山水之
 高君于
 三十八
 三十九
 四十
 四十一
 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四十五
 四十六
 四十七
 四十八
 四十九
 五十
 五十一
 五十二
 五十三
 五十四
 五十五
 五十六
 五十七
 五十八
 五十九
 六十
 六十一
 六十二
 六十三
 六十四
 六十五
 六十六
 六十七
 六十八
 六十九
 七十
 七十一
 七十二
 七十三
 七十四
 七十五
 七十六
 七十七
 七十八
 七十九
 八十
 八十一
 八十二
 八十三
 八十四
 八十五
 八十六
 八十七
 八十八
 八十九
 九十
 九十一
 九十二
 九十三
 九十四
 九十五
 九十六
 九十七
 九十八
 九十九
 一百

嶺

在府北三十里
 連倉驛 在府內
 降仙驛 在府內

井通靈源透氣溫溫益似春鬼神呵衛無城膏開記
佳妙更仍滿湖(國)成說神玉實陰文如歡焚九龍
可護閣深源遠地弱滋曲一派齋佛蒼山推融
融暖氣如那頭不勞驚雀焚新復漢
身沐性有奇功不獨湯發脫塵垢

杆城郡 來至浚洋七里南五襄陽府界五十
六里西至鎮詩羅界八十里北至高
城郡界六十七里距
京都五百二十七里

建置沿革 本高句麗邊城郡一云加新羅

改守城郡高麗改今名降為縣置今後
陞為郡兼任高城恭讓王元年遷析為

二本朝因之(官)郡守 訓導各一人

郡名 邊城 加羅忽 守城 水城

詳氏 本郡宋柳李張文 金李 咸楊

尹春南陽金陰 金張丹 安川孫海朴
來 烈山崔麻皇甫 金全 孫海朴

形勝 西連鐵嶺 家地妙西連鐵

山川 麻著羅山 在郡西三里
十里鎮山 在郡南
山 在郡南
五里
金剛

山 在郡西陽府天吼山在郡南七十里五音山在郡南
山頂有地 古城山 在烈山縣北三里即縣於丘
山 在烈山縣西四里 所坡嶺 在郡西五十九里
一名算的只山 破城山 在郡南
克已神碑并少似石破城山呼喚若損翠翠翠翠翠
必於軒五一帶蛇奔三百里屢有樹抄掛掛我道認
林間滋沈兒何須更說蜀 彌時坡嶺 在郡西南八
道險峻 來者難難易 彌時坡嶺 在郡西南八
道險峻 來者難難易 彌時坡嶺 在郡西南八

陽府所冬羅嶺陰院後開此路 海 在郡東
潭 郡南十一里許山麓周遭成谷中有潭曰仙遊
潭 郡南十一里許山麓周遭成谷中有潭曰仙遊
潭 郡南十一里許山麓周遭成谷中有潭曰仙遊

永郎湖 在郡南五十五里周三十餘里
不見容 永郎湖 在郡南五十五里周三十餘里
不見容 永郎湖 在郡南五十五里周三十餘里

州後山泊松下空翠傳生秋丹葉淨如洗
遊 州後山泊松下空翠傳生秋丹葉淨如洗
遊 州後山泊松下空翠傳生秋丹葉淨如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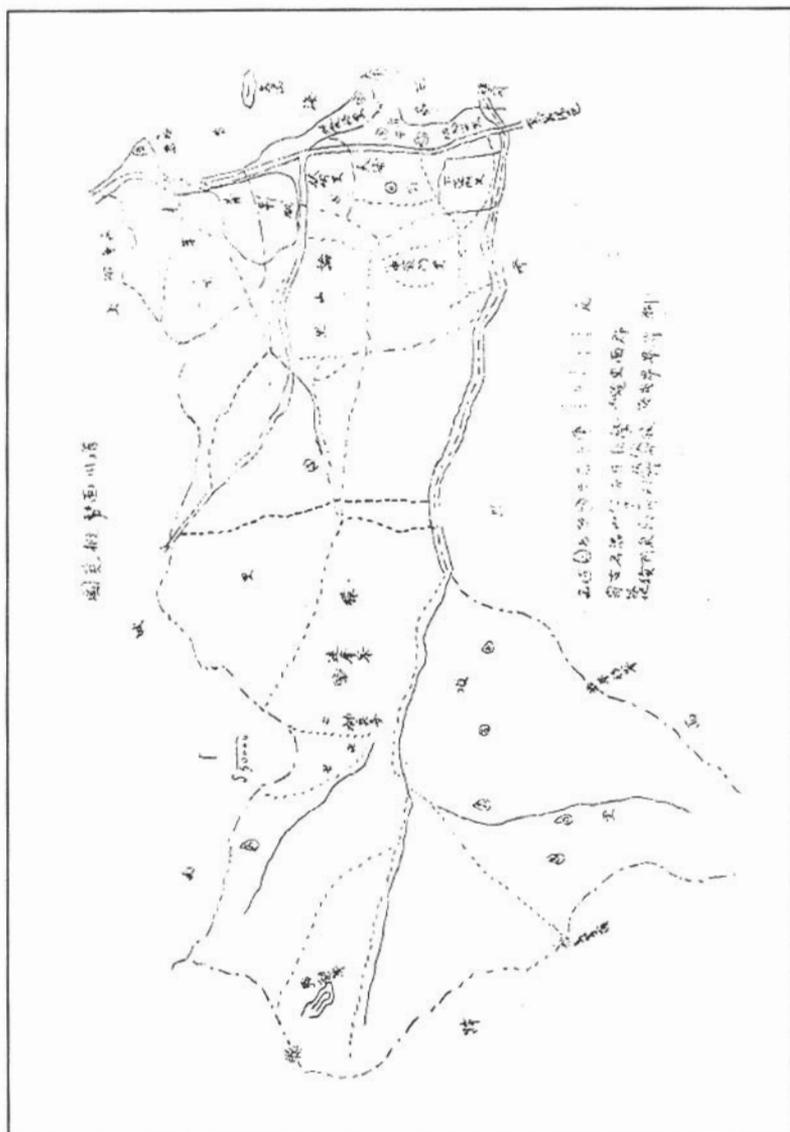
廣湖 在郡南四十五里永郎湖北十里許有
廣湖 在郡南四十五里永郎湖北十里許有
廣湖 在郡南四十五里永郎湖北十里許有

山 湖 谷 比 諸 湖 最大 故 傳 昔 大 水 包 烈 山 之 谷 新
天 晴 波 舒 則 壘 壘 依 然 可 見 竹 島 在 郡 南 二 里 許

五十里本非在郡境者然郡中諸
 山皆究於全剛而全剛乃表山故
 引金剛禪寺
 麻考羅山在郡直西三十里為郡鎮山有峰
 曰香炉歲旱祈雨有應
 國東山在麻考羅山西西接揚口界山勢最高耳
 天吼山在郡南七十里山多石岩洞自中
 出謂之天吼世傳衰杆之間多大
 洞以此云山有聖人台有石狀如佛
 像故名其他大石如菌蘆俗呼未
 歲世傳昔有防戍於此而故以藁苔
 裹此石示敵以有時稜仍以却敵

■ [자료] 도천면 면세일반(道川面 面勢一斑)(1926년)





道川面各里里程表

									内沙里
								下道門	二〇
							中道門	一五	二九
						上道門	一九	一八	一八
					獐子項里	一八	二一	二六	三〇
				大浦里	三〇	一八	二五	一五	二四
			外龍峙	二五	三五	三三	一四	三〇	三五
		扶月里	二一	一六	三〇	一八	一八	一〇	一四
		論岾里	二八	一三	二八	一〇	三六	一八	一三
	廣源里	二八	一〇	二二	二〇	一八	一八	二〇	二五
末草	二八	二八	二〇	三〇	三〇	三三	二九	三五	二五

							竹旺面
						土城面	一三九
					道川面	三二七	四二七
				神峴面	六一八	四二五	文九九
			襄陽面	二一八	三一八	六二七	八二七
		西面	三二八	文九九	七一七	一一五	一一九
	襄陽面	四一八	一一八	三二八	四一八	八二七	九二七
	縣北面	二一八	七一八	三二八	七一八	一一五	一一九
襄陽南面	二一八	五二八	八二八	三二八	六一八	一一七	一四二七

水産	製鐵	麻	生	蘭	小豆
川	川	骨	贊	斗	斗
			一九	七三	一〇一
	四三	一八	一三四	一五五	一三五
	九六	二五	九七	四〇五	一〇一
			三六	九〇	八〇
四五			一五	三	三九
三五八			二八	一八	九
九〇			二一		三九
		二〇	八七	三三	一三
	四五	一五	三三	五三	九五
		一八	一七	二五	一五
二二			六六	七	七
四二七	一四六	九	七七	九	一〇七

定期船大浦港等港但々々四種船舶出入此水濱河之運輸便少
力之欠

位置及面積

本島東部北郡海邊位之北東西・長之直徑四里十四町南北之直徑二里
直徑一里十四町之連入面積三万九千七百有六畝隣接之北東西連入
本島川以之流此水東之東八畝・瀬人

○名所

神興寺

新羅聖德太子代今約一千五百年前聖德太子即位元年(大正五年)迄(西元
前)慈藏神地現今塔項中塔呼・卜之寺沈日性香城寺上跡多
之神興寺・最始・神興寺・後祝融・罹り・寺院萬葉其為利婦
本八只時場在造聖塔・存在今之今・洞名・塔呼・神興寺・出之
寺其本行羅衣塔主並在義相禪師之末・到更・寺利性立

禪堂有改稱レタル云々以法類云火災罹リ喜父云寶物等者院庭
 係レ之瑣レ反レ疎レ歸レ云々正保元年三遷瑞蓮玉而禪師之レ茶レ
 在レ神興寺改稱レ不レ法レ河レ法レ三身レ六月レ覺レ禪レ師レ更レ修レ築レ以レ今日
 云々而レ前レ禪レ堂レ內レ院レ卷レ改レ稱レ云々本レ山レ舍レ剛レ山レ餘レ疎レ云々山レ不
 龍レ峨レ巖レ然レ山レ氣レ又レ幽レ深レ有レ設レ云々東レ六レ蓮レ摩レ峰レ屹レ屹レ踏レ踏レ真レ確レ婆レ恰レ
 云々蓮レ摩レ真レ身レ勢レ勢レ東レ南レ六レ土レ旺レ城レ濼レ沛レ云々西レ南レ六レ權レ舍レ城レ仙レ仙レ
 飛レ仙レ聖レ舍レ剛レ密レ千レ佛レ洞レ云々北レ六レ天レ吼レ山レ鎡レ祖レ庵レ云々其レ乾レ勝レ舍レ剛レ山レ云々歐レ
 微レ行レ故レ世レ傳レ云々之レ小レ舍レ剛レ稱レ大レ

土旺城濼沛

神興寺有レ禪レ填レ時レ越レ云々南レ天レ雲レ霄レ祥レ云々天レ照レ的レ千レ尺レ有レ修レ在レ便レ斷レ堂
 二條レ白レ布レ外レ掛レ云々如レ觀レ美レ大レ之レ印レ在レ南レ土レ旺レ城レ濼レ沛レ云々其レ下レ
 龍レ沼レ有レ田レ在レ農レ民レ大レ早レ地レ昔レ云々前レ而レ祈レ水レ量レ正レ多レ力レ大レ下レ雖レ之
 一レ交レ互レ不レ也レ水レ八レ恰レ云々至レ當レ飛レ敢レ在レ如レ相レ霞レ六レ混レ臺レ云々其レ濼レ云々其レ吐レ視レ

3是上度時炎熱時雖之一度校比云要者誰涼決味不也
 0下ラン

飛仙臺

大手口東北而三樹手西南裡(削)如純壁(間)字單(雜)トシテ
 生之窟私(前)トシテ溪(下)真(中)白石(背)流(在)如(階)級(足)盤(石)有(在)
 花(外)仙(臺)トシテ(外)將(珍)トシテ(王)トシテ(以)交(飛)仙(臺)トシテ(平)田(也)
 尋(岩)齋(堂)トシテ(符)トシテ(食)堂(側)一(清)流(有)一(些)濁(マ)ク(淺)ト
 シテ流(其)喜(妙)樂(聞)カ(如)ク(神)社(ヲ)語(ル)カ(如)ク(尚)其(食)堂(一)盤(石)一(面)
 拔(鍊)トシテ(古)今(在)士(領)德(ヲ)到(在)トシテ(長)其(人)ノ(德)ヲ(語)レリ

金剛峯

雪岳(青)峰(餘)脉(ヲ)預(約)峰(雲)ニ(連)ル(カ)如(ク)突(出)セ(其)下(ニ)必(不)在(所)凡(ト)在
 據(リ)干(秋)有(在)花(非)仙(臺)即(チ)探(跡)客(ヲ)合(剛)密(之)業(内)トシテ(在)ル(以)迄(南)面
 三(吃)咽(ト)シテ(時)五(ニ)ル(千)丈(任)石(壁)中(腹)示(リ)蜀(山)出(テ)登(ル)之(難)ト云(ヘリ)

一生慈命登長平川中河高五里處內古道僧徒思此場所
 一居在佛放箭古花牧才佳地我師子之方丈的古香花寺尚不絕
 夕輝晚之山工眺望尔林列之西一帶連山丈任混之西南之
 綠松栢山皆區之奇作在正一幅法畫之南意公漸于正勢雄大
 頻卓越在趣之六千佛洞之天照岩在六敷佛像之寺河蒲陀
 又珠可親世音之普賢之彌勒之觀音之同在之三昧恩
 新在名如千佛洞之恥不之禮神社在仙境之原久公州
 才出來其賢之遺憾之九所

繼祖庵

神樂寺北空僧住謀在五六天吼山以山八金山在累トト連
 中腹郡八一大正六二二風ナクテ伯之岳北八束笏一如奇巧在岩上云
 之尚不無復絶跡在繼祖庵八其下二身羅意花五并洞山覽
 智風頂三祥師匠一乘處之謹在繼祖庵上祿久岩屋根上八

世傳子小海金剛ト云フ

○古蹟

權金城

神樂寺南一畑町東五六町而昔分國跡小破壁有此昔權全二姓不謀
係此二姓之遺世之權全破壁傳東共天地的折坐一聖也
唯門址止此二姓不過又其年代之傳傳大微古空

俞勿齋碑

昌原人俞勿一ト云ト傳士ト云ト由瑞海荒荒是之孔子庚午其父秋潭其
前子居寺中者以子均其為其小其祖成衣道墟保存其為趙判
書視碑其北也守流福道天係此碑石五千秋者行其賢也
今止

大浦城趾

大浦城北難川浦江町餘所一高山之馬城原有絶頂碑餘斷

時其勢如噴音人收果是前國今尚為城嶺之新羅時代
 烽火煙臺報官任忠也云云山頂登之區海魚躍眼中置之
 增多也辭茶信缺是也持本秋季人景飾討人忘者性純
 不不見少り

烽火臺址

外宿時也後常必出山頂新羅時代烽火臺址程云其係新羅經
 廢古名之曰下松倉名松林中其址止長廣三角高一間半石築
 遺址有迷草塚生石上其境廢跡荒涼北之任其無心自絶
 翔り

僉使道墟

廢址見山云云竹羅時代僉使道墟在之其地墟り今礎石二礎石
 其當時屋之材境松木傳元之下松八何身妙石松礎り即
 此松八皆受受羅常七其葉生石下前道二四り傳り此明記云

頃蒙落葉真仙三年之任也尚不枯也再問葉之
 前宜查茶之河樹
 高而滿空之真茶是五才之長約三寸入
 燈久伴之崇麗而
 雅在古時覺之佛八之史的精採思ハシム

2005. 12. (日) 步

祥豆^ニ在付^キ 龍岩^ト 祢^ス 詩人^聖 聖常時^及 臨^ニ 龍^詠 歌^舞 止^ル 止^ル
 于^テ 統^中 前^朝 韓國^{時代} 郡^守 南^宮 德^氏 釋^尊 誕生^日 塔^花 莊^ニ 立^ル 立^ル
 景^勝 地^賞 不^可 及^ス 一^ノ 多^ク 景^中 磨^鏡 之^邊 雲^葉 優^ク 取^ル 取^ル 取^ル
 各^統 氷^期 東^ノ 霽^々 清^澄 透^徹 之^恰 大^也 大^也 大^也 鏡^面 磨^キ 取^ル 取^ル
 壯^{ナリ} 壯^{ナリ} 壯^{ナリ} 壯^{ナリ} 壯^{ナリ} 壯^{ナリ} 壯^{ナリ} 壯^{ナリ} 壯^{ナリ} 壯^{ナリ}

二 東草歸帆

西南^ニ 番^ク 平^坦 瓦^砂 瀆^湖 水^極 細^長 崎^岬 突^出 之^由 浦^ニ 立^ル 立^ル
 在^リ 在^リ 在^リ 東^草 田^ト 祢^ス 前^方 滄^溟 萬^頃 浩^々 湯^々 日^東 海^邊 帆^腹
 受^リ 砥^石 响^ク 欸^乃 聲^々 入^リ 采^北 觀^賞 深^湖 一^葉 遠^浦 歸^帆 帆^ニ
 壯^{ナル} 壯^{ナリ} 壯^{ナリ} 壯^{ナリ} 壯^{ナリ} 壯^{ナリ} 壯^{ナリ} 壯^{ナリ} 壯^{ナリ} 壯^{ナリ}

三 舟橋夜火

野^東 青^岬 湖^邊 一^部 落^今 扶^舟 望^ト 云^フ 此^ノ 里^本 舟^橋 祢^ス 往^時 此^ノ
 邊^湖 水^ニ 浮^舟 場^ニ 立^リ 以^テ 此^ノ 在^リ 致^ス 不^レ 立^ル 立^ル 現^今 之^里 深^湖 水^近 立^ル

接ルヲ以テ初夏由月ト晩秋ノ九月頃ハ魚蟹ノ夜漁盛ニシテ江村ノ夜火湖
 ノ邊リ三五級終不絶火ヲ湖水ノ映照シテ振翳ス炬火共ニ不夜城ノ美
 感ヲ呈ス

四 温井朝霞

秋月日ハ内日外日ニ部ニ分シ内日ノ南ヲ高松山ノ麓ニ温井ニ民家頗
 軒アリ丘麓ノ右香山湖ノ粉花ヲ四時絶スルシテ湧出セル温泉水
 水溢冬期ハ稍温クシテ夏節ハ普通ノ水ト大差ナレ此ハ冬期ニ入
 ルハ温泉水ノ迂方ト恰モ朝霞映射スル時蒸氣溢漲スルノ附随ニ帯朝
 霞濃厚ニシテ雲形ノ如ク烟障某草日ヲ的ニシテ下中流下トナリ
 一身視テ莫日稍中天ニ至ル頃漸ク消ス去リテ跡ヲ止メト云フ

五 論山朝陽

所好ニ帯平但何處上深何と平地ニ位置スルニ独リ論山ハ稍小高ニ丘
 陵地帯中東向ニ居ル朝霞日早ニ興ス其ノ壯麗ヲ稱スル葉中一

遊々山行

靑岱畫屏

東郡、鎮山、靈岳山、一派、逶迤、廻行、之、東、岳、天、台、山、遠、巖、峻、峰、
 峭、之、二、脈、分、之、東、西、中、央、貫、通、元、氣、中、嶽、丘、天、堂、摩、斯、
 之、靑、岱、山、ト、大、匠、ノ、造、高、古、木、村、林、ヲ、航、海、者、目、標、ト、ス、山、ノ、
 諸、山、群、峰、踞、蹠、匡、迴、之、四、時、視、賞、ス、ト、止、マ、リ、ト、ス、晚、秋、
 葉、赤、ク、花、之、紅、花、錦、繡、落、風、リ、遊、綴、洛、飾、モ、ル、美、觀、ハ、仙、宮、ト、
 云、出、シ、行、ノ、遊、情、ク、ソ、ル、モ、一、下、
 七、蘆、洞、明、月

西、後、主、ル、蔚、山、岫、雲、情、ト、峯、岳、ト、東、海、水、ノ、氣、ハ、森、吸、盡、ス、ト、花、散、リ、
 示、南、方、朱、鳳、峙、嶺、岱、山、ノ、畫、屏、ト、如、ク、旋、回、シ、東、六、洋、ノ、北、回、東、海、
 遊、飛、ト、遊、々、リ、好、景、之、平、坐、在、位、置、ノ、中、に、其、景、ヲ、大、現、シ、
 小、祿、ハ、中、秋、視、月、踏、遊、子、ノ、中、秋、萬、象、靜、寂、常、娥、東、海、出、ル、美、

玉兔中天懸，
 懸北憐落月山陰，
 疎影，影，
 看入穿羽，
 地併也乎此，
 清視，備，
 古詩，
 中天月，
 色好，
 須看，
 穿羽，
 明月，
 人勝，
 加，
 此，
 一，
 無，
 其，
 下，
 一

八、梨洞白電

野志興，
 小部，
 落，
 現，
 在，
 冥，
 皇，
 曆，
 久，
 暮，
 光，
 郊，
 野，
 接，
 六，
 里，
 全，
 部，
 白，
 電，
 不，
 時，
 白，
 雪，
 御，
 翻，
 噴，
 飛，
 花，
 白，
 雪，
 在，
 行，
 詠，
 唱，
 惜，
 中，
 人，
 悲，
 無，
 樹，
 低，
 採，
 性，
 時，
 面，
 影，
 止，
 此，
 全，
 此

		戶						
口		大浦	空海	下通門	中通門	上通門	獐嶺	
			二五					
			九三					
一一九	九五	八四	九五	一三一	八六	二七	九二	
七三五	五七二	四七六	四六三	六八一	四六八	一七四	九四一	
			一					
			三					
一一九	九五	八四	九三	一五九	八六	二七	九二	
七三五	五七二	四七六	四六三	六八一	四六八	一七四	九四一	

察		警		南		南		南		南	
官	役	官	役	官	役	官	役	官	役	官	役
新	一	大	火	南	長	計	石	計	綿	倉	計
	二	火	火	長	一	油	油	反	反	反	計
巡	三	火	火	書	見			二		三	四
	四	火	火	土	正			九		九	八
長	五	火	火	長	二			〇		〇	〇
	六	火	火	面	故					京	城
巡	七	火	火	故	議	一	一	五	八	二	
	八	火	火	員	員	〇	〇	七	六	〇	
查	九	火	火	員	員	〇	〇	九	九	五	
	〇	火	火	員	員	〇	〇	〇	〇	〇	元

官公	署	衙	生	地方教育	團體
面事務所一	漢東銀行一	共同便所一	赤十字社	興風會一	春林契一
總務委員會一	郵便所一	共同墓地	正社員一〇	産業扶助會一	補喪契一
普通學級一		酸石生	愛國婦人會	新化會一	築港會一
悅友會組一		藥種園	直中會	築港契一	

五二

一

三

속초지역 구전설화

- 인 쇄 / 1999. 12. 15
- 발 행 / 1999. 12. 30
- 조사자 / 장정룡·양언석
- 펴낸이 / 최용문
- 펴낸곳 / 속 초 문 화 원
- 인쇄처 / 동 녘 출 판 기 획
(0391-645-1001)

고 성 군
高 城 郡
KO SONG GUN

토 성 면
土 城 面
TO SONG MYON

숙 초 시
束 草 市
SOK CHO CITY



외 선 야
1999 · 속초문화원
Oesoran

강 현 면
降 峴 面
KANG HYON MYON

관모산
冠帽山
Kwanmosan

서 면
西 面
SO MYON

양 면
陽 面
YANG